섬기는 공동체를 위한 장로 사역

THE ELDER MINISTRY, FOR SERVING THE COMMUNITY

BY

SEO, SEUNG HYEUN

A DEMONSTRATION PROJECT

Submitted to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oSeong, Korea

2013

This is to certify that the
Demonstration project entitled

섬기는 공동체를 위한 장로 사역

THE ELDER MINISTRY, FOR SERVING THE COMMUNITY

presented by

Seo, Seung Hyeun

has been accepted towards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Academic Dean's Signature

Director for D. Min Program's Signature

May 2013

NYTS is an Affirmative Action/Equal Opportunity Institution

ABSTRACT

THE ELDER MINISTRY, FOR SERVING THE COMMUNITY

BY

SEO, SUENG HYEUN

In this paper, as a ministry of elders for serving the community, the case of "How to deal with the ministry of elders for the church of serving community?" will be addressed in theological, academic and cultural aspects. One of the fundamental problems of the church in Korea, the function of the church is being lost in front of the immense power of the elders' vested rights. The church is not only losing its function but also its role to be the salt and the light of the world, as well as becoming a subject of criticism from the people of the world that can be denied. We can see the early church beginning in the book of Acts can afford to be the role of serving community faithfully. I desire the church today will be recovered to the same as the early church in the book of Acts. To do so, the serving of the pastor always comes first than any other things. It is impossible to achieve all these things in a short period of time as well as serving. The continuous self-analysis, change and renewal of ordained minister are required to fulfill the need of the church through adequate planning and preparation. Pastor of ceaseless self-analysis and change and renewal fill in the gaps in the Church, through adequate planning and preparation is required. The self-checking of the pastor should be the first. There is no law the pastor is always good. Thus, the pastor should check himself one by one and fix it up. Without self-correcting, there is no real development.

There is a need to know the lives of the elders after the self-checking of the pastor. If blindly serve, it can cause many adverse effects. Serving is necessary depending on the condition of the personality and lifestyle of elders. If the pastor serves the elders blindly, people at his side

can say that he pays court to the elders and think he has a prejudice.

Above all, entirely biblical serving is needed for the pastor to serve the elders. Pastors have to serve elders as Jesus who served His disciples. When Jesus was on earth serving His disciples, He showed them how to teach and to be obedient to God. If ministers do not teach elders and serve them as to be obedient to God, the church cannot be set up correctly.

As well as, it is important to teach the true meaning of serving to the saints and to give advance notice of "How important it is the collaboration of pastors and elders". Then the conflict structure between the saints and elders will be resolved by serving the elders with the saints and pastors. And they will have a discipleship and an Alpha training for serving each other with the laity. There will be a time for sharing to apply weekly Bible words through D-type QT (Contemplation of main text, Research and Meditation, Feeling, Application and Determination) and to share the fruit that happens in real life with each other for the training. Then, they will read religious books every week, have a talk about their feelings with each other, practice the life worthy in the presence of God and be shared the results of what they did in their life with trainees. Next, they live with the Word of God in the Bible by reading everyday as to apply the stick of life for daily live, as well as through alpha training, they will be performed the lives of specific good deeds to the neighbors rather than simply preaching the gospel with their mouths with the training of giving a good example first just like Jesus. For the purpose of opening the hearts of souls (Family, Relatives, Neighbors and Friends) for evangelical preaching, the training is needed to open their mind through regular events.

Above all, trainees should be held strongly by the Holy Spirit. The true repentance that needs the help of the Holy Spirit must be preceded with giving up themselves by understanding their weaknesses and inadequacy through an alpha and discipleship training. It is more important to know and realize their iniquities to do so. The trainees will have a training for checking their daily lives in order to find out what they have to fix it up and to develop in their lives by making the table 'Before God' for the trainees' day divided into 24 hours. If elders, ministers and all the

saints are beautiful inside and outside of their world at the presence of God, our church will grow up to be praised by our God. Training being carried out in this paper will be beautiful to walk with God. If they set aside the old order of things completely and then to expand themselves from the church to home and to the place of life with new and good habits, the church of Korea will be surely beautiful at the presence of God. This paper is going with these goals.

ACKNOWLEDGMENTS

그렇게 겨울 내내 꽁꽁 얼어붙었던 땅 속에서 아무런 말도 없이 혼자서 온갖 어려움과 시련을 참고 인내했기에 그토록 아름다운 노란 꽃을 먼저 활짝 핀 개나리 꽃이 대견하게 보이는 봄의 시절을 맞이하여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이 금할 길 없습니다. 지나온 3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음을 느낍니다. 교회 사정상 도저히 뉴욕신학교(NYTS)에서 공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상섭 목사님의 끈질긴 간구로 시작하여 이렇게 마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히 갈성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협조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천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공부였다고 생각합니다. 논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갈성교회 제자훈련 반과 그리고 사역훈련반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창건 박사님의 논문지도와 편달과 격려 속에서 논문을 마치게 됨을 감사 드립니다. 또한 이재용 목사님께서도 많은 협력을 해 주셔서 논문을 성공적으로 완성 할 수 있었던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울 때 마다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며 뒤에서 밀어 준 아내 김안일 사모와 그리고 지애, 기평에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 드립니다. 특히 저의 어머니, 형수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두에게 “사랑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합시다.” 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SEO, SEUNG HYEUN

MAR. 27. 2013

목차(Table of Contents)

Ⅰ. 배경소개(Introduction to setting)

1. 교회의 형성 배경 ······ 1

2. 사회적 배경 ······ 2

3. 상황적 배경 ······ 3

Ⅱ. 시행전략(Strategy Statement)

1. 목적(Goal) ······ 4

2. 목표(Objective) ······ 6

Ⅲ. 연구조사 질문(Research Questions)

1. 성서적 질문(Biblical Component) ······ 8

1)장로의 기원과 성육신 ······ 10

2)쉐마 공동체를 위한 장로 ······ 17

3)초대교회의 공동체(성령)를 위한 장로 ······ 21

2. 신학적 질문(Theological Component) ······ 24

1)해방신학으로 본 한국기독교의 실태 ······ 32

2)교회의 소통적 장로 기능 ······ 38

3)희망 공동체와 팀 사역 ········ 40

3. 사회학적 질문(Sociological Component) ········ 41

1)신앙공동체 구성원들의 다원적 기능 ········ 44

2)가족 구성원들간의 문화적 갈등 ········ 47

3)언어의 해방적 기능 ········ 48

4. 영성적 질문(Spiritual Component) ········ 51

1)전인적 삶 ········ 54

2)심리 ········ 56

3)치유상담 ········ 58

Ⅳ. 과제 시행(Project Enforcement)

1. 알파를 통한 섬김 ········ 60

1)알파훈련의 1차 준비 ········ 60

2)알파훈련의 2차 준비 ········ 68

3)알파 훈련계획 ········ 73

4)적용과 실재 ········ 82

5)연구반활동 내역 ········ 92

Ⅴ. 과제 평가(Project Evaluation)

1. 의식변화를 위한 계획 ········· 93

2. 행동실천계획 ········· 94

3. 연구반 과제평가 ········· 96

4. 연구반 섬김 봉사 평가 ········· 112

5. 훈련실행 결과 ········· 122

Ⅵ. 목회자의 유능성 개발(Personal Evaluation)

1. 섬김 /역할분야 ········· 123

1) 유능성 개발을 위한 독서계획 ········· 123

2) 시행결과 ········· 125

2. 인간관계(1:1 커뮤니케이션) ········· 125

1) 유능성 개발을 위한 독서계획 ········· 126

2) 시행결과 ········· 127

3. 리더십 ········· 127

1) 유능성 개발을 위한 독서계획 ········· 128

2) 시행결과 ········· 128

Ⅶ.결론(Conclusion) ············ 130

1. 요약 및 제언 ············ 130

Ⅷ. 참고문헌(Bibliography) ············ 132

Ⅸ. Appendices

1 사역자지침서 ············ 137

2 사역자 주간계획서 ············ 138

3 영적은사 확인진단 ············ 139

4. 영적은사결과 ············ 149

Ⅰ. 배경소개(Introduction to Setting)

1. 교회 형성 배경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교회는 1955년 10월 5일 전북 남원시 갈치동 217 에 위치한 갈성교회로서 김상영 전도사와 교우 6명이 함께 전형적인 유교사상이 지배하

는 마을에서 마을 이장과 마을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 다니며 교회를 짓는데 협조를 구하여 마을에 작고 허름한 한옥 집을 빌려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게 된다. 그 후 교회는 점점 부흥하기 시작했으며 1962년 4월에 구교회당 건축을 하게 된다. 1963년 최초로 장로 장립을 하게 되는데 교회가 부흥하면서 다시 교회를 신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 합심하여 현대식 건물로 1층은 교육관과 식당을 100평으로 짓고 2층은 예배당으로 100평으로 1993년에 완공하게 된다. 교회를 건축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수고하였지만, 특히 전병렬 장로가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모든 성도들이 장로의 사랑과 헌신을 칭송하였는데, 그 칭송이 장로의 언행을 교만하게 만들어 결국에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목회자가 교회를 사임하게 이르게 된다.

전라북도 남원시 갈치동은 누에 농사뿐만 아니라, 벼농사, 짓는 어떻게 보면 바쁘지만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열의를 가지고 있는 마을이다. 그리고 시내 권에서 젊은 성도들이 많이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점점 젊은이들이 도시로 이주해 나가고 교회 성도들도 자연이 감소 추세에 있다. 이런 상황가운데 교회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환경이 겹치면서 많은 어려움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런 교회에 필자가 부인하여 교회를 하나님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로의 섬김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온 성도들이 함께 섬김의 참 모습을 발견하고 실천함으로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2. 사회적 배경

전라북도 남원시 갈치동은 어떻게 보면 작은 시골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매우 부지런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지 교회를 창립하고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나름대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앞장을 서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섬김과 봉사였다. 다음으로 농사일에 대한 집착이다. 농사일을 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며 쉴새 없이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한다. 내가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사회적인 배경을 안고 있다. 인간의 요구는 매우 다양하다. 그것들은 개인적이기도 하고 사회적이기도 하다. 육체적인 것도 있으며, 영적인 것도 있다. 심리적인 요구도 있고 물질적인 요구도 있다.[1] 무엇보다 교회를 구성하는 교우들에게 필요한 요구는 영적인 것이다. 신앙생활을 통해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여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영적인 요구를 얻기 위해 무엇보다 목회자의 헌신적인 섬김의 삶을 교우들은 기대하게 된다.

갈성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배경이 있다면 바로 교우들을 헌신적으로 섬길 수 있었던 목사님들의 겸손함이 영적 배경으로 작용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2] 예수님의 섬김의 원리가 정인영 목사의 목회철학에 그대로 묻어 나와 성도들의 삶을 아우른 것이라 하겠다.

3. 상황적 배경

역대 목회자와 장로와의 갈등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있었다.

---

[1]Howard J. Cllinebell, *목회와 지역사회*, 오성춘 역(서울: 대한 기독교출판사, 1984), 74.

[2]개역개정 마가복음 10:45.

그 와중에 김희송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강력하고 힘있는 리더십으로 교회를 이끌어서 어떻게 보면 장로와의 갈등에서 목회자가 승리했지만, 성도들과의 마찰을 이겨내지 못했다. 무엇보다 장로와 성도들간의 갈등을 치유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과 갈등이 더욱 심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모든 원인은 장로의 독단과 편견이 수 십 년간 교회를 지배하면서 결국에는 장로 자신도 성도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신이 힘써 섬기고 봉사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3] 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회의 역할 그리고 성도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장로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목회자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장로의 섬김이 올바르고 영적으로 건전하고 건강하다면 그 교회를 성장을 할 수 있고, 반대로 목회자가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장로가 반기를 들고 섬기지 못하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교회는 성장할 수 없다.[4]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 협력하는 목회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목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

Ⅱ. 시행전략(Strategy Statement)

1. 목적(Goal)

비 기독교인인 바라보는 교회의 본질이 잘 못되어 있다. 교회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본질이 잘못 되어 있기 때문이다. 목회자로

---

[3]정장복, *예배학 개론*(서울: 종로서적, 1987), 14.

[4]전병욱, *파워 그리스천*(서울: 규장출판사, 1997), 191.

서의 군림보다는 섬김과 종의 모습으로 돌아와 한다.[5] 교인들은 항존직에 대한 적대 감정과 불만이 변화되어 존경과 경외감을 가지고 합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항존직은 직분을 남용하거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목회자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정확하고도 확실하게 그리고 소신 있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목양하는 교인들이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6]

21세기 교회의 핵심 이슈는 교회의 성장이 아닌 교회의 건강이다. 새들백 교회를 담임하는 릭 워렌(Rick Warren)의 말처럼 건강한 교회들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로 분주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자연스럽게 성장하며, 건강한 교회는 이웃과 사회에 건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교회의 건강의 도는 모이는 숫자를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교회의 모습을 평가 할 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매주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는가? 제적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교회인가?"물론 그것은 중요한 질문들이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런 질문 속에는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가치관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데 보다 건강하고 올바른 질문을 던진다면 그것은 이 교회의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목회자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있는가? 주님의 자녀들로 세상에 비춰지고 맛을 내고 있는가?[7] 라고 물어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와 목회가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하고 있다. 각 교단이 내놓는 여러 통계들을 토대로 한국교회가 정

---

[5] Miller Randolph C, 고용수, 박봉수 공역, *기독교 종교 교육과 신학*(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22.

[6] 김용복, 기독교사상 "*공동체 운동과 커뮤니케이션*" 통권 제365호(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9), 78.

[7] Boman, Thorleif, 허혁 역, *히브리적 사유와 그리스적 사유의 비교*(왜관: 분도출판사, 1975), 134.

체 내지는 쇠퇴기에 있다는 분석이 오래 전부터 기사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것은 그런 수적인 변화가 아니라 21세기를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8]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내놓은 "한국개신교인의 교회활동 및 신앙의식 조사 보고서"는 갤럽에 의뢰한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종교인 및 타종교인이 보는 한국교회는 긍정적인 이미지 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고[9]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영적 위기에 있음은 분명하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알파 코스와 제자훈련을 통하여 진정으로 섬기는 공동체를 위한 장로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깨닫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서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목표(Objective)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유럽교회 그리고 미국 교회의 모습을 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근심 어린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것은 교회의 외형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재적으로는 병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럽교회의 몰락과 미국 교회가 쇠퇴하는 모습을 보면 한국 교회의 미래를 보는 것 같은

[8]김상복, *목회자의 리더십*(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7), 203.

[9]Bloesh, D. G, 김현진 역, *세계의 예수 공동체*(서울: 무실출판사, 1991), 234.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교회의 참된 주인의 자리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즉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를 하나의 기업으로 여기고,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투자(교육, 헌신,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정한 살아 있는 복음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냄새 인본주의(人本主義)가 팽배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 인격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교회가 신본주의(新本主義)가 형성되며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만들기 위하여 나의 본성을 버리는 훈련과 참된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교회가 빛 되고 소금 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겠다.[10]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목회자의 섬김이 있어야 한다. 심김은 물론 단기간에 이 모든 것을 이루기는 불가능하다. 충분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 교회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끊임없는 담임목회자의 자기분석과 변화와 갱신이 요구된다. 가장 먼저는 담임목회자의 자기 점검이다. 목사라고 좋은 점만 있으라는 법은 없다. 그러기에 목사는 자기의 하나 하나를 점검하고 고쳐가야 한다. 자기 수정이 없는 한 진정한 발전은 없다.[11] 섬기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알파 코스를 통하여 목사가 장로를 섬기고, 장로가 성도들을 섬기는 성도들은 새 가족을 섬기는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될 것이다. 목회자의 자기 점검이 있은 후에는 장로의 삶의 형편들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턱대고 섬기려 한다면 오히려 많은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장로의 인격이나 생활의 형편에 따라 섬김이 필요하다. 만일 목회자가 장로로 무턱대고 섬기게 될 때에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목회자가 장로에게 아부 한

[10]Wilson A. Tozer, *세상과 충돌하라*, 이용복 역(서울: 규장, 2005), 57.

[11]오윤표, *심방의 원리와 실제*(서울: 그리심 도서출판, 1994), 41.

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목회자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자훈련을 통한 목사, 장로, 평신도들이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제자훈련 중에서 특히 매주 실시 되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도표를 이용하여 늘 자신을 성찰하고 영적인 부분을 돌아봄으로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바뀌는 놀라운 효과를 기대한다.

성도들에게 목회자가 장로와의 협력이 얼마 중요한 것인가를 미리 알려 주고 진정한 섬김의 의미를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장로를 성도들도 함께 목회자와 섬김이므로 성도들과 장로와의 갈등구조가 해소 되고, 건강한 교회, 건강한 믿음생활을 하는데 목표가 있다.

III. 연구 조사 질문

1. 성서적 질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하나는 섬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수께서도 직접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간디는 “봉사를 위해 보낸 삶이 오직 열매 맺는 삶이다.”그리고 스위스의 신학자

Karl Barth “섬김의 삶은 자기의 목적이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피와 의도와 지시에 따라서 행동할 때의 의지(Will)와 수고(Working)와 행동(Doing)이라”고 정의 했다.[12] 뿐만 아니라 섬김은 디아코니아(diakonia)라고 하는데, ‘시중드는 일, 섬기는 일’을 의미한다. 이 말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자신을 바치는 것, 헌신,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생활’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바치는 것, 헌신하는 것, 자신을 포기하는 것까지 투자의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투자한 만큼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시에는 불만과 원망을 발산하므로 공동체가 분열하기까지 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의 기득권 자들이 생각하는 섬김은 더 이상 예수님의 섬김이 아닌 바리새인, 율법사들, 서기관들의 섬김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면 장로이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권위를 누리기를 원하고, 그 결과 자신의 견해나 의견이 존경과 권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는 분열과 불신이 상호적(목사와 장로, 장로와 교인)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13]
섬김이라는 근본 원인을 잘 못된 해석에서 비롯된 나머지 하인이 주인에게 시중드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의례적으로 섬김을 받으려는 의지가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용 솟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선거철에 보면 후보자들은 당선이라는 목표 아래 이 사회를 이끌어갈 진정한 종은 자신이라고 말한다. 자신만이 참된 종이요. 국민을 섬길 수 있다고 자신있게 외친다. 하지만 섬김 또는 종의 개념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은 당선이 됨과 동

[12]김장환, *큐티365*(서울: 나침반출판사, 2010), 123.

[13]명성훈, *창조적 리더십*(서울: 서울말씀사, 1997), 297.

신에 국민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14]

교회 안에서도 이런 현상이 카피(copy)되고 있다는 것이다. 마치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에게 먼저 약수를 청하고 먼저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던 사람이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는 상대방이 먼저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기를 기다리는 거만한 정치인들처럼 교회의 직분자(목사, 장로)들도 그런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모습이 우리 주변에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15] 잘못된 종의 개념 내지는 섬김의 개념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며 또한 바뀐 생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역할이 필요하겠다. 섬김은? 어는 특정한 부분까지만 섬겨주는 것이 아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확신하고도 강력한 어조로 말씀하셨다.[16] 진정으로 섬김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긴다는 사실을 깨닫고 철저하게 훈련을 통하여 삶에 습관화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장로가 섬김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섬김을 통한 교회의 부흥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되어짐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 20:28] 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섬김이란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만큼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섬김의 자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도 섬김의 모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끝없는 훈련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씀을 중심으로 섬김의 삶의 모습을 일주에 한 두 번 아니면 반복적으로 수행하도록 과제물로 선정해 주고 그 다음에 자연이 몸에

---

[14]Bloesh, D. G, *세계의 예수 공동체*, 김현진 역(서울: 무실출판사, 1991), 234.

[15]Carroll, Jackson W. *권위 있는 목회자*, 오성춘 역(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214.

[16]Hocking, David L, *기독교 리더십의 7가지 원리*, 김원주 역(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123.

익숙해지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17] 무엇보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영적 훈련을 지속으로 해야 한다.

1)장로의 기원과 성육신

장로 직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 신약성경에는 그 근원에 대해서 언급한 곳이 없다. 장로들의 존재와 장립 된 사실에 관해서 기록된 최초의 참고사항은 행 11:29,30에 나온다. 장로 직은 오순절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의 예배를 위한 성회에서 유대 회당 제도를 모방하여 시작한 듯하다. 회당에서 차기 지도자가 될 권위 있는 장로는 탁월한 위치에 있었다. 동시에 기독교 단체의 연장자들은 자연스럽게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고 나중에 장로 직에 선출되거나 지명을 받게 되었다. 팔레스타인 밖의 이방 교회에서 우리는 감독 직과 집사 직에 관한 것을 보게 된다. 2세기초에 감독 직은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때까지 신약에서 감독들은 장로들이라고 불렀고 장로들은 감독들이라 불렀다. 즉 신분은 하나였다.[18]

바울은 그의 빌립보 서신(1:1)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라고 말했고, 딤전 3:1-13에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논하면서 장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만약 장로 직이 감독 직과 다른 것이라고 하면 장로 직을 빼놓을 리가 없다. 특히 딤전 5:17은 장로 직과 감독 직이 같다는 것을 보여준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라 하였고, 장로 직과 감독 직의 일치성은 딛1:15-9에서 더욱 명백해진다. 즉 "내가 너를 그레데(Crete)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

[17]Annibale Bugnini, *The Reform of the Liturgy 1948-1975*(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1990), 41.

[18]최영철, *초대교회사*(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187.

책망할 것이 없고.....” 그러므로 각 교회의 장로들과 감독들은 이방 교회의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집사들의 보필을 받으려 동등한 자격을 봉사하였다.[19] 장로란 말이 구약에서 1백회 이상 나온다. 그 중 5경에서는 46회가 나온다. 이들의 어의들을 크게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גָּדוֹל(가돌) ‘손위, 형’(elder) 다음은 זָקֵן(자켄) 나이든 장로, 장자, 수염 있는 자켄이 구약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그 밖에 지방 의회 일원, 사절 등으로도 사용되었다.[20] 신약에서는 장로(πρεσβυτερος)라는 말이 60회 이상 나오는데 그 어의를 종합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 = 손위, 조상 둘째, 공직에 있는 자들 셋째, 영광 받을 자들을 말한다. 장로(長老)란? : Elders, Presbyter [히] [形] @qez:(zacen), !yniqez] (z qenim), pl. [그] [名]presbutevrion (presbuterion), [形] presbuvtero"(presbuteros) [영] Elders, Presbyter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신분 있는 정치 참여 지도자에 대한 술어이고, 교회에 있어서는 가르치고 다스리는 직책의 직분 명. 구약성서에 있어서 보통[장로]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זָקֵן(zaqan) 즉 [턱수염]을 뜻하는 말에서 유래했고, 턱수염을 길게 기른 사람, 즉 연장자를 말한다. 이스라엘의 옛 역사에 있어서는, 성읍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장로]로 불렸다(출 3:16,19:7,24:1). 이러한 장로는 이스라엘 민족 이외의 민족들 사이에도 있었다(창 50:7,민 22:7).[21] 신16:18 등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성읍들에, 지파를 따라[재판장]과 [유사]가 세워졌는데, 그 성읍의 장로들 중에서 세워진 것으로 여겨진다. 가나안 정주 후 이스라엘 민족이 차츰 민족으로서 통일되고, 국가의 형태를 갖추어감에 따라, 성읍의 장로들이, 가족이나 종족을 대신하여 행정기구에 참여했다(신 19:12,21:3,22:18). 거기서 주요 거주지인 성읍의 [장로들](수 9:11,삿 8:14,삼상

---

[19]유상섭, *분석사도행전*(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2), 234.

[20]손병호, *장로교회사의 역사*(서울: 그리인, 1993), 154.

[21]김지찬, *구약개론*(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 1998), 198.

11:3,16:4,왕상 21:8,신 19:12,21:3,19)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22]

왕조의 제정과 중앙집권의 경향에 의해[장로]의 권력은 쇠퇴해지기에 이르렀는데, 그러나 왕들은 언제나 [장로들]의 의견을 고려치 않을 수 없었다(삼상 30:26,삼하 3:17,5:3,왕상12:4,20:7-9, 왕하 10:6,23:1). 장로들은 왕의 고문이기도 했다(왕상 20:7-9). 솔로몬은 성읍들에 관장을 두어, 징세 및 행정에 임하게 했는데(왕상 4:7-19), 성읍의 장로들은 계속 종래의 특권을 보유하고 있었다(삼상 11:3,16:4,왕상 8:1,21:8-14).포로로 유대인의 상당수가 멀리 바벨론에 옮겨진 때, 그들은 거기서 회당을 세우고, 회당을 중심한 유대인 무리 중에서 [장로]를 세웠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들은 유대인 부락의 대표자임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회당에 대해 커다란 책임을 가지는 임원 같은 이였을 것으로 생각된다.[23] 회당에 있어서의 장로의 존재는, 후에 그리스도교회가 생겨난 때,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 교회의 장로가 생겨난 계보(系譜)로 된 것으로도 여겨지고 있다. 포로 귀환 후, 바사는 유대인에게 어느 정도의 가치를 허락하고, 지도자들은 [장로]로서 지방자치의 권력을 가졌고(스10:8,14), 그들은 주로 올바른 행정의 책임을 가졌다.(스 5:9-,6:7-,이것과 유딧 6:11-, 8:9, 10:6, I마카 12:6,35 비교). 마카비 시대에는 [장로 gerousiva(gerousia)]는 산헤드린(→) 의회의 의원을 가리키는 명칭이었다. 이것은 모세에 의해 세워진 70인 장로의 고사에 기초한 제도였다(민 11:16-). 120인(행 1:15비교). 또는 그것 이상의 공동체에서는 7인의 장로를 선출했다. 이들은 [성읍의 7인](seven of a city)으로 불려졌다. 행 6장에 보여져 있는 공궤를 일삼는 자로서 임명된 7인은 이러한 장로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신약성서에 있어서 [장로]는 보통 헬라어 프레스뷔테로스(presbyteros)로 말해져 있는데, 그것

---

[22]노재관, *신약배경*(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235.

[23]이성구, *장로정치 제도의 구약적 조명*(개혁신학과 교회 제15호), 2002.

은 단지 [옛 사람](마 15:2,막 7:3,5,히 11:2), 혹은 [연장의 사람](눅 15:25[맏아들], 행 2:17[늙은이], 딤전 5:1,벧전 5:5[장로])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으나, 다른 곳에서는 모두 구약에 있어서의 זָקֵן(zaqan)과 대체로 비슷한 의미로 씌어졌다. 또한 70인 역에 있어서도, 구약외전에 있어서도, 또한 요세푸스에 있어서도, 프레스뷔테로스(presbyteros)가, 구약의 זָקֵן(zaqan)의 그리스어 역으로 씌어진 예가 많다.

신약에 있어서, 유대인의 [장로들]이라는 경우(마 16:21,21:23,26:3,57,27:1,12, 28:12 등), 그것은 보통 70인으로 말해지는, 유대인의 정치 및 종교에 관한 최고기관인 [율법하가자] 및 [제사장들]과 함께 구성된 사람들을 말함이다. 이 [장로[24]들]은 서기관, 제사장과 함께 기록되고, 예수께(마 16:21,27:1), 또는 사도들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다(행 6:12). 성육신의 진리는 신앙 전 체계의 모든 교리에 본질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선지, 제사, 왕으로써 중보적 행위마다에, 그의 비하의 신분의 전 역사에, 그의 승귀의 신분의 매 방면에 무엇보다도 복음의 중심인 대리적 제사의 의의와 가치에 이 진리가 밀접히 포함되어 있다. 만일 그리스도가 동일 품위에 신성과 인성을 겸유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죽기 불능 하거나, 그의 죽음이 효력을 발휘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만일 그가 사람이 아니시면 그의 전 역사는 신화요 만일 그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를 예배하는 것은 우상숭배일 것이다.[25] 그러나 그를 예배하지 않는 것은 성부에게 불순종이다.(요5:23)

---

[24] 신약에 있어서, 다른 하나의 [장로]인데, 이것도 둘로 구별된다. 첫 번째는, 사도들과 아울러, 예루살렘 교회회의 장로로서 존경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다(행11:30, 15:2). 두 번째는, 각 교회마다의 장로이다. 바울은 교회마다 장로를 임명했다(행14:23). 그들은, 한 지방 교회의 감독으로서(딛1:5), 신자의 영적 생활의 지도를 하고, 회중을 가르쳤다(딤전3:1-5,딛1, 약5:14,벧전 5:1-4). 한 지방의 교회에는 몇 명의 감독(빌1:1), 또는 장로(11:30)가 있었다. 그들은 정규의 목사이고, 교사이며, 안수 받아 임직된 사람들이다.(딤전4:14) 이 초대 교회는 장로는, 가르치는 일과 다스리는 일을 했다(딤전5:17-, Calvin은 이곳을 두 종류의 장로로 해석하고 있다). 계시록에는 24장로가 보여 지는데, 이것은 구약의 12지파의 선조, 신약의 12사도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계 7:13,4:4,10,5:5,6,8,14, 11:16, 19:4).

[25] 정흥호, *복음주의적 상황화*(서울: 한국고로스연구원, 1996), 139.

(1) 인성을 입으신 분은 삼위 일체 신이 아니라 제 2 위 신이었다. 그 같은 이유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표현보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표현이 더 바람직하다. 동시에 삼위 각자가 성육신 때에 능동적으로 일하셨음을 명심해야 한다(마 1:20,눅 1:35,요1:14,행 2:30, 롬 8:3,갈 4:4 ,빌 2:7).이것은 또한 성육신이 단순히 로고스에게 발생한 사건이라기보다 그가 능동적으로 이루신 업적이었음을 의미한다.

(2) 로고스의 성육신은 말함에 있어서 이 역사적 사실이 그의 활발한 참여가 치중될 뿐 아니라 또한 그의 선재가 추상된다. 선재의 존재 없는 자의 성육신을 말하기는 불가능하다. 선재하시던 신적 로고스가 인성을 취하시어 그 자신의 살과 피를 가지심은 우리 상문에서 이미 개진되었다. 그 논의 중에 그리스도의 선재에 관한 논의는 상문에서 이미 개진되었다. 그 논의 중에 그리스도의 선재를 가르치는 성구들이 많이 인용되었던 것이다. 그 중의 주요한 것들의 장 절 수를 다시 수록하면 요 1:1,6:38, 고후 8:9, 빌2:6,7 등이다.[26]

(3) 성육신은 하나님이 능히 또는 현실적으로 피조물과 관계를 가지시는 이요. 초자연 신론자들의 성육신이 아니 시라는 것을 예상한다. 이 교리는 무한자가 능히 또는 실제로 유한적 관계를 가지신다는 것, 초자연이 어떤 방식으로 역사적 사변에 들어온다는 것을 함의한다. 그러므로 성육신의 주체는 유한적 관계와 역사적 사변에 참여하시는 무한초자연신의 영원성자시다.[27]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하여 성경은 신구약을 통하여 매우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우연한 사건이나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이 사건은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28]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

---

[26]http://www.oikozoe.or.kr/bbs/read.cgi?board=doc&nnew=2&y_number=22/02.24.2013.

[27]김용복, 78.

[28]Wilson A. Tozer, *Whatever Happen to Worship?*(Camp Hill, PA: Christian Publications, 1985), 26.

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29]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30] 신약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언한다.[31]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32]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기독론은 교의학의 출발점은 아니나 그 중심인 것은 의심 없다.

그리고 기독론 중에도 성육신의 교리는 기초적이니 이것이 없으면 기독론의 전 구조에 큰 변동이 있을 것이다. 그보다도 교의학이 처음부터 끝까지 판이한 형상을 가지고 진행 할 것이다.[33] 스콜라 신학시대 이래로 성육신을 구속 개념 속에 포함시킬지 아니면 이미 창조 개념 안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할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

---

[29]개역개정 예레미야23:5.

[30]개역개정 미가5:2.

[31]Ilion Jones, *복음적 예배의 이해*, 정장복 역(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8), 109.

[32]개역개정 요한복음1:14.
[33]윤두력, *게니스테토레스*(서울: 기독교문사, 1980), 45.

어왔다. 통속적 표현으로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타락이 없었음에도 육체로 오실 것인가의 문제였다. 루페르트 폰 도이츠(Rupert von Deutz)는 주께서 죄와는 무관하게 성육신 하셨다고 명료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한 첫 인물이었다. 그의 견해에 Hales(헤일스)의 Alexander(알렉산더)와 Duns Scotus(둔스 스코투스)가 동조했지만 Thomas Aquinas(토마스 아퀴나스)는 성육신의 이유는 죄가 세상에 들어온 데에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종교 개혁자들은 이 견해를 지지했으며 개신교는 인간의 원죄로 인해 성육신이 불가피해졌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Osiander(오시안더), Lotte(로테), Dorner(도르너), Lange(랑게), Van Auster J(반 오스터 제이), Martensen(마르텐센), Ebrardo(에브라르드), Westcott(웨스트코트) 등의 몇몇 루터파와 개혁파 신학자들은 정반대의 견해를 주장했다.[34]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다음과 같다. 성육신 같이 엄청난 사실은 우연적일 수 없으며 사람의 우발적이고 단독적인 행위의 결과인 범죄가 그 원인이 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초적 계획 속에 포함되었음이 분명하다. 타락 전 종교와 타락 후 종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날 수 없다. 만일 중보자가 현재 필요하다면 타락 전에도 또한 필요했음이 분명하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사역은 속죄와 구원 사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중보자인 동시에 머리 되신다. 그는 창조의 처음이자 마침이다.[35]

그러나 성경이 변함없이 성육신을 인간의 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눅19:10, 요3:16, 갈4:4, 요일3:8, 빌2:5~11과 같은 구절들의 설득력은 쉽사리 무너지지 않는다. 종종 주장되는 성육신이 본유적으로 하나님께

[34]Richard Lawrence O & Hoeltke Clyde, *창조적인 교회 지도자*, 황을호 역(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221.

[35]김현진, *공동체 운동의 교회사적 조명*(서울: 총신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4), 111.

합당하고 필요하다는 사상은,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내적 자기 계시라는 범신론적 관념에 떨어지기 쉽다. 본 견해에 부담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신적 계획과 관련된 문제점은 이를 영원의 관점 하에서 고찰한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의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는 태초부터 죄와 성육신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결국 성육신은 구원의 전 사역과 마찬가지로, 죄로 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일어 난 것이다.[36] 그리스도께서 우주적 의의를 가지신다는 사실은 부정할 필요가 없지만 이 역사 엡1:10, 20~23, 골1:14~20에 기록된 그의 구속적 의의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2) 쉐마 공동체를 위한 장로

쉐마는 히브리어로 ‘들으라’는 뜻이다. 쉐마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하나님의 관한 교육 내용이다. 신 6: 4에서는 다시금 쉐마와 함께 가장 집약된 표현으로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적 표현을 서술하였다.[37] 동시에 그의 계명을 항상 가슴 속에 간직하며 눈 앞에 새길 것을 요구하는 명령과 결부 되어져 있다(신 6: 6-9). 계속되는 훈계는 무엇보다도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 것을 경고한다(신 6: 10-19). 끝으로 짤막한 구속사적 신조(Credo)는 계속되는 세대의 연속을 위하여 인용되었다(신 6: 20-25). 4절의 청취 호소의 부름(=Schema 들어라 이스라엘아)은 먼저 지혜문학적 맥락에서 흔히 사용 되어 질 수 있다. 가장이 가족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시작할 때, 청취 호소의 부름을 통해 시작할 수 있다20). 그러나 여기에서는 민족을 청취자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족장이 자신의 가족에게 말할 때의 상황과는 구분된다. 민족

---

[36]노재권, *신약배경*(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134.

[37]윤두력, *게니스태토레스*(서울: 가독 교문사, 1980), 55.

을 청취자로 설정하여, 청취 호소의 부름이 사용된 경우는 예언 선포에서 비로소 볼 수 있다. 물론 청취자가 개인인 경우도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예언선포에 나오는 청취 호소의 부름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을 전달할 때 사용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신명기의 용례와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신명기의 청취 호소의 부름은 지혜문학과 예언선포의 전통이 합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38]

4절의 해석에 대해 이제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보여 왔다22). 야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은 계약양식의 한 부분이다23). "야훼는 한 분이시다"24)는 유일신앙에 대한 고백이다.[39]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야훼라는 표현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전통적 신앙고백의 반복이다. 오직 야훼에 대한 헌신의 요구는 결코 종교사적ㆍ철학적 사유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오직 "시대적 요구"로 이해할 때만이 설명 될 수 있다. 외부의 적과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족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주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야훼이시지, 다른 어떤 신도 아니다.[40] 계속하여 하나님은 "한" 분임을 주장한다.

외형적으로는 앞의 문장(야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진다. 왜냐하면 전 문장은 일신론(Monolatrie)을 주장하나 후 문장은 유일신(Monotheismus)을 주장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문장도 일신론의 관점에서 해석 되어져야 한다. 즉, 전 문장과 동일한 역사적 삶의 자리에서 나왔다. 전 문장이 민족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후 문장은 민족공동체의 연대의식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 분 하나님 야훼를 믿는 이스라엘은 하나된 신

---

[38]김현진, *공동체 운동의 교회사적 조명*(서울: 총신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4), 111.

[39]Ibid., 113.

[40]Dietrich Bonhoeffer, *신도의 공동생활*, 문익환 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7), 23.

앙공동체이다. 한 예배처소, 한 하나님, 하나 된 민족 공동체의 고백이다. 이와 같은 고백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민족공동체 내에 어떠한 특권층도 없어야 하며, 소외계층도 없어야 한다.[41]

야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고백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한 민족, 공동체에 대한 정치적 목표가 확립된다. 따라서 5절의 헌신에 대한 요구는 필연적인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요구는 이스라엘에게 이미 주어진 계약관계에 근거하며, 야훼는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분이라는 고백에 근거한다. 이스라엘의 사랑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적으로 들음"에서 나온다(amor ex auditu). "마음과 생명과 모든 것을 다한 사랑"은 절대적으로 신실한 관계, 감사와 신뢰를 포함한 완전한 헌신을 의미한다. 신약성서에서도 계명과 사랑의 연관성을 나타낸다.(요 14: 15-24; 15: 10; 요일 5: 3)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구약성서에서는 신명기에서 처음이며, 또 매우 빈번하게 요구되었다.[42] 말씀을 항상 가슴 속에 간직하며, 일상생활에서 훈계로 만들어 자녀들을 교육할 것을 명령한다. 사람들이 신앙을 배우는 공간은 가정이다. 부모들은 교사로서 이스라엘의 생활규범을 스스로 통달해야 한다. 그것을 돌 판에 새기듯 가슴에 새겨야 한다. 즉, 암기해야 한다. 교육방식은 가르치는 자가 말씀을 전하고, 배우는 자가 따라 한다. 이러한 어린 세대는 그들의 부모와 함께 신앙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회화한다.[43]

야훼와의 결합은 말씀을 학습함은 물론 외적 증거를 통해 나타내어야 한다. 손이나 이마에 붙이거나, 문설주에 붙여야 한다(신11: 13-21; 출13: 1-10, 11-16). 이러한 요구는 후대 유대교의 경건에서 실현 되어졌다. 신약에서도 경문곽을 언급한다(마23:

---

[41]Richard Sibbes, *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의 회복*, 전용호 역(서울: 지평서원 출판사, 2009), 234.

[42]Richard, Lawrence O. & Hoeltke, Clyde. *창조적인 교회 지도자*, 황을호 역(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221.

[43]김현진, *공동체 운동의 교회사적 조명*(서울: 총신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4), 111.

5). 신6:4-9은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 기도에서 반복하는 구절이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첫 단어를 따서 "쉐마"라 부른다. 예수는 신 6:4절을 으뜸계명으로 받아들였다(마12:28-30).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과 함께 이웃 사랑의 계명을 결합하였다(마12:31). 동시에 구약을 인용하였다(레19: 18).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겨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을 축제의 공동체로 이해한다. 이 점에 관해 이스라엘은 구약성서 중 신명기에서 처음으로 철저히 성찰했다. 이스라엘은 예배와 축제는 교육의 장으로 민족 통합을 이루며, 예배와 축제를 통하여 역사 교육이 이루어지며, 구속사의 현재화를 이룬다.[44] 예배의 중앙 통일화의 규정은 예배의 장소의 중심을 설정함으로써 민족공동체의 단일성과 통합을 이루고자 했으며, 자신의 민족적 자아의식을 강화시켜 주었다.[45] 예배의 참석자가 확대되었다는 점도 신명기의 예배개혁의 한 요소에 해당된다. 민족전체가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 이것은 이전 축제 칼렌다에서 볼 수 있는 참석자들의 범주에 비해 엄청나게 확대된 것이다. 예배와 축제는 사회적 지평을 갖고 있다. 민족적 축제나 민족전체가 참여하는 예배에서 사회적 계층간의 차별이 철폐된다. 모든 신분과 계층은 한 예배장소에서 하나가 되며, 따라서 민족전체가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실현된다.[46]

따라서 장로의 칭호가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역할을 하던 사람들에게만 부여되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 말은 원래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다. 성경 전체를 볼 때 연장자는 당연히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으며(레19:32, 딤전5:1), 나이가 많아진다는 것은 곧 지혜를 얻게 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잠4:1) 따라서 자연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족속의 우두머리

---

[44]Ilion Jones, *복음적 예배의 이해,* 정장복 역(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8), 109.

[45]김현진, *공동체 운동의 교회사적 조명*(서울: 총신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4), 251.

[46]윤두력, 65.

인 장로들이었던 것이다. 모세가 담당하고 있었던, 백성을 다스리는 행정적인 일의 부담을 나누기 위해 70명의 장로들이 선출된 적이 있다.(민 11:16이하). 그들은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을 받아 보관할 수 있었고 백성들에게 그 율법책을 낭독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장로들은 각 도시에서 재판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ex. 수20:4) 출18장과 신 1장에 나타난 바대로 재판관들은 단순히 나이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지닌 지혜와 신실함과 청렴 결백에 따라 선출되었다. 장로들의 모임은 왕정이 시작된 이후에도 그 권세를 유지하였는데, 그 예로서 장로들은 다윗 왕의 대관식을 승인하기도 했다.[47](삼하5:3)

3)초대교회의 공동체(성령)를 위한 장로

사도행전의 시작은 성령의 임하심으로 시작된다. 주님의 약속대로 아버지의 약속한 보혜사께서 임하심으로 사도들과 제자들이 능력을 받게 되었고, 성령에 이끌리어 복음에 합당한 사역과 삶을 살게 한 것이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역을 간추려보면,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각 사람 위에 충만하게 임하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게 되었고(행2:4, 2:6-12), 베드로가 이스라엘 관헌들과 맞서서 담대하게 예수를 메시아로 선포하도록 권능을 주셨으며(행2:14-21; 4:8),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앉은뱅이를 일으켰으며(행3:6-7), 교회의 순결을 지키게 하고 초대교회 안에 들어 온 누룩을 제거하도록 하여(행5:1-11)순결과 하나님 경외감을 고취시켰으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핍박을 물리치게 하였고(행6:10), 빌립은 사마리아로 이끌어 전도하게 하였으며(행8:5), 성령이 빌립더러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가 믿고 죄 씻음 받은 증표

[47]오덕교, *장로교회사*(서울: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0.

로 세례를 받게 하였으며(행8:35-37),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성령이 충만해지고 사울의 눈을 뜨게 하셨고(행9:17-19), 하나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꺾었으므로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들이 편안하고 든든히 서서 주를 경외함이 더함으로 성령의 위로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되게 하였다.[48] 또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부르시고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을 파송하신 분도 성령이셨고(행13:2-4),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 공회에서 유대주의 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들의 의식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음을 확증케 하였으며 (행15:22-29), 성령이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와 비루시아로 가는 것을 금하시고 그들을 마케도냐로 이끄신 것(행16:6-10) 유럽의 복음전도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복음이 유럽으로 먼저 가도록 섭리하신 것은 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깊은 섭리였다.[49] 성령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면서도 심령이 매임을 받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바른 진리를 증거케 하였고(행20:22-23) 성령이 감독자 삼으시고 하나님이 피로사신 교회의 양떼를 먹이시게 하였다.

성령은 사도들과 초대신자들을 통해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다(행21:13; 3:1; 6:8; 8:6-13; 9:3; 20:9-11). 이러한 표적과 지사는 사도들과 초대신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고, 마귀를 정복하게도 하시며,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게도 하시며, 반대자의 말문을 막게도 하시며, 회개하여 심령이 살아나게도 하시며 이러한 기적들의 결과로 많은 신자들이 교회로 불러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으로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믿는 자를 더하게 하였다.[50] 사도행전 전체를 통하여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

---

[48]곽선희, *교회의 권세(상,하)*(서울: 계몽출판사, 1995), 29.

[49]유상섭, *분석사도행전 I, II*(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5), 134.
[50]신성종, *신약역사*(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88), 34.

력과 성령의 인도로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될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다.[51]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은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하신 장본인이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남을 위해 공궤(행6:2)하며, 선행과 구제(행10:4), 부조(행11:29)에 열심이고 고아와 과부를 중히 여겼다. 사도행전 4장에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랄 나눠 줄 뿐 아니라 제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로 없었고,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다.(사도행전4:4-5; 4:32-5). 구제에도 열심이었다. 사도행전 1:4에 보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사도행전 11:28-30에 보면 천하 풍년이 들자 제자들이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예수님께서 고아와 과부의 구제에 대해서 특히 강조하신 말씀을 삶 속에서 행함으로 살아갔던 것이다.[52] 예루살렘에서 처음 시작된 교회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에 의해 지도 받는 사도들의 인도로 다스려졌다. 그러므로 교회가 시작될 때 정치도 함께 시작되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장로들, 집사들, 감독들도 없었고, 구역, 교구, 제직회, 노회, 총회도 없었다. 정치구조와 행정 조직은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발전하였다. 이것에 대한 좋은 예는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된 대로 헬라파 과부들을 돌보아야 할 필요에 따라 집사를 택하여 세운 일이다. 이들은 교회가 특별히 필요함에 따라 사도들의 의견과 명령에 의해 교회가 선출되었다.

---

[51]손두환, *기독교회사*(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1996), 77.

[52]곽선희, 173.

2. 신학적 질문(Theological Component)

우리 개신교에는 전통적으로 신앙과 실천이 분리되는 경향이 있었다. 16세기 종교개혁운동이 신앙을 강조하고 업보적 구원론을 극복하려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개신교의 전통에서 실천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53]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신학적 명제는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명제와 항상 대립되게 이해되었다. 또한 의료사업과 교육사업과 자선 사업 등 사회봉사사업은 복음선포 즉 선교의 수단으로서 여겨져서 이차적인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이 두 가지 전통이 한국교회에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섬김과 나눔은 기껏해야 신앙의 열매 정도로 이해 되고 구원의 핵심에는 속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는 종교개혁운동의 후예로서 업보(業報)적 구원관의 문제를 잘 알고 있지만 실천을 신앙과 실천을 분리한다든지 선교와 봉사를 구별한다든지 실천을 약화시키는 신앙관을 가진다든지 하는 신학을 받아들일 수 없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하다. "강도 만난 자"를 일으켜 세우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신앙의 핵심이요 전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섬기고 이웃과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은 분리될 수 없다.[54]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섬기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과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을 분리하여 신앙의 역사적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웃을 사랑하는 역사적 활력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공허한 것이 되거나 잘못된 것이

---

[53]Richard Lawrence O & Hoeltke Clyde, 221.

[54]Harry R. Boer, *A Short History of the Early Church*(Grand Rapids: Wm. B. 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6), 143.

되고 만다. 이것이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뜻이다.[55] 우리는 한국교회가 사회봉사와 같은 실천력이 약하다는 것이 신학적 기반형성에 있어서 이웃사랑과 하나님사랑을 분리하고 신앙과 실천을 분리하며 사회봉사를 선교에 부속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문제점을 않고 있다.[56] 이웃사랑 즉 신앙의 사회적 역사적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학적 기반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교회나 세계교회에서는 섬김과 나눔이 신앙의 주변적 행위가 아니라 중심적 부분이라는 인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점차 확산되고 있음은 퍽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도 그 신학적 기반이 취약하고 실천적 지혜가 미흡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57] 하나님나라의 상속자, 메시아통치에의 참여하는 의로운 자는 이웃을 섬기고 이웃과 나누는 자라는 발상이다. 예수의 가르침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주린 자, 목마른 자, 헐 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는 것이다(마태 25장 31절-46절). 여기서 섬김을 받는 자 즉 주인은 "지극히 작은 자"라는 사실이다. 예수가 주님으로 섬김을 받듯이 "지극히 작은 자"가 섬김을 받는 것이다. 여기서 주님 예수와 지극히 작은 자가 섬김을 받는 다는 점에서 일치된다. 이 이야기의 중심은 섬기는 자 즉 의로운 자가 아니다. 섬김을 받는 자이다.[58]

지금까지의 섬김과 나눔은 단순히 섬김과 나눔의 행위를 하는 자 즉 신앙인이나 교회가 중심이었다. 섬김과 나눔을 받는 자는 이차적이고 섬김과 나눔의 대상(Object)으

---

[55]최윤배,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의 길3*(서울: 성안당, 2008), 4.

[56]S. S. 현, *우리나라*(남원: 춘향 출판사, 2010), 50.

[57]김현진, 111.

[58]Kottje Raymund & Moeller Bernard, 115.

로서 전락되었다. 예를 들면 전통적인 자선 사업은 자선의 주체가 칭송되었고, 자선 사업의 대상은 주역이 될 수 없음은 물론 자선의 행위의 객체가 되어 심지어는 없인 여김을 당하는 경우도 허다하였다. 자선은 항상 일방적으로 주는 장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자선의 대상자는 주는 자의 결정에 따라야만 하였다. 이 상황은 개인적인 자선행위에서도 교회적인 자선사업에서도 자선사업의 기관에서도 그리고 교회의 자선이나 봉사사업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경험들이다. "지극히 작은 자"가 섬김과 나눔이라는 관계에서 주역이나 對役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59] 이러한 상황은 서양교회와 제3세계 피 선교지역의 교회 사이에 있어왔던 관계이기도 하다. 구호사업이나 교회지원 사업이나 개발 원조사업에서도 주는 교회와 받는 교회 사이에 주객이 전도된 주는 교회위주의 관계가 지속되어 왔던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서방교회들은 서방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하였는데 서구위주의 경제 질서와 이론과 실천을 강요하고 피 원조자들의 주체적 살림살이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은 모든 선교협력에서도 같은 현상으로 나타났다.[60]

섬김과 나눔의 진정한 실현은 섬김을 받고 나눔을 받는 자 죽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떠한 역할을 하며 어떠한 주역으로 등장하며 섬김과 나눔의 행위자와 어떠한 신실한 관계를 가지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자의 일방적인 자선행위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 성경에서 섬김과 나눔은 "하나님의 종"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주인으로 섬겼다. 그럼으로 하나님의 종은 주인이 이중적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종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은 마태복음 25장에서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 즉 애굽의 히브리 노예들이었고 이스라엘공

---

[59]Dietrich Bonhoeffer, 23.

[60]Richard Lawrence O & Hoeltke Clyde, 221.

동체의 가난한자와 약한 자들이었으며 제국과 왕국에 의하여 억압된 자 들이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김과 동시에 그들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였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그가 야훼하나님을 믿고 주님으로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즉 노예를 해방시키는 법을 실천해야 노예를 "자유한 주인"으로 삼는 것이었다. (출애굽기 21장 1절 23장 33절).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이중적 계약관계 속에서 새로운 의미의 왕이 되었다. 새로운 왕이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이다. 왕에게 종이라는 칭호를 주는 것은 이색적이다. 왜냐하면 이방의 왕이나 제국의 황제는 그들이 절대로 종이 될 수 없고 스스로 神이요 主였다. 다윗이 종이라 함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을 섬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백성 가나한자와 약한 자를 위하여 정의를 집행하는 從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이중적 계약이었던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핵심을 실천하는 것이었다.[61]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의 종"이라는 메시아적 역할을 부여한다. 이사야 53장에도 재현되는 "고난의 종"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의 빛을 선포하여 모든 "지극히 작은 자들"을 메시아 통치의 주역으로 삼는 다.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난한자와 약한 자와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여 하나님의 통치의 주역으로 일으켜 세우고 주인으로 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제사직을 맡은 "하나님의 종"도 하나님의 주되심이 이루어 지고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신앙적 관계의 회복을 이루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종은 이러한 제사직을 통하여 종속의 우상숭배(노예화하는 다른 주인을 섬김)로 파열된 주체와 자아를 회복하

[61]김영규, *기독교교육학*(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5), 78.

고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아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는 37장 상반에서 이러한 비전을 잘 제시하여 주고 있다.[62]

예수님도 자기의 메시아적 역할을 "종"으로 규명하고 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35절에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하셨고, 10장 43절 - 45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게 하리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 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고난의 종과 자기를 일치시키고 있음이 분명하다.[63] 초대교회의 신앙고백도 예수님의 종이 되심의 의의를 명확히 표현하여 주고 있다. 초대교회는 빌립보서 2장 6절 - 8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제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라고 고백하여 예수의 하나님의 고난의 종 됨을 명시하고 있다. 예수의 수육(Incarnation)의 모습은 종의 형체이다.[64] "뭇사람을 섬기는 종" 즉 "뭇사람을 위하여 대심 짐을 지는 종"이 메시아상이다. 이것이 섬김의 도이다. 섬김의 도는 상대방을 영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노예 된 상태에서 일으켜 세워 주인으로 삼고 주인이 되게 하는 관계를 설정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여김에 섬김의 도의 핵심이 있다. 이 섬김의 도는 모든 것을 나누어 주는 일과 분리할 수 없다. 종은 주인의 모든 짐을

---

[62]Oden Thomas C, *목회신학* , 오성춘 역(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7), 50.

[63]Collins Gary R, *파워 리더*, 최혜자 역(서울: 프리셉트, 2001), 103.

[64]Hugh Martin, *그리스도의 임재*(서울: 지평서원 출판사, 2010), 288.

진다. 모든 것을 주인을 위하여 바친다. 목숨까지도 바친다. 나눔(Koinonia)이란 모든 소유도 물질도 나누고 목숨도 나누고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사랑이 없다'고 가르치신다. 나눔이란 물질적 소유도 나누고, 삶과 경험도 나누고, 喜怒哀樂(희노애락)도 나누며 생명까지도 나눔을 의미한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고난의 종의 도에서 이루 어 진다는 것이다. 코이노니아(KOINONIA)는 종의 도를 수평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나누는 자와 나눔을 받는 자 사이에 상호적인 주종의 관계를 이룬다. 양자가 주인이요 동시에 양자가 종이 되는 것이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말씀은 코이노니아(KOINONIA)의 극치를 이룬다.[65]

그러므로 섬김과 나눔은 자기중심적인 발상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섬김과 나눔은 철저히 상대방이 주역이요 주인이라는 인식아래에서만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섬김과 나눔의 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러한 인간관계 질서와 사회질서 그리고 사회질서는 힘이 있는 자기 군림하면서 지배하고 남의 가진 자가 없는 자의 것을 빼앗는 질서를 뒤집어 놓는 것일 뿐 아니라 기존의 권위적인 자선의 질서 즉 섬기는 자가 중심이 되고 나누어 주는 자가 위주가 되어 있다.[66] 섬김과 나눔은 통전적 차원에서 이루어 진다. 재물을 가진 자는 재물로, 전치적인 역할을 부여 받은 사람은 정치적 영향력으로, 지식을 가진 자는 지식으로, 경험과 지혜를 가진 자는 경험과 지혜로, 능력과 기술을 가진 자는 능력과 기술로, 농민과 노동자는 생산 활동으로, 종교인은 종교적 진리로 이웃을 섬겨 일으켜 세워 주인이 되게 하고 이러한 섬김은 공동체 안밖에서 상호적으로 이루어지며 이것이 곧 나눔이 된다.[67]

---

[65]D. Martyn Lloyd-Jones, *믿음의 시련*(서울: 지평서원 출판사, 2009), 336.
[66]Richard Sibbes, 264.

[67]Bilezikian Gilbert, *공동체*(서울: 두란노서원, 1997), 145.

가난한 자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가난과 억압의 고통에서 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현실의 불의에 대하여 명확한 체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중산층의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 보다 불의에 대하여 추상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럼으로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게 현실의 불의에 대한 느낌과 경험을 전하여 주고 교회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들의 경험을 받아야 진정한 섬김과 나눔이 이루질 수 있다. 누가 줄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섬김과 나눔이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는 그리고 나누어 주는 자와 나눔을 받는 자 사이에는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交信)이 이루어져야 하고 상호대등하고 충실한 연대적 교신(COMMUNICATION OF SOLIDARITY)이 이루어 져야 진정한 섬김과 나눔이 있을 수 있다.[68]

삶과 공동체에서 섬김과 나눔이 이루어 진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신앙의 핵심이다. 이것은 기독교신앙을 토대로 하지 않는 다면 이러한 논리를 명확하게 얻기 어려울 것이다. 생명을 내 놓고 섬기며 생명을 나누는 차원은 심오한 경지이다. 이러한 심오한 경지는 고통을 대신 지고 나누는 일상적인 차원에서부터 시작하여 상황에 대한 분석인식을 공유하고 나누며 미래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공유하고 나누며 서로 섬기고 나누면서 "공동의 순례"를 이루는 것이 섬김과 나눔의 도이다. 교회는 이러한 섬김과 나눔의 실체이어야 하며 인간사회에 이러한 나눔과 섬김의 실체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누룩이나 씨앗 같은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69]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

[68]문석호, *21세기 한국교회와 공동체 운동*(서울: 줄과 추, 1998), 222.
[69]노영상, *미래교회와 미래시학*(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9), 20.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 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70] 하는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대변할 수 있다.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성전에 있음을 기뻐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가족 같은 삶을 신앙 안에서 공유하고, 지향했던 것이다. 한편 개인주의가 극대화되고, 자신의 삶을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현대인들에게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초대교회에서 가족적인 신앙생활의 형태를 찾아보기란 참으로 어렵다 말할 수 있겠다.[71]

교회성장 학자인 Peter Wagner(피터 와그너)는 그의 책 '교회성장 원리'에서 휘티어 에리어 뱁티스트 펠로우쉽의 Daniel Borman(다니엘 보만) 목사의 "밀접한 관심을 나누는 조직체"의 사업에 대해 이렇게 언급한다. "이 사업의 목적은 교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의 다른 지체들에 관심을 가지게 하므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사랑과 개인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뜻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데 있다"[72] 교회는 성도들간 서로의 삶을 나누고 공유할 때, 강력한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된다. 이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어 진다면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의 존재감을 잃게 되어지고 결국, 교회에 남아있을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1) 해방신학으로 본 한국교회의 실태

해방신학이란? 해방신학은 "신앙의 특별한 실천에 토대를 둔 새로운 유형의 신

---

[70]개역개정 성경, 사도행전2:44~47.

[71]손병호, *장로교회의 역사*(서울: 그리인, 1993), 88.

[72]C. Peter Wagner. *교회성장원리*, 권달천 역(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6), 168.

학이다. 그것은 다른 신학들과 공통적인 주제와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취급방식, 성경과 전통을 보는 기준, 그 과제와 목적 및 의도가 독특하다. 해방신학은 가난한 자를 위한 신앙의 실천이다. 또한 가난한 자를 만드는 구조와 제도에 대한 비판이다. 그러한 해방신학은 가난으로부터의 해방, 억압자로부터 피 억압자의 해방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또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라틴 아메리카 제국의 경제 및 정치적인 종속으로부터의 해방도 의미한다. 해방신학이 일어나게 된 요인은 첫째, 라틴 아메리카의 특별한 역사적 정황이 그것이다. 라틴아메리카는 경제 및 사회적으로는 급속한 현대화 과정에서 일어난 극심한 사회적 혼란, 높은 인플레이션, 노동자의 대량 실업사태와 막대한 외채, 전체 인구의 5%가 전체 재산의 8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인 불평등과 불균형, 전체 인구의 2/3가 거의 굶어 죽어가는 절대 빈곤과 부정이 교차되는 지역이다. 역사 및 정치적으로는 식민지 통치가 15세기말 Christopher Columbus(크리스토퍼 콜럼부스)의 바하마 군도 발견과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라틴아메리카 정복으로 시작하여 19세 초에 이르기까지 300년 이상 전개되었다. 이러한 식민적 지배는 19세초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들의 독립 이후에도 끝나지 않았다. 경제 개발 계획, 외채 등으로 인해서 영국과 미국과 같은 선진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예속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즉, 이것이 신식민지주의 이다.[73]

한편 로마 카톨릭 교회는 라틴아메리카 전 인구의 절대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종교가 되었다. 교회와 국가는 서로 밀착되어서 스페인의 라틴 정복과 카톨릭 교회의 복음화가 동일시되었다. 그 결과 교회는 라틴아메리카에 광대한 토지 자본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이들은 근대화를 배척하여 보수적인 정치세력과 긴밀한 관계

[73]Giddens Anthony, *현대사회학,* 김미숙 외 6인 역(서울: 을유문화사, 1993), 215.

를 유지했다.[74] 1968년 콜럼비아 Medllin(메데인)에서 열린 제2차 라틴 아메리카 주교회의를 계기로 카톨릭 교회의 입장에 변화가 일어났다. 라틴아메리카에 만연된 착취와 탄압과 인간 소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된 것이다. 여기서 나온 메데인 문서는 해방신학의 토대가 되었다. 여기서 해방신학이 태동이 된 것이다.

두 번째 다른 요인으로는 정치신학의 영향을 지적할 수 있다. 해방신학은 서구신학을 비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현대신학에 크게 힘입었다. 특히 메츠와 몰트만의 정치 신학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메츠는 정치적 상황을 신학의 영역에 수용하는 정치 신학의 방법론을 제시한 독일의 카톨릭 신자이다. 그는 기독교 신앙의 개인화를 거부하고 신학을 탈 개인화하며 복음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정치 신학의 과제로 간주했다. 그리고 Jürgen Moltmann(몰트만)은 희망의 신학을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은 현재를 절대화하지 않고 인간에게 개방해 주는 희망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상을 라틴아메리카의 현재 정치, 사회적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려는 해방 신학에 큰 자극이 되었다. 메츠와 몰트만 같은 정치신학자들의 저서들이 사유화, 억압, 이데올로기, 해방과 같은 새로운 신학 용어들을 시사했으며 이들을 해방신학자들이 이용하게 되었다.[75]

세 번째 요인은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이다. 마르크스주의는 사회 분석의 이론적 도구와 역사 철학으로서 해방 신학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것은 사회 분석의 도구로써 변증법적 분석을 제시했다. 사회를 이분법적으로 부르주아와 프로레타리아, 억압자와 피억압자, 자본가와 노동자로 분석했다. 역사 철학으로서는 인간의 문제를 사회적 또는 역사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그리고 역사를 변화와 변혁에 개방된 것으

---

[74]Kuhne Gary W, *개인적 새신자 양육의 원동력,* 정학봉 역(서울: 요단출판사, 1995), 198.

[75]목창균, *현대 신학 논쟁*(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5), 38.

로 간주했다. 해방신학은 현실 분석을 통해 가난의 구조적 원인을 발견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과 마르크스주의적 개념으로부터 도입했다. 해방 신학이 정통 실천을 신학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이나 이분법적으로 사회를 분석하는 것, 계급투쟁이나 폭력에 의한 혁명을 인정하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이었다.[76]

해방신학이 미친 영향과 결과 실천과 이론, 행동과 사고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말하는 praxis(프락시스)로서의 신학은 올바른 사고(정통교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사고(정통실천)의 상호혼합을 추구하는데, 이 praxis에서 출발한 신학이 바로 해방신학이다. 해방신학자들은 민중들의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 신학을 규정 짓는다. 즉 신학의 목적을 세계를 이해하는 데 두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변혁하는 데 두는 것이다. 이런 성격을 지닌 해방신학은 교회로 하여금 사회 문제에 관심을 촉구하면서 무의미한 교리 논쟁을 일삼는 종래의 신학을 공격하여 인간의 실제 문제에 접근을 시도한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들은 전통적 신학의 문제, 즉 현실적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이 미흡한 것을 지적한다.[77]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해방신학은 기존의 신학과 현저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전통적인 신학이 성서와 교회의 교리에서 시작하는 것과 달리 해방신학은 상황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차이이다. 따라서 해방신학은 현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학, 즉 사회과학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 다음으로 해방신학은 신학적 진리가 연구만을 통해서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변혁시키려는 노력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직접 개입함으로써 습득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전통적인 신학과 차이를 보인다(그래서 남미의 해방신학자 중에는 총을 들고 민중봉

[76]김의환, *현대신학해설*(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89), 124.

[77]목창균, 285.

기에 참여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끝으로, 전통적인 신학과 달리 해방신학자들은 하나님 말씀의 추상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개념적 숙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방법, 즉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추구하려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신 구체적인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78]

어떤 신학도 절대적일 수는 없다. 또한 기독교의 진리는 불변하지만 그 진리를 실천하는 방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신학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유럽의 신학적 방법과 내용이 그대로 아시아에 적용될 수도 없고, 또 아시아의 신학이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곧 바로 통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만큼 세계는 다양한 문화와 체제, 사상을 배경으로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해방신학 자체가 하나의 완전하고 절대적인 신학일 수도 없다. 해방신학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신학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발굴해내서 진지하게 비판과 검증을 거쳐야 하며 다른 신학자들과의 폭넓은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79] 하지만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신학은 기존의 어떤 다른 신학보다도 하나님에게 성실하게 접근해 보려는 신학, 다시 말해 억압받는 자들을 인간답게 살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는 신학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남미의 해방신학이 앞으로 남미 이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신학적 사고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지수로 남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해방신학이 이미 세계 교회의 태도를 변혁시켰고 각기 다른 상황에 있는 교회의 praxis를 근원적으로 부각시켰다는

---

[78]김의환, 239.

[79]Giddens Anthony, 83.

점이다. 바로 이런 점이 해방신학의 가장 큰 공헌이라 말할 수 있겠다.[80]

한국에서 해방신학은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일반사회에서도 과열된 논쟁거리로 부각되어왔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상황이 라틴 아메리카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치적 측면에서는 군사력이 비합법적 수단으로 정치에 개입함으로써 많은 문제를 야기 시켰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경제적 자립도의 저하로 인한 경제적 종속문제와 소득의 불공정한 분배, 또 사회적 측면에서는 자율성이 허용되지 않아 민주주의적 사회 통합이 어려웠던 사실이 있었고, 문화적 측면에서조차 고유의 문화적 주체성을 상실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탈피하고자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 이후 해방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몇몇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민중신학이 태동되었다. 따라서 해방신학에 대한 비판은 신학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 한국에서의 해방운동과 그 과정에서 태동된 민중신학을 비판하기 위한 작업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81]

지금까지 한국에서 이루어진 해방신학 논쟁은 크게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의 논쟁과 신학적 측면에서의 논쟁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해방신학이 기독교 신학이 아닌 이데올로기이며, 그것은 마르크스 이데올로기를 절대화하는 것으로 결국엔 공산주의적 국가를 자초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한다. 이에 대하여 해방신학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사람이나 집단도 이데올로기를 피할 수 없다면 복음이 작동되는 과정이 초 이데올로기적으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박한다. 또 후자의 경우는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그 출발점과 자료로 삼아야 하는데 해방신학은 여기에 반기를 든 것”이라고 전제하고, 때문에 해방신학의 구원관은 잘못된 것이며 악에 대해서도 잘못된 개념을 갖게 되었다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해

---

[80]Seamnds David A, *상한 감정의 치유*(서울: 두란노, 2009), 164.

[81]Richard Sibbes, 264.

방신학자들은 자신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정통교리 대신 정통 실천이 신학의 표준이 되며 복음과 역사적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신학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이처럼 한국에서의 해방신학은 여느 신학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즉 신학으로서의 정당성이 충분히 논의되기 이전에 일방적으로 비판을 받았던 것이다.[82]

이런 해방신학에 대한 논쟁은 한국 민중신학의 정당성 문제에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민중신학은 해방신학의 논쟁에서 주요한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해방신학과 같은 구조라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민중신학은 한국의 민중적 삶 속에서 재창조된 신학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해방신학의 비판이 민중신학의 비판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해방신학의 반론은 민중신학의 정당성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해방신학이 그랬던 것처럼 민중신학도 일면에서는 사회경제사적 연구방법을 도입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데올로기로서의 해방신학에 대한 비판의 반론을 통해 신앙의 이데올로기 배제가 신앙의 상대적 실현마저도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이데올로기에 불과 하다는 주장은 민중신학의 정당성에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해방신학이 라틴 아메리카의 억압적 상황 하에서 해방운동에 참여하는 프락시스를 통해 2차적 단계로 태동된 것처럼 한국의 민중신학도 한국 그리스도인의 민중적 삶의 체험 속에서 특유하게 창조된 신학 운동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해방신학의 비판에 대한 반론에서 프락시스를 중시하는 해방신학에 정당성이 주어졌듯이, 민중의 삶에서 태동된 민중신학도 그러한 프락시스를 통해 정당성

[82]Smart. J. D, *교회의 교육적 사명,* 장윤철 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74.

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83] 민중신학의 문제와 함께 대두된 여성신학의 문제도 간과 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측면에서 민중신학과 여성신학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겠다. 이에 대한 여성신학자들의 입장은 크게 둘로 나눠어 지는데, 하나는 민중신학과 여성신학의 연대 관계에 대해 비판적이며 오히려 민중신학이 여성신학에게서 배워야 함을 강조하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신학과 민중신학이 서로 배울 수 있음을 역설하면서 상호간의 교류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중신학과 여성신학에서 말하는 억눌리고 소외 당하는 민중과 여성의 존재는 민중신학과 여성신학이 동반자적으로, 그러나 비판적으로 가야 함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84] 또한 이 두 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소외와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이루어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함께 해야 할 과제가 있으며, 서로 배울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다.

2)교회의 소통적 장로기능

교회의 기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교회가 존재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현대 교회론에서 적용되고 있는 성서적 상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을 이끌고 먹이며 길을 잃은 양들을 찾아 집으로 데려온다.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찾으신 우리 안에 모은 양들인 것이다.(겔 34:12)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를 내주었고,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며 기르시고 돌보셨다.(엡5:22-29) 계시록 환상에서도 요한은 교회를 어린 양의 신부로 묘사한다. (계19:7) 신부 이미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거가 되는 어머니 교회로서 발전되었고 칼빈은 이를 "어머니 교회가 우리를 출생시키고 양

---

[83]Stanley J. Grenz, Roger Olson. *20세기 신학.* 신재구 역(서울: IVP, 1997), 82.

[84]Nunez Emilio, *해방신학평가.* 나용화 역(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7), 275.

육하지 않는다면, 육체를 벗고 마침내 천사와 같이 되기까지 보살핌 아래 품지 않는다면, 생명에 들어갈 길이 없다"고 표현했다.[85]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이고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이다.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맺게 될 가지인 것이다.(요15:5) 예수는 건물이 그 위에 지어질 수 있는 모퉁이 돌을 자신에 비유하였고 바울은 자기 스스로 교회의 터를 놓았다고 했다.(고전3:10) 그러므로 예수와 더불어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터를 놓은 것으로 이해되어진다.(엡2:20) 즉,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성정이 되어가는 것이다.(엡2:22) 그리스도와 교회는 머리와 몸의 관계이며 그리스도인들은 협력하는 몸의 지체들로서 관계를 가진다.[86] 우리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고전12:13)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그와 연합한 자가 되었는데 같은 죽음과 부활로서의 연합이다.

3)희망 공동체와 팀 사역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이 성화요, 완전인 것이다. 동시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삶의 길을 본받고 닮아서, 그와 같이 순결하고 축복되고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으로서, 그 목표는 완전한 사랑으로 해명되었다. 하나님의 최상의 계명인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완전한 사랑의 성취가 바로 그것이다. 믿음, 소망, 사랑, 현명, 인내, 절제, 정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것이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헌신에 있다. 교회가 몇 명의 카리스마를 지닌 소수에 의해 움직여진다면, 그 교회는 전체적으로 성숙될 수 없다. 그러

---

[85]Richard Sibbes, 132.

[86]Ibid., 211.

므로 중요한 것은 공동체 안의 다양한 은사들을 발견하는 일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기를 원했던 변화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다.[87]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한 노력 가운데 우선적인 것 중 하나가 돈의 사용이다. 교회가 교회의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헌금을 받고, 교인들에게 십일조나 다른 헌금을 요구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88]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변하지 않지만, 시대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비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구조가 변해야 한다. 우리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서, 때로는 종교적인 전통에 대한 충성심을 뛰어넘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리더십이다. 진정한 지도자는 조직과 공동체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고, 봉사와 헌신이라는 실천 양식으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한다. 팀 사역에 있어서 리더십은 문제의 원인을 외부가 아니니 자기 자신에게서 찾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와 헌신으로 섬기는 리더자라는 점에서 기존의 다른 리더십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리더는 자신을 servant 또는 supporter로 인식한다. 리더는 조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원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한다. 늘 학습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리고 먼저 경청한다. 설득과 대화로 업무를 추진한다. 그리고 community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팀 사역에 있어서 리더가 갖추어야 할 10가지 요소로 경청, 공감, 치유, 인식, 설득력, 비전, 예지력, 청지기 의식, 성장지원, 공동체 구축을 들고 있다. 그리고 리더의 근본적인 두 가지 특징은‘사랑’과‘겸손’이다.

---

[87]Smart. J. D. *교회의 교육적 사명,* 장윤철 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345.

[88]김의환, 142.

3. 사회학적 질문(Sociological Component)

세상에는 주인과 머슴과 종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땅에서 태어나 제일 높은 사람은 왕(王)일 것이다. 하지만 그 임금보다 머리 하나 더 있는 게 주인(主)이다.[89] 그럼 종은 누구인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고 많이 팔아서 나도 부자가 되고 회사도 부자로 만들까'하는 창의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종이라고 말한다.[90] 그런데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증거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는 장로들의 권력으로 말미암아 초신자 들이나 평신도들이 제대로 활동을 보지 못하고, 짓눌러 살아가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조직세계를 앞세우려고 한다.[91] 애석하게 보면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천주교는 월등한 성장을 했지만 개신교는 감소하고 있다. 무엇이 국민들의 마음을 개신교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을까? 개신교의 성장이 뒤로 갈 수 밖에 없도록 한 한국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며? 평신도의 대표인 장로들이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92]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히는 사역을 멈출 수 없는 것인데 한국 교회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둠에서 고통 당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친 백성 하나 하나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고 계신지는 모두가 마음 속 깊은 곳에 크게 새겨야 할 것이다.

한국 사회는 가부장적인 규범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런 전통과 규범이 교회

---

[89]대천덕. *우리와 하나님*(강원 삼척: 도서출판 예수원, 1989), 212.

[90]조용모, *백만 번의 프러포즈*(서울: 다산북스, 2005), 214.

[91]D. Martyn Lloyd-Jones, *로마서강해 2권,* 서문강역(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2), 341.

[92]Henri J. M. Nouwen, *상처입은 치유자,* 최원준 역(서울: 두란노, 1999), 114.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장로는 말 그대로 연장자이다. 이런 연장자라는 뜻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연장자로서 권위의식에 사로 잡혀 있다는 것이다. 우리 성천교회에서 장로는 말 그대로 연장자로서의 군림을 수 십 년간 해 왔다. 그래서 연장자가 계획하고 뜻하는 바는 그 누구도 반기를 든다든지 저항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물론 장로로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한 세월들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수고와 헌신을 사람들에게로부터 보상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평신도들이 장로로써의 대접을 해주 못하면 그것이 결국에는 시험이 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그렇다고 교인들이 장로에 대해서 서운하게 하지도 않는다. 단지 장로 자신의 견해와 뜻에 맞지 않는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득하고 타인과의 상호 작용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일상적 커뮤니케이션 행동이다.[93] 자신의 형편이나 환경 등을 쉽게 남에게 표출하지 않는 문화적 배경을 한국인들은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가 자신의 삶에 지나친 관심을 가져주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쉽게 마음을 주지 않으면서 관심을 주지 않으면 돌아서는 정서를 한국인들에게 볼 수 있다. 주변 사람과 어긋나는 의견을 표명하지 않으려 하고, 타인의 생각에 신경을 쓰는 경향이 높으며, 자신의 생각을 우회적으로 나타내는 경향이 많다.[94] 이러한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 목회자가 관심을 가져주면 지나친 관심이라고 여기며 거절하는 경우가 있고, 목회자가 거리를 두고 행동한다고 느끼면 외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소외감을 느낀다.

Erich Fromm(에릭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에서 새로운 사회의 기능이 자기

[93]박기순, *인간, 매체, 커뮤니케이션*(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0), 13.

[94] 박종삼. *"한국인의 사회행동에서 나타나는 체면-기분-눈치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이해의 가능성"* (숭전대학생 지도연구, 1985), 12.

것으로 만들고 세계를 지배하며, 그래서 결국 자기 소유물의 노예가 되는, 그런 소유에의 욕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에 대한 믿음과 관계에의 욕구, 관심, 사랑, 주변세계와의 연대감을 바탕으로 한 안정감, 자아 체험, 자신감 등의 성격구조를 가진 인간을 촉진시킨다고 말한 바 있다.[95] 관계의 욕구, 관심과 사랑을 받고자 하는 몸부림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존재한다. 비움을 채우기 위한 욕망적 존재가 인간이기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담임 목회자를 향한 끊임없는 요구를 제시하는 것이다.

지난 역사 속에서 유럽 미국 정통 교회들의 쇠퇴와 몰락을 우리는 보아왔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유럽 미국 교회들이 크게 부흥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한국교회 일 세기는 기독교 역사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성령 운동의 경험 속에 교회들이 부흥했고 세계가 집중하는 초대형 교회들이 탄생했다. 한국 교회 발전 과정에 충돌과 분열의 아픔이 있었지만 그런대로 지금까지는 정통 개혁교회의 본질과 질서를 유지하며 헌신적인 열정으로 잘 발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 한국 교회의 여러 교파, 수많은 교단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정통 장로교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한국 장로교는 정통 장로교 본질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 한국 교회 지도자 목사, 장로들이 무엇을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가?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 아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96] 잘못 아는 편견이 굳어져 충돌과 갈등이 도를 더해가며 심각한 상태로 되어가고 있다.

저질 정치문화 속에서 장로교의 교리, 정치, 행정, 치리, 역사 예배, 예식 등

---

[95]Erich Fromm, *소유냐 존재냐,* 차경아 역(서울: 까치글방, 1996), 231.

[96]최윤배, 4.

을 말씀 중심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며 바로 알기 위하여 방법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교회를 섬기는 장로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자훈련을 통하여 습득하고 교회 안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비로소 교회가 이 시대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하나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셨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 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97] 한 사람을 향한 갈망, 이것이 병들어 신음하는 이 사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다.

1)신앙공동체 구성원들의 다원적 기능

민주주주의적 리더십은 의사소통이 개방되어 있고 하위자에게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그들이 조직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결정의 재량권을 부여한다. 이는 교회에 딱 맞는 리더십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의 조직구성은 담임 목사님 아래로 순장들이 있는데 각 순장마다 이들의 자율성은 최대로 보장되며 그래서인지 각 순장의 개성이나 성격 등이 나름대로 구분된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순장 아래에 있는 각 팀의 간사들 역시 팀의 원활한 운영과 부흥을 위해서 각자의 재량이 충분히 발휘된다. 팀원들의 의견도 무리 없이 팀에 반영되어 움직여지고 있다. 교회 구성원 즉 청년들의 성격들도 "사랑"이라는 말씀에 입각해서 모인 구성원들이라 다들 각자의 의견이

[97]개역개정, 누가복음15:4-7.

나 생각 등을 존중하며 제각기 맡은 바 책임을 적절한 능력을 가지고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이 잘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선교를 나가고 있는데 한 번에 몇 백 명씩 대규모로 움직이다 보니 이들의 관리 및 통제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하지만 교회의 담임목사 및 부목사님 등이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들이 하는 일은 단지 장소 배정문제만 결정지을 뿐 선교지에서의 모든 프로그램 및 계획은 철저하게 개개의 팀의 자율적인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각각의 팀마다 간사들의 역량에 따라 운영이 되는 것이다. 팀원들도 제각기 맡은 역할을 수행한다. 심지어 양로원 방문 시 노인들을 위해 마사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팀원까지 정해져 있다. 그렇다고 담임목사님이 순장이나 간사들에 대해 일체의 간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전체모임 이나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때에는 담임목사님 즉 리더가 결정을 내리며 책임도 아울러 지고 있다.[98]

그리고 우리교회는 여타 교회와 마찬가지로 조직 임무의 성격이 민주적이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 질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교회의 임무가 새 신도 창출이다 보니 구성원 개개인이 사랑의 마음이나 부드러움으로 사회의 여러 구성원들에게 접근해야 하며 조직의 리더 즉 담임목사님의 모습도 조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적 모습을 띠지 않고서는 나아갈 수 없다. 어떤 사람이 권위적인 목사님을 보면서 교회에 나오려고 하겠는가? 자유방임적 리더십은 하위자들에 대해 일체의 간여를 하지 않고 모든 의사결정을 전적으로 하위자에게 일임하는 자유방임적인 관리유형이다. 이는 교회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듯하다. 물론 교회가 하위자들에게 많은 권한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자유방임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교회의 구성원들은 매주 그들의 상위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한다. 리더는 간사에게 간사는 순장에게 순장은 담임 목사

[98]이재창 외 5인, *인간을 이해를 위한 심리학*(서울: 문음사, 2004), 56.

님에게 구성원들의 출석 현황, 새로운 구성원 등록현황, 구성원들의 특이사항, 건의사항, 그리고 애로사항 등을 보고한다.[99]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유방임적 리더십에서는 리더의 우유부단함으로 하위자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교회에서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모습이다. 물론 하위자들 간의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런 갈등이 리더의 자유방임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갈등이 조직 간의 유대를 더욱더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교회에서는 있는 것 같다.

이상으로 교회의 다원적 기능인 리더십 유형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담임목사님의 비전 제시의 입장에서는 다소 권위적인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밖에 전체적인 조직구성원간의 모습들은 완전히 민주주의적 리더십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목사님의 인품과 관련된 부분들이 사회구성원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도 교회라는 조직이 갖는 조직의 목표, 조직 임무의 성격 혹은 구성원의 성격 등이 담임 목사님으로 하여금 민주주의적 리더십으로 이끌게 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한다.

2) 가족 구성원들간의 문화적 갈등

가족 간의 갈등이란? 가족성원간의 불화·대립을 말한다. 부부는 각기 상이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성격과 가치관이 다르다. 애정으로 이러한 간격을 메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지만 양 가족의 외적 압력이나 내적 압력 등의 복잡한 환경의 변화 등으로 가족갈등을 가지게 된다. 또 민주적인 가족에서는 가족 원이 자기주장을 하게 됨으로 부부싸움과 감정 대립을 가져오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기의 욕구를 집단성원의 승인 하에 만족시킬 수가 있지만 한편 문제해결기능(problem solving

---

[99]임성빈. *문화선교의 이론과 실제*(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3), 154.

function)이 없는 가정에서의 불화·대립은 잠재적 갈등으로 변하기 쉽다.[100] 가족관계를 심리적·규범적으로 떠 받쳐주는 가족이념이 변화함에 따라 가족의 중요성이나 의의, 역할 등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는 가족가치관도 변화하고 있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나 자녀에 대한 가치관, 가족부양에 대한 가치관은 가족가치관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이다. 사회변화의 영향으로 결혼·자녀·가족부양에 대한 가치관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101]

한국사회에서는 20세기 후반의 급속한 사회변동으로 인하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족의 변화를 야기하였고 동시에 사회구성원의 가족 개개인의 의식 변화까지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사회의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산과 가족가치관의 약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가족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이익보다는 개인의 자아성취와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보편화되면서 일정한 연령이 되면 반드시 결혼하여야 한다는 보편적 결혼관이 약화되고, 미혼기간이 길어지고 심지어 결혼을 포기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2005)`에 의하면 결혼해도 안 해도 무방하거나 혹은 결혼을 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한 비율이 미혼남성의 경우 25.6%이고, 미혼여성의 경우 48.6%에 달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102] 결혼에 대한 인식은 그 사회의 시대적 배경이나 상황 그리고 개인에 따라 나름대로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결혼형태는 다양성을 지니는데, 결혼관도 가족중심에서 개인중심으로 점차 바뀌어 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생활능력이 있고 불편이 없으면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식의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도

---

[100]Clinebell Howard J, *목회와 지역사회.* 오성춘 역(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47.

[101]Goleman Daniel, *감성의 리더십,* 장석훈 역(서울: 청림출판, 2003), 132.

[102]신성재, *지역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서울: 장신대 신대원 석사학위 논문, 1994), 86.

증가하고 있다. 이는 양성평등 의식과 기존의 가부장제적 가족의식 사이의 지체현상이 커져 미혼의 젊은이들에게 결혼을 통한 가족구성이 더 이상 필수가 아니며, 매력적인 유인도 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3) 언어의 해방적 기능

'언어'라고 하는 존재는 몇 가지 일을 하고 있는가? 이 문제는 지금까지 많은 언어학자들에 의해 궁리 되어 왔었다. 많은 논의가 있었고 여러 가지 학설이 나왔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에 의해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Roman Jakobson 이란 학자가 제시한 여섯 가지의 기능이다.[103] 언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이해하려면 먼저 언어 행위가 이루어질 때에 필요로 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언어의 표정이란 언어 행위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표정이기 때문이다. 이 때 우리는 말하는 사람, 말을 듣는 사람, 쓰인 말, 무엇에 대하여 말하게 되었는가, 어떤 환경에서 말하게 되었는가, 어떤 말을 사용하였는가를 생각하게 된다. 이들 여섯 가지의 요소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없으면 언어 행위는 완전하게 이루어 지지 않는다. 그런데, 미리 주의 해 두어야 할 점은 어떤 말이 쓰여졌다고 했을 때 여섯 가지의 기능 가운데 어느 하나만 독자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발언(發言)의 다양한 특성은 이 여섯 가지의 기능을 무엇을 강조했느냐에 따라 순서를 정하여 자리를 잡는 것이다.

첫째로, 정보적 기능은 관련 상황에 관련되는 기능이다. 대상을 지시한다고 하여 지시적 기능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 기능은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수행된다.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에 대하여 이름을 부여함

[103] Bohnhoeffer Dietrich, 163.

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 인류의 지식이라는 것은 인류가 깨달아 알게 되는 모든 대상에 대하여 이름을 붙이는 작업에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말해도 좋다. 그러므로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는 모두가 사물을 대상화하여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보적 기능은 언어의 중요한 하나의 기능이기는 하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기능은 아니다.[104]

둘째로, 표출적 기능은 말하는 사람에 초점이 맞추어진 기능을 표출적 기능이라고 한다. 즉, 쓰여진 말이 말하는 사람의 태도를 나타내준다. 말은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발음의 높낮이와 길고 짧음을 강조하여 '자앙구한'이라고 '장'을 아무리 길게 발음하여도 '오천 년의 역사'가 육천 년이나 칠천 년으로 더 길게 늘어나지는 않는다. 소월(素月)의 시구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를 낭송할 때에는 누구든지 그 내용에 자기감정이 감염되어 '사뿐히'를 짧고 경쾌하게 발음한다. 이러한 것이 모두 언어의 표출적 기능의 모습들이다.

셋째로, 명령적 기능은 말이란 말을 듣는 상대방이 없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말은 반드시 듣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행동하도록 요구한다. 이와 같이 말을 드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진 기능을 명령적 기능이라고 한다. 명령문은 이 기능을 극대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저녁 늦게 책을 읽다가 혼잣소리로 '목이 컬컬한데……'라고 중얼거렸다고 하자. 이 때에 만일 그 옆에 누군가가 있었다면 반드시 따끈한 차 한 잔을 받쳐 들고 나타날 것이다. '목이 컬컬한데……'라는 한마디 말이 결국 드는 사람에게는 '차 한잔 가져다 주시겠오?'하는 명령적 기능을 한 것이다.[105]

넷째로, 친교적 기능은 말은 반드시 의미를 전달해야 하는 사무적인 목적으로만 쓰이

---

[104]Paul S. Wright, *The Presbyterian*(Westminster: Jonh Knox Press, Louisville, 1992), 11-15.

[105]Braoudakis Paul, *윌로우크릭 지도자 핸드북,* 김양석 역(서울: 두란노서원, 1997), 264.

는 것은 아니다. 말하는 삶과 듣는 사람이 언제고 필요하기만 하다면 의사소통(意思疏通)을 할 수 있다는 전제의 확인과도 같은 언어행위가 있다. 이웃라마들끼리 주고받는 인사말이나, 여행 중에 차 중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람과 나누는 날씨 이야기, 경치 이야기 따위는 말을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간에 말이 전달하는 의미를 그렇게 중요시 하지 않는다. 이 때에는 다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는 사실만을 귀중하게 여긴다. 이러한 언어적 기능은 말을 주고 받는 사람들끼리의 환경을 열어놓고 있는 셈이다.

다섯째, 관어적 기능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말을 통하여 새로운 말을 배운다. 이때에 말은 말에 대하여 말한다. 즉, A계열에 속하는 언어가 B계열에 속하는 언어에 대하여 설명한다. '춘부장(春府丈)은 남의 아버지를 가리킨다.' 는 말에서 '춘부장'은 한자어고 '남의 아버지'는 고유어 이다. 이처럼 언어가 언어끼리 관계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관어적 기능이라고 부른다.[106]

여섯째, 미학적 기능은 끝으로 우리는 메시지 자체에 초점을 맞추려는 언어의 표정에 대하여 생각할 차례가 되었다. 화자에 의하여 쓰여진 말은 그 말하는 사람의 의식적. 무의식적 노력에 의해서 되도록 듣기 좋은 짜임새를 가지려 한다. 가령 '순이와 바둑이'라고 말하는 경우와 '바둑이와 순이'라고 말하는 경우에서 어느 것이 우리 귀에 부드럽게 들리는가를 생각해보자. 보통 우리는 음절수가 적은 단어부터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을 느낄 것이다. 이와 같이 말에는 그 말 자체 속에 보다 듣기 좋은 표현을 가지려는 본능적인 모습이 감추어져 있다.[107]

이상으로 우리는 언어가 지닌 여섯 가지의 기능을 살펴보았다. 언어의 기능을 바르게

---

[106]김상복, *목회자의 리더십*(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7), 128.

[107]Harry R. Boer, *A Short History of the Early Church*(Grand Rapids: Wm. B. 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6), 165.

이해하는 일을 a아마 국어 공부의 전제 조건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글을 배워 많이 알고자 하는 데에는 남이 하는 말을 바르게 이해하자는 초보적인 목적이 숨겨져 있다.

4. 영성적 질문(Spiritual Component)

장로로서의 직분은 매우 귀중한 것이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로로 부르심을 우리는 한없는 영광으로 받아야 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선 두려움과 떨림, 즉 겸손의 자세로 그 직을 섬겨야 할 것이다.

우리가 특별히 기억하여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장로라는 특별한 직분을 허락하셨지만 결코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계급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목사와 장로만이 교회의 사역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교인을 교회의 일, 즉 교역에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신자들을 향한 것이다.[108] 비록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 등의 직분이 존재하지만 그러한 직체가 모든 교인들의 사역참여와 헌신의 중요성을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확실히 하여야 한다.[109]

이른바 “평신도”와 “교역자”의 구별은 각각이 담당하는 특별한 기능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뿐이다. 여기서 우리는 교역자와 평신도의 관계성에 대하여 개혁신학적 관점에서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110] 첫째 제사장직(priesthood)은 교회

---

[108]롬1:6~7; 갈1:6; 살전2:12; 벧전2:9~10.

[109]최윤배, *교회를 섬기는 길(2)*(서울: 성안당, 2008), 193.

[110]Paul S. Wright, *The Presbyterian*(Westminster/Jonh Knox Press, Louisville, 1992), 11-15.

의 모든 회중에게 해당되는 직책(office)이다. 즉 모든 믿는 이들은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았다. 이제 우리 모두는 어떤 제사장의 중보 없이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스스로 회개하고 또한 용서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믿는 이들은 서로를 향하여 제사장적인 직무로 섬겨야 한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또한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들 위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한다.

둘째로,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반적 부르심과 함께, 특별한 방법으로 교회를 섬기도록 몇몇 개인들을 부르시어 독특한 은사를 허락하시는 부르심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제사장으로서 부름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안수라는 개념과 예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우리는 특별한 직무와 기술들을 가능케 하는 이러한 은사들이 안수를 통하여 교회의 직무를 감당하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짐으로써 그들을 '구별하여' 직분자로 세우게 됨을 인정한다. 장로교 정치의 핵심은 성령께서 부여하시는 특별한 은사의 기능을 인정하고, 동시에 그 기능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함에 있다. 안수를 통한 특별한 은사와 기능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한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특별히 장로교회에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간의 협력과 각자의 고유역할에 대한 이해의 차이로 공동체의 유익과 상반되는 현상이 속출하고 있음은 참으로 가슴 일이다.[111]

우리는 이제 장로교회의 기본신학과 정신에 따라 목사와 장로의 집사의 정체

---

[111]한철하, *21세가 인류의 살길*(서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출판부, 1998), 115.

성과 역할을 분명히 함으로써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확인은 무엇보다도 장로교회에 대한 바른 교회론적 이해와 장로교회의 정치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해야 한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협력자이기 보다는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자신의 역할을 극대화 시키는 잘 못된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데 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합력하여 이루라" 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안에서 공동체의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112] 하나님께서 섬김을 통하여 성도들간에 서로 그리스도인 형제의 사귐은 언제나 빼앗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는 은총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기 쉬우며, 타인을 섬김으로써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역사에 불순종하게 될 때에 교회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로는 개인, 가정, 직업, 정치, 문화 그리고 사회생활 관계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113]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공동의 선을 모색하기 위해서 질서를 존중한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수동적이거나 제도에 얽매여 관료화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이 허락하시는 열정이 필요하다. David McCardie에 따르면 장로교 정치의 배경이 되는 신학적 원리를 다음 네 가지 본질적 요소로 표현한다. '질서'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동등성' 과 '책임소재'그리고 '권징'이 그것들이다.[114] 이것은 우리가 21세기라고 하는 새로운 상황 속에서 교회를 개혁해 나갈 때에도 참고하여야 할 매우 중요한 신학적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장로는 '장로의 개인이 교회를 이룬 다는 것을 버리고, 성령님께서 모든 성도

---

[112]이시영, *대인공포증*(서울: 일조각, 1993), 153-154.

[113]Dietrich Bonhoeffer, 23.

[114]David McCarthy, *장로교 정치체제의 원리*(서울: 성암당, 2008), 201.

들을 통하여 교회를 이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장로 개인의 생각을 고집부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의 공동의 지혜와 연합된 의사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장로의 정신은 근본적인 성경의 원리 즉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케 되기를[115] 갈망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적극적인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장로의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발견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노력은 개인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 가는 것임을 장로의 섬김을 통하여 보여 주어야 한다.

1)전인적인 삶

사전적 의미에서의 전인(全人)이란? 결함이 없는 완벽한 인간 즉, 지적·정서적·신체적·사회적으로 조화롭고 균형 잡힌 전 일체로서의 인간을 말한다. 인간교육은 인본주의 교육이라고도 한다. 전인교육은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소극적인 의미란 이전의 교육관행과 사회를 비판하는 준거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플라톤이 아테네 교육의 교육상황을 비판하여, 체육교육은 신체와 관련되고, 음악교육은 정신과 관련된다는 관점을 거부하고, 이 교육이 모두 전인격적 교육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의 경우 1895년 *고종*이 교육에 관한 조서를 발표하여, 지육(智育), 덕육(德育), 체육(體育)을 모두 중시해야 한다고 하여 조선시대의 경학 중심교육을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적인 의미와 함께 전인교육의 적극적인 의미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면서 새로운 교육철학 및 교육관행을 제시했다. 고대 그리스의 전인교육론은 지식을 중심으로 인간의 의지와 정서가 내적 질서를

[115]빌립보서1:20.

유지하는 정의로운 인간을 기르는 교육으로 이해되었다. 이 전통은 이후 르네상스 인문주의 교육에 영향을 미쳤으나, 점차 단편적인 언어에 대한 지식교육으로 변질되었다. 중세에는 고대의 전인교육관이 신에 대한 경외심을 중심으로 재조직되었다. 근대에는 이것에 반발하여 인간의 본성을 긍정적으로 파악하여 타고난 자연성(自然性)을 계발하는 자연주의 교육철학이 등장하여 전인의 의미가 자연인으로 이해되기도 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전인교육은 각 시대마다 교육을 새롭게 재정립하는 시도를 통하여 형성되어왔다고도 할 수 있다.[116]

현대의 전인교육론은 현대산업사회의 물질만능주의, 규격화된 제도에 따르는 인간소외현상을 비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교육의 강한 영향을 받고 있는 지식 중심의 교육을 반대하면서 나타났다. 학교교육의 목적이 산업발달을 위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치중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인간다운 사회를 창조해갈 수 있는 인간교육에 주목되기 시작했다. C. R. Rogers는 이것을 만능기능인으로 정의하여 자아실현을 전인교육의 중요한 개념으로 제시했다. 또한 교육 심리학자인 A. Maslow는 개인의 재능·능력·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사용하고 계발하는 교육을 주장했고, 그러한 인간의 특성으로 자발성, 수용적 태도, 민주적 인격, 공동체적 감정, 창의성 등 14가지를 제시했다. 이러한 경향은 교육이 인간특성의 전체적인 발달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지(知)·정(情)·의(意)를 전면적으로 계발한다고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구분은 편의적인 것이며, 중요한 것은 교육이 전인격과 관련되어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117] 현대사회의 전인교육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학습자의 능동적·주체적·창의적인 참여를 강조하며, 학교교육만이 아니라 가정교육·사회교육 등의

[116]조종남, *교회 성장과 성령의 은사*(서울: 영산 출판사, 1983), 98.

[117]김종준, *평등공동체 목회전략*(서울: 쿰란출판사, 2000), 69.

조화로운 관계를 중요시한다.

2)심리

심리는 우리 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을 다룬다. 작고 구체적인 문제부터 아주 광범위한 문제까지 심리학자들이 다루는 연구 범위는 무한하다. 심리의 정의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며 시대에 따라서도 계속 변해 왔다 심리학이 철학으로부터 새로운 학문으로 독립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정신 활동의 연구 분야로 간주되어 오다가 그 후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현상만을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그 후 행동의 연구로 바뀌었으며 인간 뿐 아니라 동물의 행동도 함께 연구해야 된다고 보았다. 즉, 심리학은 '인간과 동물의 행동에 대한 과학'이라는 정의가 유행했다.[118] 이후 인지심리학과 현상학적 심리학의 발전으로 심리학의 정의는 행동뿐 아니라 정신 과정의 연구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으로 변화했으며 최근에 와서는 심리학을 인간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기억구조와 정신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심리학을 인간의 행동과 심리 과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 정의한다. 이 정의 속에는 관찰가능이라는 관점과 함께 직접 관찰하수는 없어도 생물학적 자료로 추론할 수 있는 심리과정 등이 주제가 될 수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119] 즉, 심리학은 "인간과 동물의 행동에 관한 과학" 이라는 정의가 유행했었다. 이후 인지심리학, 현상학적 심리학의 발전으로 최근에 와서는 심리학을 "인간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기억구조와 정신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심리학은 첫째, 행동에 관한 과학이다. 둘째, 과학적 연구에 기초한 학문이다. 셋째,

---

[118]대천덕, *우리와 하나님*(서울: 도서출판 예수원, 1989), 231.

[119]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서울: 두란노서원, 1990), 23.

인간 복지 향상의 수단이다

심리학(心理學)이란, 인간의 행동(behavior)과 심리과정(mental processes)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 정의에서 중요한 개념은 인간, 행동, 심리과정, 및 과학이라는 네 가지 요소이다. 인간을 탐구하여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에 대한 의무를 답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생각과 느낌이 아니라 과학적 방법으로 한다. 그래서 심리학을 학문이라 말할 수 있다. 심리학은 무엇인가를 나타내야 하고,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가 밝혀져야 한다. 이런 것에서부터 심리학의 방법론이 나온다. 행동하는 것과 행동하면서 일어나는 심리과정과 연결되는 것이다.[120] '인간과 동물을 함께 연구하는 실험심리학의 시대가 있었으며, 인간만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121]라고 말한 독일의 심리학자 Wundt에 의해 심리학이 시작되었으며, 학문으로 출발했고 미국에서 심리학의 꽃을 피우게 되었다.

3)치유상담

치유란 '온전하게 만든다.'는 뜻으로 달리 말하면 본래의 조건이 와해되었다가 다시 원상회복시켜 줌을 말한다. 여기에서 회복이란 정신적ㆍ육체적ㆍ영적인 면뿐 아니라, 개인적ㆍ사회적인 면까지의 완전성을 의미한다.[122] 치유(healing)는 사람의 삶 속에서는 물론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 치유란 무엇인가? Turner는 치유를 인간의 정신적 자아와 감정적 자아뿐 아니라 육체는 물론 영적인 본질까지도 포함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치유는 인간의 모든 부분이 다

---

[120]Küng, Hans, *교회란 무엇인가,* 이홍근 역(왜관: 분도출판사, 1991), 111.

[121]Miller, D. G, *교회의 본질과 사명,* 박상중 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2), 33.

[122]김종준, 156.

른 부분과 주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완전하게 성공적으로 기능하는 것이라고 본다. 흥미로운 사실은 '건강'이나 '완전' '거룩한' '건강한'과 같은 단어들이 모두 '완전한' 이라는 뜻의 고의인'hel'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이다. '치유한다.'는 '완전하게 만든다.' 또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바람직한 치유 사역은 반드시 성경적인 근거를 토대로 발전되어야 한다. 치유 사역을 하는데 있어서 성경적인 근거는 굉장히 중요하다.[123]

첫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성경적인 근거를 통한 치유사역의 정당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사역자들은 자신을 공격해 오는 많은 상황들에 직면하여서 그것을 담대하게 물리치고 끈기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124]

셋째, 치유사역은 수많은 영감에 의존한다. 따라서 영감의 주관적인 요소들을 고려해 볼 때 인간적인 약점들이 사역을 오염시킬 위험성이 너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경적인 기준들이 없으면 치유 사역자가 사역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저지를 수 있는 많은 오류들을 수정할 길이 없다. 그리고 자칫 목적을 상실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

[123]옥한흠, 76.

[124]Dietrich Bonhoeffer, 88.

Ⅳ. 과제 시행(Project Enforcement)

1. 알파를 통한 섬김

자기 중심적인 사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우리 생각과 결정, 가치, 관계를 장악하고 있다. 우리 세대는 현대사에서 가장 자기중심적인 문화를 지닌 '나'세대로 불린다. 하지만 '나 우선' 사고방식은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이런 사고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으며, 아담과 하와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예수님이 친히 밝혀 드러내신 문제이자, 그분이 직접 직면한 문제였으며, 그분이 날카롭게 공격한 부분이기도 하다. 섬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만 본 교회에서는 알파 훈련을 통하여 예수님과 같은 섬김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한다.

1)알파훈련의 1차 준비

알파 훈련은 6-9개월 전에 계획한다.

(1) 점검표

■ 알파 지역 Advisor와 접촉한다.

■ 알파 컨퍼런스에 참석한다.

■ 만약에 당신이 직접 목회를 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 알파 운영자와 알파코스 리더를 임명한다.

■ 당신의 알파코스를 본부에 등록한다.

■ 장소를 찾는다.

■ 모든 수입과 지출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 주말 수양회와 야유회를 위한 장소를 선택하고 예약한다.

■ 찬양 리더를 임명한다.

■ 교인들의 도움을 받는다.

(2)날짜 정하기

알파훈련1 - 소그룹 인도

알파훈련2 - 목회록 돌봄

알파 게스트 예배

알파 시작 만찬 (첫 번째 코스에만 실시)

1주 예수님은 누구신가?

2주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나?

3주 어떻게 나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가?

4부 왜 그리고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5주 왜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까?

6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알파훈련3 - 중보기도 사역 주말 수양회/ 야유회

7주 어떻게 악에 대항할 수 있는가?

8주 왜 그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가?

9주 하나님은 오늘도 치유하시는가?

10주 교회에 대하여 축하 만찬

알파 지역 Advisor는 알파코스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 대답해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일도 한다.

■ 교회 리더들에게 알파에 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강사를 추천해 준다.

■ 주말 수양회나 야유회를 위한 장소를 추천해 준다.

■ 최초의 알파코스를 시작할 때 거행하는 시작 만찬이나 알파코스를 끝낼 때 거행하는 축하 만찬을 위한 강사를 추천해 준다.

■ 최초의 알파 게스트 예배나 알파 축하 만찬 시에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을 추천해 준다.

■ 주말 수양회나 야유회 때 도와줄 강사들과 중보기도 팀을 추천해 준다.

■ 당신의 알파 팀을 위한 훈련을 실시해 준다.

주저하지 말고 지역 어드바이스와 접촉하라. 그들은 기꺼이 당신을 도와줄 것이다.

(3)알파 운영자와 알파코스 리더를 임명한다.

먼저 알파토크를 육성으로 할 것인지 비디오테이프로 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알파코스 때에는 알파토크 대부분을 비디오로 실시하라고 권장하는 바이다. 10주간 열다섯 번의 토크를 한 사람의 강사가 준비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알파토

크를 육성으로 실시하려면 강사들을 선택하여 시간 별로 알파토크를 할당하라. 한 사람의 강사가 처음 네 개의 알파토크를 실시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알파운영자와 알파코스 리더라는 두 가지 역할을 한 사람이 할 수도 있다. 특히 비디오테이프를 사용한다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알파토크를 육성으로 진행하려 한다면 강사가 알파코스 리더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4)알파코스 리더

운영자든 강사든 알파코스 리더는 교회 내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성숙한 크리스천이어야만 한다. 알파코스 리더는 팀 훈련을 포함한 전 과정을 주관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5)알파 운영자

알파 운영자는 알파코스를 시작하기 전에 알파 시작하기를 읽어야만 한다. 이 책은 알파코스 이면에 있는 성경적 원리들을 다루고 있으며 알파코스 리더들을 위해 특별한 충고를 제공해 준다. 알파 운영자는 무대 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운영자는 조직적이고 사교적이며 우호적인 성격이어야 한다. 운영자는 알파 행정의 모든 측면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는 다음과 같은 일에 책임을 진다.

■ 알파코스를 등록하고 가장 가까운 알파사무소와 접촉한다.

■ 알파 지역 Advisor와 연락한다.

■ 알파코스에 참석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스트들로부터 참가 신청서를 받는다.

■ 팀을 조직한다.

■ 준비 위원회를 이끌 동역 자를 초대하고 임명한다.

■ 리더들, 헬퍼들, 게스트들을 소그룹에 배정한다.

■ 알파 게스트 예배. 알파 팀 훈련, 알파 미팅. 축하 만찬 등을 감독한다.

■ 매주 기도와 행정을 위한 회의를 주제한다.

■ 알파 성령 주말 수양회 야유회를 조직한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알파 운영자는 그들의 역할을 돕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알파 운영자는 본서에 기록된 일들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많은 일들을 팀에게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알파코스가 성장해감에 따라서 재정적인 일을 담당할 회계를 임명하고 만찬, 의자배치 정리정돈 등과 같은 일을 가동할 준비 위원장을 임명해야 한다.

(6)당신의 알파코스를 본부에 등록한다.

알파코스를 등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 알파 사무소에 연락하여 등록 신청서를 받는다.

■ 알파 뉴스와 함께 받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한다.

■ 웹 페이지에 있는 등록 신청서를 사용한다.

알파명부는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든 알파코스들의 목록이다. 이는 정기적으로 보충되며 알파뉴스에도 출간된다. 알파코스를 등록하며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

■ 알파 뉴스와 인터넷에 나오는 알파 명부에 포함 되어진다. 우리는 매주 알파코스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전화를 받는다. 사람들은 명부를 이용하여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위한 알파코스를 발견할 수 있다.

■ 알파 **brochure**를 주문 제작할 때 10% 할인 받을 수 있다. 당신은 그것을 초대장겸 등록 신청서로 사용할 수 있다

■ 특별행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7)장소를 찾는다.

■ 알파 코스의 규모에 따라 축하만찬과 주중 미팅을 위한 장소를 선택한다.

■ 환경-일반적으로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좋다. 알파 코스를 시작하기 전에는 가정이 가장 좋은 장소이며, 불신자들에게는 더욱 적합하다. 규모가 커지면 교회 건물로 옮겨야 한다, 어떤 장소든지 간에 조명, 식탁보, 꽃 등으로 가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 소그룹 장소 - 소그룹의 숫자가 많다면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 예약 - 알파코스의 모든 측면에 필요한 방들을 예약해야 한다. 행사들이 서로 충돌해서는 안 된다.

(8)회계 시스템 개발한다.

알파코스의 재정, 특히 주말 수양회를 위한 재정은 기도 제목이 되기에 충분하다.

다음과 같은 일들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다.

■ 알파 시작 만찬(첫 번째 알파코스를 시작하기 전)

■ 축하 만찬(알파코스가 끝날 때 마다)

■ 알파 주말 수양회 및 야유회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의 비용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초대장/알파 brochure
- 우편요금
- 식대
- 알파지침서
- 기타 자료(예를 들자면 비디오테이프)
- 훈련자료

교회 회계를 만나 재정에 관한 교회의 정책에 대해서 배운다.

보험의 보상 범위를 점검하고 코스의 모든 측면에 대해 대책을 세운다.

규모가 클 때에는 회계를 임명한다.

(9)주말 수양회와 야유회를 위하여 장소를 선택한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주말 수양회와 야유회를 위한 장소를 예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61페이지에 나오는 주말 수양회 편을 보아야 한다. 토의한 모든 사실들을 상세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10)찬양 인도자를 임명한다.

30명가량 된다면 찬양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알파 찬양 자료집은 찬양 인도자를 초대하거나 레코드를 사용하여 알파 찬양을 알파코스에 도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 만약에 찬양 인도자를 활용할 계획을 세운다면 찬양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민감한 사람을 임명할 필요가 있다.

(11)교인들의 지원을 받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구의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알파코스에 참석한다. 그러므로 교인들에게 광고 하는 것 이 가장 좋다. 알파코스가 교회 내에서 효과적인 전도의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교인들이 알파코스에 대해서 잘 알고 비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어떻게 달성 할 수 있는가?

■ 맨 먼저 교인들을 위한 알파코스를 운영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다음 번 알파코스에 불신자 친구들을 초청을 해야 한다.

■ 알파지역 advisor를 초대하여 교인들에게 알파코스에 대하여 소개하고 알파 소개비디오를 보여 주도록 한다.

■ 알파 뉴스를 나누어 주라. 영국에서는 알파 핫라인 0345 58127번으로 알파뉴스를 구할 수 있다.

■ 주보에 알파 간증들을 기재한다.

■ 첫 번째 코스를 시작하기 전에 교인들에게 친구와 가족들을 알파 시작 만찬에 초청하게 하여야 한다.

■ 코스를 시작하기 전에 교인들에게 친구와 알파 게스트 예배에 초청하게 한다.

(12)날짜를 정한다.

■ 학기에 맞추어 일 년에 세 번 알파코스를 운영하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 때부터 부활절 사이. 부활절부터 여름 사이. 여름부터 크리스마스 사이에 날짜를 정하는 것이 좋다.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코스 사이에 될 수 있는 한 긴 휴식을 가진다.

■ 코스를 시작하기 전과 마지막 축하만찬 이전에 두 번의 훈련기간을 계획하고. 만약에 첫 번째 코스를 위하여 알파 시작 만찬을 계획 한다면 두 번째 훈련을 마친 후, 첫 주를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

■ 세 번째 훈련 중보기도 사역이라는 주제를 다루는데, 주말 수양회 이전에 실시해야만 한다.

■ 주말 수양회를 실시하는데 가장 좋은 시기는 6주 후이다. 5주 후에는 실시할 수 있지만 8주 이전에는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그것은 다른 어떤 중요한 행사와 겹치지 않게 한다.

■ 낮 알파 날짜를 정할 때에는 학기와 학교 시간표를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 어머니와 자녀들이 함께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알파코스 중간에 방학이 끼면 잠시 중단 할 수도 있다.

(13)알파 시작 만찬

첫 번째 알파코스를 시작할 때는 알파 시작 만찬을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코스가 끝났을 때에는 축하 만찬을 실시해야 한다. 시작 만찬은 사람들이 친구들을 초대할 수 있는 이상적인 방법이다. 그 형식은 내용과 계획에 있어서 축하 만찬과 동일하다.

(14)알파 게스트 예배를 교회 일정에 삽입시켜야 한다.

이 예배는 교인들에게 가족과 친구를 초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특히 게스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친숙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들을 위해

환경의 분위기를 만들어라. 이것이 알파코스의 분위기를 결정할 것이다. 알파코스에 참석 했지만 소그룹 리더(leader)나 헬파(helper)가 아닌 게스트(guest) 라고 표현했다. 그것이 리더나 헬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as hosts) 행동하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2) 알파훈련의 2차 준비

*3-6개월 전에 준비해야 한다.

표1. 알파훈련 점검표

알파훈련 2차 점검표 (날짜 정하기)		
항목	내용	날짜
알파훈련1	소그룹 인도	
알파훈련2	목회록 돌봄	
알파훈련3	중보기도사역	

알파 게스트 예배		
항목	내용	날짜
1주	예수님은 누구인가?	
2주	예수님은 왜 돌아 가셨나?	
3주	어떻게 나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가?	
4주	왜 그리고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5주	왜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까?	
6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주말수양회	야유회	
7주	어떻게 악에 대항할 수 있는가?	
8주	왜 그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가?	
9주	하나님은 오늘도 치유하시는가?	
10주	교회에 대하여	

(1)축하만찬

■ 알파 게스트 예배를 교회 일정표에 삽입한다.

■ 필요한 방들을 예약한다.

■ 예산을 세운다.

■ 주말 수양회와 야유회를 위한 장소를 선택한다.

■ 주말 수양회와 야유회 장소를 위하여 논의한 모든 것을 상세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한다.

(2)예산을 세운다.

교회 회계와 함께 다음과 같은 일들을 위한 예산에 대해서 토론한다.

■ 주중 알파

■ 축하만찬

■ 주말 수양회/야유회

■ 도서 판매 수입과 비용

주말 수양회와 야유회를 위한 장소를 선택한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예약하라.

보다 상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주말 수양회나 야유회 부분을 보고 장소를 위하여 토론한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적은 계약서를 받는다. 게스트들로부터 등록비를 받기 전에 보증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개월 전

날 짜 ________________

(1)점검표

■ 알파코스 brochure를 준비한다.

■ 알파 자료와 추천 도서들을 주문한다.

■ Holman Hunt가 그린'세상의 빛'이라는 제목 그림 찾는다.

■ 교회 내부와 외부에서 알파코스를 광고한다.

■ 알파 게스트 예배를 위한 초대장을 준비한다.

(2)찬양 인도자

■ 알파 찬양 자료를 준비한다.

■ 찬양 인도자를 선택하고 실제적인 스케줄을 잡는다.

■ 찬양 시간과 주말 수양회를 위하여 음향 장비를 준비한다.

■ 알파 찬양 집을 준비한다.

(3)알파코스 brochure를 준비한다.

■ brochure는 알파코스의 초대장 역할을 한다. 영국에서는 알파 서점이나 우편으로 brochure를 주문할 교회의 알파코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덧붙여 인쇄해 준다. 이 brochure에 당신의 알파코스의 날짜와 시간을 삽입시킬 수도 있다.

■ 영국에서는 HTB가 당신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덧붙여 인쇄한 brochure를 공급해 준다. 보다 상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HTB에 있는 알파본부와 접촉한다.

■ 물론 brochure를 자체 제작할 수도 있다. brochure는 게스트들에게 보여주는 첫인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Professional하게 제작해야 한다. 만약에 당신이 원한다면 알파 로고를 스캔으로 받을 수도 있다.

(4)배 부

brochure는 사전에 잘 이용 되어져야 한다. 사람들이 미리 등록한다면 유익할 것이다. 사전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을 파악한다면 음식과 소그룹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brochure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 알파 게스트 예배

■ 축하만찬

■ 알파코스에 대해서 문의하는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

(5)알파자료

알파코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주문해야 한다.

알파비디오를 사용하는 경우

■ 알파 팀 훈련 비디오

■ 알파비디오

■ 리더와 헬퍼를 위한 알파 팀 훈련 지침서

■ 모든 리더, 헬퍼, 그리고 게스트들을 위한 알파 지침서

■ 계절에 따라 'Why Jesus? 또는 Why Christmas? 은 충분히 주문하라.

이것은 코스 기간 중이다. 알파 게스트 예배와 축하 만찬이 끝났을 때 사용할 수 있다. 알파 비디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사가 Nicky Gumbel이 쓴 인생의 의문점을 사용해야 안다. 거기에는 알파코스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알파 찬양을 포함시키려면 알파 찬양 집을 이용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6)추천 도서와 성경

■ 부록 3과 알파 지침서에서 추천도서 목록을 발견할 수 있다. 게스트들은 코스 기간 중 들은 주제에 관해서 더 많은 것을 일거야 한다. 웹 사이트에서 그 책들을 이용하는 것이 더욱 쉽다. 알파토크와 소그룹 토의가 진행됨에 따라서 게스트들은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게 된다.

■ 알파뉴스에서 알파 자료 도매업자 명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알파 자료 도매업자와 접촉한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추천도서를 공급해 줄 것이다. 그러면 그 도서들을 알파코스 현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판매하지 못한 책들은 반품시킬 수도 있다.

■ 성경도 비치하라. 특히 성경에 관해서 알파토크를 진행시키는 네 번째 주에는 더욱 그러하다. 알파 비디오에서는 NIV가 사용 된다. William Holman Hunt(윌리엄 홀맨 헌트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구하라 만약에 알파토크를 육성으로 진행시킨다면 강사는 알파코스의 셋째 주에 ‘어떻게 나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가? 라는 주제로 강의할 때 이 그림을 사용해야 한다. 많은 기독교 서점들이‘세상의 빛’을 비치해 놓고 있다(영국에서). Ruins of St. Paul's(성 바울) 성당은 우편엽서로부터 포스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 그림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준다. 0171 329 2029 이나 +44 171 3292029(영국 이외의 지역)번으로 전화하면 구입할 수 있다.

(7)교회 안과 밖에서 알파코스를 광고한다.

알파포스터를 이용하여 당신의 코스를 광고하라. 포스터는 기독교 서점이나 우편으로 구입할 수 있다(영국에서). 교회 게시판에 포스터를 붙여서 당신이 알파코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교회 소식지나 주보를 통해서 광고할 수도 있다.

(8)알파 게스트 예배를 위한 초대장을 준비하라

알파코스를 시작하기 2주 전에 교인들이 친구들을 알파 게스트 예배에 초대할 수 있는 초대장을 나누어줄 필요가 있다. 초대장을 디자인할 때 알파 로고를 포함시키고 뒷면에는 약도를 그려라. 지금 초대장을 디자인하고 준비하라.

그림1. 알파코스 초대장

게스트 예배 초대장

아름다운 만남과 감동적인 식사, 재미있는 이야기
그리고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따뜻한 섬김과 사랑을 받으며
영원히 함께 할 진정한 친구를 만납니다.

A 누구든지 올수 있습니다. (Anyone can come)
L 웃고 즐기며 배웁니다. (Learning and Laughter)
P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눕니다. (Pasta)
H 서로 서로를 돕습니다. (Helping one another)
A 무엇이든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Ask anything)

일시 : 2012. 03. 16 오후7시
장소 : 상천교회
강사 : 김상섭 님(열린교회 담임목사)

3)알파훈련계획

준 비

4주전 날짜 ______________

점검표

■ 당신의 팀을 초대한다.

■ 준비위원들을 초대한다.

■ 준비 위원 중 한 사람에게 서적 판매대를 운영하게 한다.

■ 소그룹 리더와 헬퍼들에게 '인생의 의문점'과 '특별한 의문점들을 찾아서'를 읽게 한다.

■ 저녁식사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라. 알파리더와 헬퍼 얼마나 많은

알파 리더와 헬퍼들을 초청할지 결정할 때, 다음 사실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이상적인 소그룹 규모는 12명이다.

■ 소그룹이 12명일 경우 두 명의 리더와 두 명의 헬퍼가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 한 쌍의 부부가 리더가 되고 두 명의 독신자(한명의 남자와 한명의 여자)가 헬퍼가 되는 경우

- 리더 한 명에(남자나 여자) 헬퍼는 한 쌍의 부부와 또 다른 한 사람이 되는 경우

알파 테스트

- 알파 팀을 선발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나의 불신자 친구가 이 사람과 기독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겠는가? 만약에 그 대답이“no" 라면 그 사람은 알파 소그룹의 리더나 헬퍼가 될 수 없다.

리더는 경험이 많고 성숙한 크리스천이어야 한다. 그들은 대화를 이끈다. 그러나 그들의 목표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리더는 게스트들과 헬퍼들에 대해서 목회 책임을 져야 한다. 헬퍼는 새신 자나 또는 알파코스를 금방 마친 사람도 할 수 있다. 그들은 교회용어(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게스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다)를 잘 모르고 또 흥분하기 쉽다 할지라도 소그룹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헬퍼들은 게스트들과 우정을 형성하고 리더들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헬퍼들은 자주 게스트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도 한다.

■ 외향적이고 인내심 있고 신뢰할 만한 사라들을 찾을 필요가 있다.

■ 교회 내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소그룹에서 리더와 헬퍼들을 찾으라. 이 사람들은 소그룹에 대해서 친숙할 뿐만 아니라 알파코스를 마친 게스트들을 통합시킬 수 있는 구조가 이미 준비 되어져 있다. 이전에 소그룹을 인도한 경험이 있는 사람도 알파 리더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훈련과정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

-준비위원들을 초대한다.

준비위원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라. 이들은 저녁알파 때 모든 실제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준비위원들은 비록 리더나 헬퍼들처럼 목회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알파코스 기간 동안에 헌신적으로 봉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당신이 자신의 집에서 알파코스를 운영한다면 실제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두 사람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저녁 알파가 끝났는데도 설거지를 계속하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은 없을 것이다. 당신의 교회에 가까이 이런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을 초대하여 도움을 받는다. 준비위원들은 그룹을 형성할 수도 있다. 그들은 주말 수양회나 야유회 때에도 참석하게 하라. 만약에 준비 위원들의 숫자가 많다면 목회적 마음을 가진 어떤 사람을 리더로 임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준비위원 중 한 사람에게 서적 판매대를 운영하게 하라

책임 있는 사람이 서적 판매대를 돌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준비위원 중 한 사람에게 서적 판매대 운영을 감독하라고 요청하라. 그들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매주 추천도서 목록을 점검하는 일

■ 알파자료 도매상으로부터 서적을 공급받는 일

■ 회계에게 판매대금을 넘겨주는 일

■ 판매하지 못한 책들을 서점에 반품하는 일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알파자료 지역도매상(알파뉴스에 이스트가 있음)과 접촉한다.

-알파토크 테이프-

만약에 알파코스 때 강사가 육성으로 강의를 한다면 서적판매대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녹음하라고 요청하라. 게스트들이 휴일 등의 이유로 인해서 놓친 강의의 테이프를 구입하여 다음 강의시간 이전에 들을 수 있게 한다. 만약에 비디오테이프를

사용하거나 또는 카세트테이프를 만들 수 없다면 카세트테이프를 사서 게스트들에게 질려줄 수도 있다. 리더들과 헬퍼들에게「인생의 의문점들」과「특별한 의문점을 찾아서」읽게 한다. Nicky Gumbel이 쓴‘인생의 의문점’은 책의 형태로 된 알파코스이다.‘특별한 의문점을 찾아서’는 알파 코스 때 게스트들이 가장 흔하게 제기하는 7가지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리더들과 헬퍼 들이 그 내용에 친숙해지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이다.

-저녁식사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계획한다.-

알파코스에 있어서 식사는 중요한 요소이다. 식사하는 동안에 소그룹 내에서 우정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소그룹 내의 사람들을 더욱 확고하게 결속시켜 준다. 그 일을 겁내지 말라. 단순하지만 최고의 표준을 지향한다. 어떤 사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본다.

-식사를 준비하는 네 가지 방법-

첫째, 만약에 단 하나의 소그룹만 있다면 매주 그룹멤버들이 돌아가면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처음에는 리더와 헬퍼들에게 요청하고 5주 후에는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할 것 같은 게스트에게 요청하고. 최소한 의 예산을 짜고 식비를 위하여 게스트들에게 헌금하게 한다.

둘째, 만약에 매주 여러 개의 소그룹을 운영한다면 하나의 소그룹에게 저녁식사를 준비하라고 요청한다. 이것은 매 재미있기도 하고. 또 그룹들 간에 서로 잘 알게 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식비를 위하여 헌금하도록 사발을 돌린다.

셋째, 매주 또는 교대로 하나의 팀으로 일하기를 좋아하는 요인들로 배식 팀을 만든다.

넷째, 만약에 120명이 넘는다면 전속 배식 담당자가 필요하다. 이 경우에 불리한 점은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알파자료 중간상으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알파 요리책

은 12명, 30명, 100명의 그룹에 맞는 식단을 제시하고 있다.

준 비

2주전 날짜 ______________

(1)점검표

■ 주보에 알파 전단지와 게스트 예배 초대장을 삽입한다.

또는 예배를 시작할 때 광고한다.

■ 알파 훈련1 - ‘소그룹 인도’

■ 모든 리더와 헬퍼들을 소그룹에 배치한다.

그리고 모든 준비들을 완비한다.

■ 헬퍼들은 첫 번째 저녁 알파에 안내자로 배치하다.

(2)주보에 알파 전단지를 삽입한다.

알파코스는 기독교에 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입문과정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다음 주 알파 게스트 예배에 친구들을 데려 오라고 말하라. 교인들에게 자기들이 데리고 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격려한다.

알파훈련 1 - ‘ 소그룹 인도’

알파 훈련은 알파 코스 이전에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비록 이전에 참가한 적이 있을지라도 모든 팀 멤버들 이 이 훈련에 참가해야 한다. 소그룹을 인도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리더들과 헬퍼들에게 자기들의 경험을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팀을 단결시켜 줄뿐만 아니라 소그룹, 목회적 돌봄, 중보기도 사역 등이 부드럽게 진행되게 한다. 만약에 어떤 멤버가 훈련과정에 참석할 수 없다면 오디오 테이프나 비디오테이프로 공부해야 한다. 알파 소그룹은 다른 기독교 소그룹과 매우 다르다. 이 훈련은 알파 소그룹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시간표

오후 7시 저녁

오후 7시 30분 찬양

오후 7시 40분 토크 - 소그룹 인도

오후 9시 질문

오후 9시 30분 종료

이 미팅 때에 다음과 같은 것들을 나누어 준다.

■ 소그룹 리더와 헬퍼들의 주소록(양식 1)

■ 초대한 게스트들의 인적 사항을 적을 수 있는 서류(양식2)

모든 리더와 헬퍼들을 소그룹에 배치하고 준비물을 완비한다.

이 일은 알파 코스의 성공적인 운영의 열쇠다. 함께 일할 사람들이 유기적 인 조직체를 만드는데 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 연령층을 고려하라. 가능한 한 리더와 헬퍼들을 연령별로 소그룹을 구성한다.

■ 12명의 소그룹에 두 리더와 두 명의 헬퍼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 한 쌍의 부부 리더와 두 명의 독신자 헬퍼 - 남녀 각 1명씩

- 한 명의 리더(남자나 여자)와 3명의 헬퍼(한 쌍의 부부와 또 다른 1명)

■ 데이트 중인 커플을 같은 소그룹의 리더로 세우지 말라. 알파 코스 중에 관계가 깨질 수도 있다.

■ 소그룹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마지막 순간에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헬퍼들을 첫 번째 저녁 알파의 안내자로 배치한다. 코스 규모에 따라 첫 번째 저녁 알파 때에 게스트들을 안내하기 위한 안내

자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 안내자는 소그룹 헬퍼들이 맡아야 한다. 게스트들과 연관이 있는 남녀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준 비

1주전 날짜 ______________

점검표

■ 알파훈련 2- 목회적 돌봄

■ 알파 코스를 시작하기 전에 게스트 예배를 실시한다.

■ 등록한 게스트들을 소그룹에 배치한다.

■ 식사 준비를 위해 예상 게스트 수를 결정한다.

■ 소그룹과 알파 코스 현장을 표시하는 간판을 만든다.

알파 훈련 2 - '목회적 돌봄'

오후 7시 저녁

오후 7시 30분 찬양

오후 7시 40분 토크 - 목회적 돌봄

오후 9시 질문

오후 9시 30분 종료

이 미팅 때에 다음과 같은 것들을 나누어 준다.

■ 초대한 게스트들의 인적 사항을 적을 수 있는 서류(양식2)

■ 첫 번째 저녁에 안내자가 될 헬퍼들의 목록. 그들에게 도착시간을 알려준다.

■ 리더들과 헬퍼들을 배치한 소그룹 목록. 자기들이 속한 소그룹을 위하여 기도하게 한다. 마지막 단계에서 소그룹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알파 코스를 시작하기 전 주일에 알파 게스트 예배를 실시한다. 알파 게스트 예배는 사람들이 알파 코스에 참석하도록 격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것은 평상시 예배와 유사

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 예배 중에 알파코스가 무엇이지, 그리고 또 언제 시작되는지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한다.

■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방금 알파를 마친 한 두 사람에게 인터뷰 스타일로 간증하도록 요청한다. 그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 알파 코스에 참석하기 전에 교회에 다녔는가?

- 알파 코스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었는가?

- 알파 코스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 알파 코스 때에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 예수께서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 시켰는가?

-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겠는가?

인터뷰의 목적은 알파코스를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게 하는 것이다.

설교는 복음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 주보와 함께 알파코스 brochure를 나누어 주라.

■ 게스트 예배가 끝난 후에 응답시간을 가져라.

■ Why Jesus? 은 무료로 나누어 주라.

게스트 예배 시간표

6시30분 환영 인사 및 잘 아는 찬송가 부르기

6시35분 알파코스 설명 및 한 두 사람의 간증

(다른 광고는 하지 말라)

6시45분 기도 - 간결하게 하라. 게스트 예배 자체보다도 보다 넓은 세계를 위해 기도

6시50분 경배와 찬양

7시05분 설교 - 복음적이고 도전적인 스타일

설교 끝에 헌신을 위해 기도하는 기회를 가짐

7시35분 찬송

7시40분 일대일 중보기도를 실시함

등록한 게스트들을 소그룹에 배치한다.

■ 처음에는 하나의 소그룹으로 시작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 이 과정은 불필요하다. 코스가 성장 하고 소그룹의 수가 늘어나면 가능한 한 비슷한 연령별로 배치하고 남녀 간의 비율도 맞춘다.

■ 알맞은 소그룹에 배치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한다.

■ 소그룹을 편성할 때에 게스트들의 나이, 주소, 성별, 연령 등을 제외하고는 아는 것이 거의 없다. 그러므로 기회가 된다면 약간의 노력을 더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구를 통해서 찾아온다. 그 친구들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얻으려면 더욱 잘 배치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비슷한 경력이나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배치한다.

■ 부부는 같은 그룹에 포함시켜야 한다. 비록 그들이 각기 다른 그룹에 소속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가능한 한 같이 있도록 설득한다. 왜냐하면 부부가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 친구들이 함께 온다면 같은 소그룹에 소속될 것인지 다른 소그룹에 소속될 것인지 물어본다.

■ 마지막 순간 - 알파 게스트 예배를 드린 후에 많은 사람들이 참가신청서나 전화로 등록할 것이다. 심지어 알파 코스가 시작되는 날에도 전화를 할 것이다. 게스트들을 미리 소그룹에 배치한다. 식사 준비를 위해 예상 게스트 수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등록하지 않은 사람도 당일에 나타나며, 등록한 사람들 중에서도 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소그룹과 알파 코스 현장을 표시하는 간판을 만든 다음에

간판에는 그룹 넘버와 리더의 이름을 적는다. 그래야 게스트들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차장, 출입구, 화장실 등을 안내하는 간판이 있어야 한다.

4)적용과 실재

제1주 예수님은 누구신가?   날짜 ______________

이제 신나는 시간이다. 그러나 항상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긴다. 그리고 이날은 사람들이 두 번째 밤에 다시 올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밤이다.

점검표

■ 몇 사람을 선발하여 게스트들을 영접하는 일을 맡긴다.

■ 영접하는 자들이 사용할 목록을 준비한다.

■ 안내자들의 역할을 정한다.

■ 명찰을 준비한다.

■ 모든 게스트, 헬퍼들에게 알파 지침서를 공급한다.

■ 식탁에 헌금함을 설치한다.

■ 리더와 헬퍼들을 위한 기도/행정 미팅을 준비한다.

배부

■ 주소록

몇 사람을 선발하여 게스트들을 영접하게 한다.

게스트 수에 관계없이 처음 두 세 주 동안에는 적어도 한 두 사람을 선발하여 입구에서 게스트들을 영접하게 한다. 부부 헬퍼에게 이 일을 맡기거나 어떤 교인에게 부탁 할 수도 있다. 영접하는 자들이 사용할 목록을 준비한다.

알파코스의 규모가 커지면 영접하는 자들에게 두 가지 목록이 필요하다.

■ 사전 등록자와 그들이 속한 소그룹 목록

■ 소그룹 내력서-평균 연령과 남녀의 수를 기록한 서류. 이 목록은 당일에 등록한 게스트들을 소그룹에 배치하는 데 필요하다. 사전에 등록한 사람들 중에서 오지 않는 사람도 있고, 등록하지 않았다가 당일에 오는 사람도 있다.

안내자들의 역할을 정한다. 알파코스가 성장해 감에 따라 첫째 날 저녁을 위해 안내자들이 필요하다. 헬퍼 들 중 어떤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겨라. 그들이 할 일은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게스트들을 인계 받아, 코트를 걸어주고, 명찰을 붙여주고, 소그룹 리더에게 소개시켜주는 것이다. 이 시스템들이 도착하는 순간부터 환영의 분위기를 느끼고, Professional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안내자들은 게스트들에게 말을 걸어 편안한 느낌이 들게 해야 한다. 그러나 기독교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게스트들이 위압감을 느끼게 된다.

명찰을 준비한다. 적어도 처음 몇 주간 동안에는 명찰을 달아 팀이나 게스트들이 이름을 묻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명찰은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여분의 것을 준비해야 한다. 모든 게스트, 리더, 헬퍼들에게 알파 지침서를 공급한다. 게스트들에게 알파 지침서를 공급하라. 예산이 허용한다면 무료로 나누어 준다. 식탁에 헌금함을 설치한다. 그러면 게스트들이 식비를 위해 헌금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헌금(예를 들자면 2파운드)이 필요하다면 그런 취지를 알려준다. 리더와 헬퍼들을 위한 기도 / 행정 미팅을 준비한다. 양식이나 기도 제목 같이, 리더들과 헬퍼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을 노트한다. 게스트들을 추적하거나 전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단지 운영자와 리더들만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알파코스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리더나 헬퍼와 우정의 관계가 확립되지 못했다면 그와 접촉해서는 안 된다.

제2주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는가? 날짜 _______________

점검표

■ 명찰을 준비한다.

■ 간판을 준비한다.

■ 준비위원들에게 점검표를 준다.

■ 식탁에 헌금함을 설치한다.

■ 기도/행정 미팅을 준비한다.

배부

■ 최신 주소록 - 각 그룹에 한 부씩

명찰을 준비한다. 1주 전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 시킨다.

제3주 - 어떻게 나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가? 날짜 ______________

점검표

■ 명찰을 준비한다.

■ 간판을 준비한다.

■ 식탁에 헌금함을 설치한다.

■ 기도/행정 미팅을 준비한다.

■ 알파토크를 위해 '세상의 빛'을 준비한다.

■ 축하만찬을 준비한다.

■ 지침서 중 주말 수양회 / 야유회 부분을 살펴본다.

배부

■ 최신 주소록

■ 주말 수양회 / 야유회-

■ 주말 수양회를 위한 헌금봉투

알파토크를 위해 '세상의 빛'을 준비한다. 이 그림은 기독교 서점에서 구할 수 있다.(영국의 경우). 바울 성당은 우편엽서로부터 포스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제고하고 있다. 그들의 서점으로 전화하면(071 329 2029) 구할 수 있다. 알파 자료 공급자가 우편엽서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서적 판매대에서 그것을 팔 수도 있을 것이다. 기도 / 행정 미팅을 준비한다. 다음 주부터는 명찰을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광고한다. 리더들과 헬퍼들에게 다가오는 주말 수양회와 야유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한다.

축하만찬을 준비한다.

■ 강사를 초청한다.

■ 필요한 장비를 대여할 준비를 한다.

■ 음식을 예약한다.

특별한 만찬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꽃, 촛불, 식탁보 등을 주문한다.

배부

주말 수양회/야유회-

양식4는 주말 수양회를 위한 예약서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것은 회비를 낸 사람들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야유회를 한다면 양식 5를 사용하고 소그룹 리더들에게 누구든지 금전적인 이유로 주말 수양회나 야유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라. 비용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은 무료로 참석시키고 주말 수양회나 야유회 기간 중에 모금하여 보충한다. 주말 수양회나 야유회를 실시할 때까지 이 양식을 배부한다. 주말 수양회를 위한 헌금을 모우기 위해 리더들에게 헌금봉투를 지급하라. 주말 수양회나 야유회를 실시할 때까지 헌금 봉투를 배부한다.

제4주 - 왜 그리고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날짜 ____________

점검표

■ 간판을 준비한다.

■ 준비위원들에게 점검표를 지급한다.

■ 식탁에 헌금함을 설치한다.

■ 지침서 중 주말 수양회 / 야유회 부분을 살펴본다.

■ 축하 만찬 초대장을 준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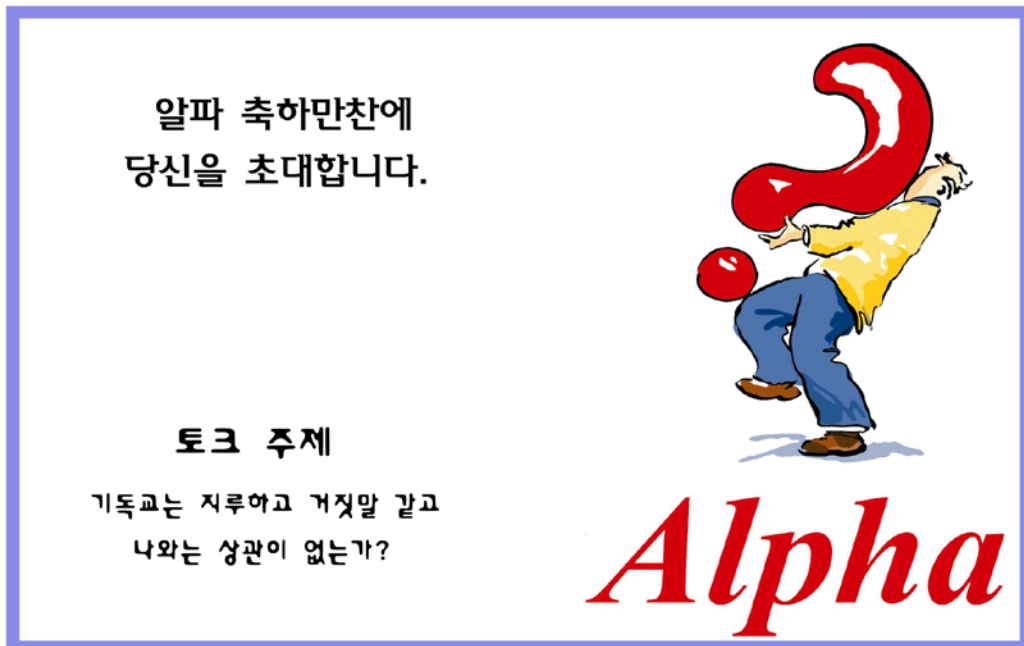
■ 서적 판매대에서 판매할 성경을 충분히 준비한다.(배부)

■ 리더들과 헬퍼들에게 주소록을 배부한다.

■ 주말 수양회 / 야유회- 양식4,5

■ 헌금봉투

축하 만찬 초대장을 준비한다. 7주째에는 축하만찬 초대장을 배부하기 시작해야 한다. 지금부터 초대장을 디자인하고 준비한다. 초대장을 디자인 할 때 알파로고를 삽입하고 뒷면에 약도를 그려 넣는다.

그림2 알파축하만찬 초대장

제5주 - 왜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까? 날짜 ______________

점검표

■ 간판을 준비한다.

■ 준비위원들에게 점검표를 지급한다.

■ 식탁에 헌금함을 설치한다.

■ 지침서 중 주말 수양회 / 야유회 부분을 살펴본다.

배부

■ 주말 수양회 / 야유회-

■ 헌금봉투

제6주 -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 하시는가? 날짜 ______________

점검표

■ 간판을 준비한다.

■ 준비위원들에게 점검표를 지급한다.

■ 식탁에 헌금함을 설치한다.

배부

■ 주말 수양회 / 야유회-

■ 헌금봉투

제7주 - 어떻게 악에 대항할 수 있는가? 날짜 ______________

점검표

■ 간판을 준비한다.

■ 준비위원들에게 점검표를 지급한다.

■ 식탁에 헌금함을 설치한다.

■축하만찬 메뉴를 결정하고. 소그룹 리더들에게 일인당 비용을 알려준다.

배부

■ 축하만찬 초대장

축하만찬 초대장을 배부하기 시작한다. 소그룹 리더들은 이때쯤 게스트들과 헬퍼들에게 축하만찬에 누구를 초대할지를 생각하게 한다. 축하만찬 메뉴를 결정하고 소그룹 리더들에게 비용을 알려 주어야 한다. 축하만찬을 위해 전문 음식 공급자를 활용하거나 교인들 중에서 팀을 선발한다. 아니면 그룹별로 음식을 공급하고 메뉴를 결정하게 하라. "알파 요리책"에 요리하는 방법이 나와 있다. 이것은 비용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게스트들의 기억에 남을 만한 특별한 요리를 준비한다.

제8주 왜 그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가? 날짜 ______________

점검표

■ 간판을 준비한다.

■ 준비위원들에게 점검표를 지급한다.

■ 식탁에 헌금함을 설치한다.

■ 축하 만찬 초대장을 배부한다.

배부

■ 축하만찬을 위한 양식

■ 축하만찬을 위한 헌금봉투

축하만찬을 위한 양식 -

축하만찬을 위한 양식을 사용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축하만찬에 참석할지를 예측할 수 있다. 잠재적 게스트들의 이름이나 세부적인 인적 사항들을 알 필요는 없다.

축하만찬을 위한 헌금봉투 전문 음식 공급업자를 사용한다면 리더, 헬퍼, 게스트들은 자기들이 초대한 친구나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 값을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다. 매주 헌금봉투를 배부한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초대한다.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해서 친구를 초대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10주에 헌금을 한다.

제9주 -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치유하시는가? 날짜 ______________

점검표

■ 간판을 준비한다.

■ 준비위원들에게 점검표를 지급한다.

■ 식탁에 헌금함을 설치한다.

■ 리더들에게 행정 및 기도회에 대해서 상기시켜 준다.

하나님에게 신유에 관한 토크를 위하여 준비할 때 지식의 말씀과 비전을 계시해 달라고 간구한다.

■ 리더들과 헬퍼들에게 다음 주에 헌금순서가 있음을 상기시켜 준다.

■ 축하만찬 초대장을 배부한다.

■ 축하만찬을 위한 양식

■ 축하만찬을 위한 헌금봉투

■ 게스트 설문지

게스트 설문지

알파코스 끝에 후속조치를 받기 위해 게스트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라. 이것은 당신의 알파코스를 개선시켜 줄 것이다. 우리는 수많은 설문지를 통해서 우리의 알파코스를 개선시켰다. 이 양식은 축하만찬 시나 미래의 게스트 예배 시에 인터뷰할 사람을

찾는데 유용하게 쓰인다.

제10주 - 교회에 대하여? 날짜 ______________

점검표

■ 간판을 준비한다.

■ 준비위원들에게 점검표를 지급한다.

■ 식탁에 헌금함을 설치한다.

■ 축하만찬을 위한 기금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헌금한다.

■ 축하 만찬 초대장을 배부한다.

■ 축하만찬을 위한 예산을 확정하라.

■ 소그룹 리더, 헬퍼, 준비위원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쓴다.

■ 다음 번 알파를 시작하려 한다면 알파 운영자 핸드북을 구입한다.

배부

■ 축하만찬을 위하여

■ 헌금봉투

■ 후속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사항

■ 게스트 설문지

■ 리더 설문지

축하만찬을 위한 기금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헌금한다. 행정 미팅 때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충분한 돈을 헌금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게스트들에게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려주고 헌금한다. 후속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은 알파코스를 마친 게스트들을 계속적으로 목양하여 교회에 완전히 통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후속 프로그램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존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후속 프

로그램에서는 책, 오디오카세트, 지침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유익한 삶 - 빌립보서에 기초한 본서는 새 신자들에게 유익하다.

특별한 의문점을 찾아서 - 고난, 혼전 성관계, 다른 종교들과 뉴 에이지 등을 포함해서, 알파코스에서 가장 자주 제기 되어지는 7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삶의 스타일에 도전하기 - 이 책은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가르침에 근거한 두 학기 과정인데,‘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돈은 어떻게 다룰 것인가?‘ 등과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다.

부흥의 본질 - 이사야 40~66장에 근거한 10가지 연구로서 오늘날을 위한 중요한 진리들을 이끌어 내고 있다. 알파코스를 끝낸 게스트들을 기존의 홈 그룹에 통합시키거나 알파 그룹을 홈 그룹으로 재편성할 수도 있다.

리더설문지 -

이 양식은 그룹 리더들을 피드백 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그것은 누가 다음 코스에서 좋은 헬퍼가 될 것인지. 누가 좋은 간증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게스트들이 홈 그룹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음 과정으로 갈 것인지를 알아보는데 도움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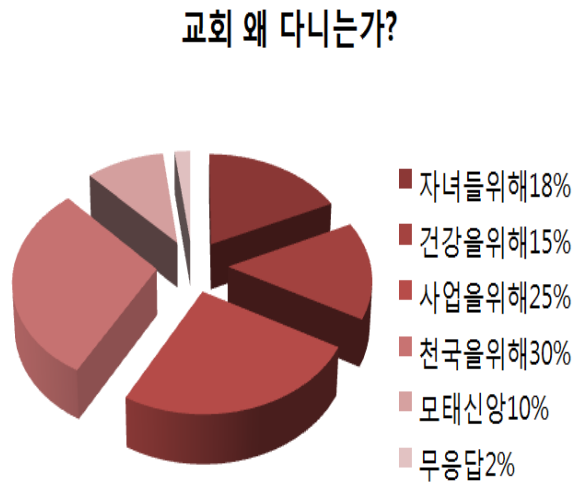
5)연구반 활동 내역

표2. 내외적 활동

구분	내용	비고
내적활동	독서1권읽기	1주일에 한권읽기 10주동안 10권
	성경읽기	10주:신약 10주 구약 로마서 8장 암송대회 참가 최우수상:권봉근, 오춘환,
	새벽기도회참석	매일 새벽5시 특별새벽기도회(추수감사) 제자반 특송
	찬양부르기(CCM)	자동차안, 집과 사무실에서 12월 성탄절 찬양대회 참가 (권봉근, 김영화, 오효열)
외적활동	가족에게 봉사	방청소, 빨래, 안마해주기 (권봉근, 김영화, 오춘환)
	경로당 청소	천포경로당, 주1회 (권봉근, 김영화, 오춘환, 박현규)
	복지관 출퇴근 차량봉사	보성복지관 매월2회 박현규, 오춘환 - 첫째주, 둘째로 수요일 오전10시 오후 5시
	목욕봉사	매월1회 25명(군 목욕탕) 셋째주 오전11시 목욕후 어르신들 식사대접 11월, 12월, 1월~5월
	식사초대	매월2회 전도대상자 전도상자 : 고영철, 김선웅 김시원, 윤철영,박형춘, 장옥석

Ⅴ. 과제 평가(Project Evaluation)

1. 의식변화를 위한 계획

표3. 교회는 왜 다니는가?

1970년대만 해도 제자훈련의 원리와 방법을 일선 목회현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일은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목회자로 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제자훈련에 대한 인상이 어딘가 달 라지는 기미가 엿보이기 시작하였다. 지 금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려는 교 회 지도자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교회를 위해 준비하신 또 하나의 은혜라고 믿는다.[125]

그러나 아직도 문제가 남아 있다. 왜냐하면 평신도를 제자 화하는 일은 적당

---

[125]Harry R. Boer, *A Short History of the Early Church*(Grand Rapids: Wm. B. 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6), 143.

히 손을 뗄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자를 만든다.'는 것이 어떤 일인가를 알면 알수록 더 주눅이 들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다른 결단이 필요하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즉 교회에 왜 다니는가? 하는 질문을 해 보면 응답자에 25%가 솔직하게 사업 때문에, 또는 직장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응답을 하였다. 이런 잘 못된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게 아름다운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제자훈련과 알파 훈련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126] 제자훈련은 생명을 걸고 뛰어드는 것이다. 다른 출구가 없는 사람처럼 매달리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무한한 보람과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이런 사람을 두고 흔히 '미쳤다.'는 소리를 한다.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127] 예수님도 그를 가장 잘 아는 가족들에게 마저 미친 사람으로 통하였다. 사도 바울은 어디 제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취급되었던가?

2. 행동실천 계획

제자를 만든다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목회자는 이외의 다른 목회를 하기가 어렵다. 부님의 부르심을 받아 섬기는 목회자라면 주님께서 세우신 목회의 표준을 벗어나는 사역을 고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자 도를 바르게 이해한 목회자가 제자 삼는 사역으로 돌아서겠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여겨진다.[128] 전통

---

[126]이성혁.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교회사적 방법론에 관한 고찰*(서울: 총신대 신대원 석사학위 논문 1996), 132.

[127]옥한음. *평신도를 깨운다*(서울: 두란노서원. 1990), 187.

[128]정장복, *예배학 개론*(서울: 종로서적, 1987), 14.

적인 교회의 굳어있는 상황 속에서 제자훈련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혁명적인 것이며 매우 어려운 것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표3. 행동실천계획

기간 및 월		과제내용	비고
의식 변화	3월	참고서 및 도서구입, 오리엔테이션(18일) 특별새벽기도회(3월첫째)	교육관(1층) 다과
	4월	특강1 제목 : 제자도란 무엇인가? 강사 : 열린교회 김상섭 목사	전교인 참석
행동 실천	5월	탐방 : 소외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장)	1기 : 화죽, 마천
			2기 : 화동, 율포
	6월	교회봉사 차량세차 및 청소, 식사대접	1기 : 세차, 청소
			2기 : 교인식사 주일 오전 예배 후 둘째 주
	7월	특강2 제목 : 사랑은 바람을 타고 강사: 대한 적십자 광주지부장	강연요약 및 결단, 발표
	8월	중고등부 수련회 및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지원 및 참여	1기 : 중고등부
			2기 : 아동부
	9월	경로당 및 마을회관 청소	1기 : 경로당(화죽, 화동)
			2기 : 마을회관 (화죽, 마천, 화동, 율포)
	10월	새가족 초청 및 바자회	1,2기 물품준비 연중행사 셋째 주
구조 및 평가	11월	은사발견을 위한 간증집회	1기 : 첫째 주
			2기 : 둘째 주
	12월	전교인 세족식 및 서약식	목사→장로→교인 각기훈련생

3. 연구반 과제 평가

제1기 제자반 2-1과 과제물

①큐티 : 누가복음 10장 30~37절 (긍휼함을 입은 강도 만난 사람)

②성구암송 : 로마서3장 21~22절 로마서8장 32절

③책 읽기 : 책 = "구원이란 무엇인가"(김세윤, 두란노) 요약하기.

④생활 숙제 : 한 주간 동안 내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믿음을 흔들게 하는 것들과 싸워서 이긴 내용을 적어 오기.

⑤성경 통독 = 18주 (롬9장~16장, 왕상 1장~19장)

읽고 은혜 받은 것 적어오기.

♣진리를 발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독서 과제물 (구원이란 무엇인가) 요약
예정의 교리 : 설령 우리가 약하여 넘어지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나를 구원하시고자 예정 하셨으므로 신실 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리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생활숙제 기록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는 고마운 사람들에게

마음의 정성을 담아 선물을 전해 보세요.

그리고 그의 대한 반응과 본인의 심정을 기록해 보세요.

※성경 통독 = 11주 읽고 은혜 받은 것 기록해 보세요.
열왕기상 3장 16절~28절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 1. 한 아이를 가지고 두 엄마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데 이때 솔로몬 왕이 칼을 가져오게 해서 아이를 둘로 갈라 하나씩 나누어 주라고 했을 때 진짜 엄마는 울면서 그 아이를 저 엄마에게 주라고 했을 때 솔로몬 왕이 내린 결과 처음 여자가 진짜 엄마다 하면서 아이 엄마를 찾아준 솔로몬 왕은 너무너무 멋있다. 2.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구하고 싶다.

제출 자 이름: 김한태

제1기 제자반 2-2과 과제물

①큐티 : 마가복음 5장 25~34절 (12년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믿음)

②성구암송 : 에베소서2장 8~9절 로마서4장 18절

③책 읽기 : 책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옥한흠).

④생활숙제 : 중생 받은 자로서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본이 될 만한 일을 하나 정하여 그것을 어떻게 실천했는가?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적어 오세요.

⑤성경 통독 = 17주

읽고 은혜 받은 것 적어오세요.

♣진리를 발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독서 과제물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요약

1. 예수님도 마귀에게 많은 것으로 시험을 당하셨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우리들도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하루하루 말씀으로 살아야겠다.
2.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허락하신다.
3. 기도: 시험 당하는 자들을 돕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
4.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읽자.
5.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은 자 되자

- 아 멘 -

※생활숙제 기록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는 고마운 사람들에게

마음의 정성을 담아 선물을 전해 보세요.

그리고 그의 대한 반응과 본인의 심정을 기록해 보세요.

※성경 통독 = 17주 읽고 은혜 받은 것 기록해 보세요.

로마서 8장 18절

1. 생각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 할 수 없도다.

→나는 현재 겪는 고난이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더 나타날 줄 믿습니다.

2.

3.

4.

5.

제출 자 이름 최순자

제1기 제자반 2-3과 과제물

1. 큐티 : 사무엘상 24장 1~7절 (성화되어 가는 다윗)

2. 성구암송 : 고린도후서7장 1절 요한일서3장 3절

3. 책 읽기 : 책 =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조이 도우슨)

요약을 해 오세요.

4. 생활숙제 : 한 주간동안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기고,

당신의 감정을 다스린 경험을 적어 보세요.

(그냥 막연히 있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보세요.)

5. 성경 통독 = 20주

읽고 은혜 받은 것 적어오세요.

♣진리를 발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독서 과제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요약

1.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 하셨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시32:8)

2. 우리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는 언제나 상 주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을 수 있다.

3. 기도: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순종 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그가 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늘 기도와 간구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들로 인해도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 아 멘 -

※생활숙제 기록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는 고마운 사람들에게

마음의 정성을 담아 선물을 전해 보세요.

그리고 그의 대한 반응과 본인의 심정을 기록해 보세요.

목소리가 커서 조금만 톤을 높이면 화가 난 사람처럼 보인다. 그래서 기도했다.

“하나님 부드럽고 인자한 목소리로 이야기 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아이들과

작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화를 했다. 무엇보다 자신이 차분해 지고 좋았다.

앞으로 계속 인자한 목소리로 아름다운 소리로 이야기할 것이다.

※성경 통독 = 17주 읽고 은혜 받은 것 기록해 보세요.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의 기도)

1.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 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아무도 나를 헤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누구에게도 고통 당하지 않게 하시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늘 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2.

3.

4.

5.

제출 자 이름 노현자

제1기 제자반 2-4과 과제물

①큐티: 요한복음 6장 1~13절 (오병이어의 섬김)

②성구암송: 빌립보서2장 2~3절 베드로전4장 11절(상)

③책 읽기 : 책 = “겸손.”(앤드류 머레이) 요약을 해 오세요.

④생활숙제 :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경험을 기록해보세요.

(가족 중에 상대방의 요구 조건 들어주기 3가지.)

⑤성경 통독 = 32주

읽고 은혜 받은 것 적어오세요.

♣진리를 발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독서 과제물 (겸손.) 요약

1. 예수께서 일찍이 하늘 보좌에서 처음으로 이 땅에 가져다 보여 주신 것이 겸손이었고, 그의 가르치신 것이 또한 겸손이었으며, 십자가에 죽으심이 또한 겸손이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면 겸손해 질수록 하나님께서는 더욱 더 나와 가까이 계시면서, 모든 신앙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실 것이다.
2.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셨고 죽기까지 순종 하셨다. 주님께서는 모든 시련과 연약함과 환난을 통하여 우리를 겸손케 만들고자 하신다.
3.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이 겸손을 믿음으로 또 기쁨으로 받아들이자.
4.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존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따뜻한 햇빛 속에서 나부끼고 있는 먼지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고 그 앞에서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다.

※생활숙제 기록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경험을 기록해 보세요.

(가족 중에 상대방의 요구 조건 들어주기 3가지)

1. 아침 일찍 일어나기
2. 가족과 함께 주말 보내기
3. 책 읽어주기

※성경 통독 = 31주 읽고 은혜 받은 것 기록해 보세요.
이사야 533장 4~6절 말씀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절: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시키 셨도다. 1.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고,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2.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내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나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받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3. 우리는 모두 양처럼 흩어져 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 짐을 그에게 지게 하셨다. (나의 죄 때문에)

제출 자 이름 장성옥

제1기 제자반 2-5과 과제물

①큐티: 누가복음 15장 11~32절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②성구암송: 요한복음13장 34~35절 요한일서3장 18절

③책 읽기: “5가지 사랑의 언어” 요약을 해 오세요.

④생활숙제: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싸워 승리하신 경험을 기록해 보세요.

(가족 중에 상대방의 요구 조건 들어주기 3가지.)

⑤성경 통독 = 42주 통독하시고 은혜 받은 점 기록

♣진리를 발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독서 과제물 (5가지 사랑의 언어) 요약 1. 사랑의 언어는 5가지가 있다고 한다. 함께하는 시간, 선물, 육체적인 접촉, 인정하는 말, 봉사...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상대방의 제 1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왔다.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해주어야 할 지 알 수 없었다. 2. 앞으로는 배우자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많이 섬기며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갈 5:13) 이 말씀을 바탕으로 열심히 섬기며 살아 가렵니다.
※생활숙제 기록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싸워 승리하신 경험을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시험을 닥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살아야겠다.

그리고 새벽기도 시감을 빠지지 않고, 매일 매일 나아가겠다.

무슨 일이 생기면 즉흥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쭈어 보겠다.

※성경 통독 = 31주 읽고 은혜 받은 것 기록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20 ~ 21절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 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자.

제출 자 이름 김안일

제1기 제자반 2-6과 과제물

①큐티: 창세기 13장 1~18절 (성숙한 아브라함과 미성숙한 롯)

②성구암송: 에베소서4장 13절 빌립보서3장 12절

③책 읽기: 책 = “내면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Gordon MacDonald (고든 맥도날드)

요약을 해 오세요.

④생활숙제: 상대방에서 하루에 칭찬 3가지씩 해보세요.

그리고 상대의 반응과 당신의 느낌을 기록해 보세요.

⑤성경 통독 = 35주 통독하시고 은혜 받은 점 기록

♣진리를 발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독서 과제물 (내면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요약
1. 영혼과 육신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 또한 세대별로 차이와 견해가 서로를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제자훈련을 받기 전 20대~50대 까지 내 내면 세계는 마치 홍수로 완전히 침수된 지하실과 같은 상태였다고 단언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과거의 삶들을 이제 와서 보니 Gordon MacDonald(고든 맥도날드) 기록서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었다. 영적 침체가 육체적인 침체로 이어졌고, 내면의 경험이 외부세계를 지탱할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에 밖으로 붕괴한 것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생활숙제 기록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싸워 승리하신 경험을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시험을 닥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기기운으로 식욕도 부진했을 때, 집사람으로부터 유자차 한잔을 받을 때 "우리 집 보배요 당신 때문에 내가 살고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서로를 신뢰하게 됨.

※성경 통독 = 31주 읽고 은혜 받은 것 기록해 보세요.

다니엘 3장 28~30절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베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거름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30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자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제출 자 이름 : 오효열

제1기 제자반 2-7과 과제물

①큐티: 누가복음 15장 11~32절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②성구암송: 요한복음13장 34~35 요한일서3장 18절

③책 읽기: 책 = “5가지 사랑의 언어” 요약을 해 오세요.

④생활숙제: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싸워 승리하신 경험을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시험을 닥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⑤성경 통독 = 42주 통독하시고 은혜 받은 점 기록

♣진리를 발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독서 과제물 (5가지 사랑의 언어) 요약
1.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의사 표시나 긍정적인 말은 꼭 필요 할뿐만 아니라 표현해야 한다. 2. 사랑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은 사랑한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사소한 문제를 논하거나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함께 의논하고 대화하는 자체는 사랑하기 때문이다. 3. 상대를 사랑하는 표시로 선물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행하여져 감이 올바르다. 4. 봉사자세는 상대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행동과 그 임부는 공허의 자리를 채워주는 모습이다. 5. 육체적인 접촉을 말보다는 행동의 적극적인 모습이고 표현이라 하겠기에 사랑의 깊이와 정도를 가늠 할 수 있겠다.
※생활숙제 기록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싸워 승리하신 경험을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시험을 닥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야겠다.

※성경 통독 =31주 읽고 은혜 받은 것 기록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2 : 10 하반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3:17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 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을 것을 알지 못하도다.

*요한계시록 22:12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제출 자 이름 최선숙

제1기 제자반 2-8과 과제물

①큐티: 마태복음 4장 1~11절 (예수님의 영적 싸움)

②성구암송: 베드로전서 5장 8절 에베소서6장 10~11절

③책 읽기: 책 =“영적 전쟁의 성서적 원리” 요약을 해 오세요.

④생활숙제: 청지기 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찾고, 방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적어 오도록 한다.

⑤성경 통독 = 41주 통독하시고 은혜 받은 점 기록

♣진리를 발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독서 과제물 (영적 전쟁의 성서적 원리) 요약

1. 육신의 물욕과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

1)하나님의 전신 갑주 뿐

2)깨어있는 기도와 세상을 미워하기 보다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

3)말씀으로서의 무장함

※생활숙제 기록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싸워 승리하신 경험을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시험을 닥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청지기 직을 적극적인 자세와 소극적인 자세로 논하고 싶은데 그리스도인은 적극적인 자세로 수행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성경 통독 = 41주 읽고 은혜 받은 것 기록해 보세요.

*스가랴 14 : 21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 즉 제사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더 이상 죄인들이 없고, 의인과 거룩한 사람만 있게 된다는 뜻)

*말라기 3: 11~12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 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출 자 이름 이미향

4)연구반 섬김 봉사 평가

제목: 감옥에서 거듭난 사람	
내 용 관 찰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밤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죄수들도 들었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 터가 움직이고 모든 문이 열리고 죄수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간수는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탈출한 것으로 생각하여 자결하려 합니다. 간수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음식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

	게 기뻐합니다.
연 구 와 묵 상	**왜 다른 죄수들은 도망가지 않았을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 할 때 다른 죄수들이 듣고 있었으며 지진이 나서 모든 옥문과 사람들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는 바울과 실라 뿐 아니라 많은 죄수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탈옥할 최고의 기회였지만 단 한 명의 죄수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단 한 명이라도 도망갔으면 간수는 문책을 받아야 했으며 감옥에 갇힌 모든 사람들은 철저하게 조사를 받고 탄압이 더욱 심해졌겠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음날 바울과 실라는 풀려납니다.
느 낌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놀라운 반전이 있다. 감옥이라는 낙심하기 쉬운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함을 통하여 간수와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결 단 과 적 용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다가 그 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었을까? 육신적인 생각의 틀을 깨기 위해서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고쳐야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과 일에 한번 쉬어 성령이 말씀하시는 생각을 들어야겠습니다. 이번 주 그 생각으로 가족에게 한 번도 짜증이나 화를 내지 않아야겠습니다.

1~2일에 작성하여 결단과 적용을 삶 속에서 실천하자! 갈성교회

제1기 제자반 제출자 : 김안일

제목: 고난 뒤에 영광	
내 용 관 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또한 그 분의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들 자신도 속으로 탄식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우리 몸이 속량 될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 구 와 묵 상	세상이 바라는 돈, 명예, 권력은 죽으면 없어집니다. 하지만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은 그 곳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도 엄청난 노력과 고통이 수반되듯이 참된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고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소망으로 가는 길은 좁고 험하다고 합니다.
느 낌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되지 않는 적이 한 번도 없음을 생각해 본다. 힘들고 고통 중에 있던 그 당시에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었던 것 같았던 일도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고난만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는다. 앞으로도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훗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을 알기에 힘이 생기며 더 빨리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

결단과적용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인가? 현재의 고난 또한 그분의 사랑의 표현임을 깨닫게 되면 고난도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고통이 수반될 수는 있지만 그 고통의 시간이 짧아지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고난 가운데 참된 소망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해야겠다. 친구, 가족, 이웃의 비난의 소리를 수용하기(수용한 것 중 잘못된 나의 모습 고치기)

1~2일에 작성하여 결단과 적용을 삶 속에서 실천하자! 갈성교회

제1기 제자반 제출자 : 장성옥

제목: 긍휼함을 입은 강도 만난 사람	
내용관찰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선한 이웃이 누구인지 물어봅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죽을 정도로 맞고 있는 다 빼기고 버려졌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화를 마치신 후 이 세 사람 중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인지 묻습니다.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연구와 묵상	사마리아 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그를 돌봐주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 인도 불쌍하다는 생각은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쌍한 생각만 하고 피해 지나갔으며 실천은 없었습니다.
느낌	주님이 말씀하신 강도 만난 사람의 예화를 듣고 볼 때마다 제사장과 레위 인은 악독하고 위선자이며 냉혈한 사람으로 생각 되어졌습니다. 나와는 별개의 못된 사람이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묵상할수록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은 많이 하면서 생각만큼 실천을 한 것은 손에 꼽을 수조차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마리아 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게 필요한 것을 무엇일까?
결단과 적용	특히 찬송가를 틀어놓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왠지 그들이 그리스도인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으로 불쾌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불쌍한 생각과 곱지 않는 시선의 갈등 속에서 외면하고 지나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불쌍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주님의 신호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그런 사람을 마주치거나 대할 때 외면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도와줘야겠습니다.

1~2일에 작성하여 결단과 적용을 삶 속에서 실천하자! 갈성교회

제1기 제자반 제출자 : 김한태

제목: 다윗의 순결하지 못한 삶	
내용관찰	군대를 출전시킨 다윗 왕은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고 신하를 시켜 누군지 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입궁시켜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녀가 임신하게 되자 다윗 왕은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부릅니다. 입궁해서 전쟁의 소식을 전한 우리아는 자신만 집에 가서 편하게 쉴 수가 없음을 전하고는 부하들과 더불어 잡니다. 우리아를 집에 보내려고 했던 계획이 실패하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하여 전쟁에서 우리아를 죽일 계략을 꾸밉니다.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요압은 계략대로 우리아가 전사되도록 합니다.
연구와묵상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영웅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전투에서 선봉에 서 멋진 승리를 수 없이 얻어낸 그가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민족과의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고 전세가 이스라엘에 거의 기울자 다윗은 승리를 확신하게 됩니다. 자신이 전장에 없어도 승리를 예감한 다윗은 출전하지 않고 부하들만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느낌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한 순간의 방심과 유혹 속에 처절하게 무너지고 악하여 질 수 있습니다. 악함의 뿌리가 하나님과의 단절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유혹이 다윗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수없이 있음을 느낍니다. 이런 유혹에 사로잡히기 않기 위해서는 늘 깨어있는 영적 긴장감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 단 과 적 용	육체적인 긴장감을 풀 때 영적 긴장감 또한 풀도록 마귀가 유혹함을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육체적인 피로, 긴장은 반드시 해소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영적 긴장감은 우리가 늘 깨어있을 수 있는 원동력으로서 절대로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영적 긴장감을 늘 유지하는 것은 모든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를 무장시키는 것일 것입니다. 주일 다음날 새벽은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 시간인 만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야겠습니다.

1~2일에 작성하여 결단과 적용을 삶 속에서 실천하자! 성천교회

제1기 제자반 제출자 : 문인순

제목: 든든한 동역 자가 되는 길 (사도행전 9:26~31)	
내 용 관 찰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귀고자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사울을 두려워하였으며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도 믿지 않습니다. 이에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과 그가 회심하여 다메섹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한 일을 진술합니다. 바나바의 진술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그들은 사울을 죽이고자 힘씁니다.
연 구 와 묵 상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주님을 만나 회심을 하게 되어 다메섹에서 오히려 복음을 증거 하게 됩니다. 이에 당황한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그들을 피해 예루살렘으로 와서는 복음 안에 하나가 된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하고자 합니다.

느 낌	비록 전에는 자신들을 죽이고자 했던 사울이였지만 이제는 믿음의 한 형제라는 확신과 사랑으로 그를 보호한 것입니다. 사울과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보여준 믿음과 사랑으로 인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서 주를 경외할 수 있었으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 단 과 적 용	같이 예배를 드리는 형, 누나, 언니, 동생, 혹은 선생님이 자신의 든든한 동역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나바가 사울을 먼저 믿고 변호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먼저 다가가고 신뢰를 보여줘야겠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동역자로 여기고 믿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다가가고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른 사람의 든든한 동역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1~2일에 작성하여 결단과 적용을 삶 속에서 실천하자! 갈성교회

제1기 제자반 제출자 : 이미향

제목: 바른 기도란 무엇인가	
내 용 관 찰	예수님께서 열두 명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인자를 죽이고자 십자가에 못 박으리니 제 삼 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때에 세배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말하되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하시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냐고 묻자 할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연구와묵상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세배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그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을 한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핍박 받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나라를 세우는 왕으로 여겼던 것 같다. **“열 제자가 듣고 분이 여기거늘”** 아직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모르고 있었다.
느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지고 있던 제자들이 현재 나의 모습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권력이나 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자훈련을 통해 배웠고 그렇게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
결단과적용	제자 훈련을 시작 할 무렵 열정과 열심을 가졌던 내 모습이 사라져만 가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갈려고 하니 마귀가 훼방을 하는 것일까? 제자 훈련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진심이 아닌 나를 변화시켜 세상에서 성공하고픈 인간적인 마음이었을까? 훈련을 시작 할 무렵 열정과 열심을 가졌던 내 모습이 사라져만 가고 있는 것 같다. 시간은 있으나 숙제를 미루고 있으며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쉬려고만 하는 나약한 마음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제자 훈련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진심이 아닌 나를 변화시켜 세상에서 성공하고픈 인간적인 마음이었을까?

1~2일에 작성하여 결단과 적용을 삶 속에서 실천하자! 갈성교회

제1기 제자반 제출자 : 최순자

제목: 마태복음 13:1~23(씨 뿌리는 자의 비유)	
내 용 관 찰	예수님께서 해변에 나가서 앉으시니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해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후에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나아와 비유의 뜻을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있으나 저들은 없구나. 있는 자는 더욱 풍부하게,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연 구 와 묵 상	예수님께서는 왜 배에서 말씀을 하셨을까? 무리가 모이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말씀하셨다. 신변의 위협 때문에 배에 오르셨을까? 아니면 배에서 말씀 하시는 것이 청중이 집중하기에 좋아서일까? 많은 무리가 모였기 때문에 그들을 모두 보고서 말씀하기에는 배에서 해변을 보시고 하시는 것이 가장 좋았을 것이다.
느 낌	제자 훈련을 시작한지 이제 10주정도 되었다. 새롬반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제자훈련을 한지는 5주가 되어간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느끼는 가장 큰 것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것이다. 시작할 당시를 생각해보면 변하고 있는 내 모습에 기쁘고 더욱 변하고 싶다.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변한 내 모습에 기쁜 적이 없었다. 부흥회, 수련회를 통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일주일 길게는 3주를 넘긴 적이 없었다. 무엇인가 변할 것 같고 당장 손에 잡힐 것 같다가 시들해지곤 했다. 그 모습이 바로 자갈밭 같은 모습 이였다. 아직은 미숙하기에 하나 둘씩 자갈을 고르고 가시를 베어 태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결 단 과 적 용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마음의 밭을 좋은 땅으로 가꿔 나갈 수 있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 많으며 쉽게 흔들리고 있지만 말씀을 더욱 듣고 배우고 깨달아 백 배, 육십 배, 삼십 배의 열매가 열리는 축복의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침 먹기 전, 잠자기 전 꼭 Q T하기 * 늘 겸손해질 수 있게 매일 기도하기

1~2일에 작성하여 결단과 적용을 삶 속에서 실천하자! 갈성교회

제1기 제자반 제출자 : 장성옥

5) 훈련실행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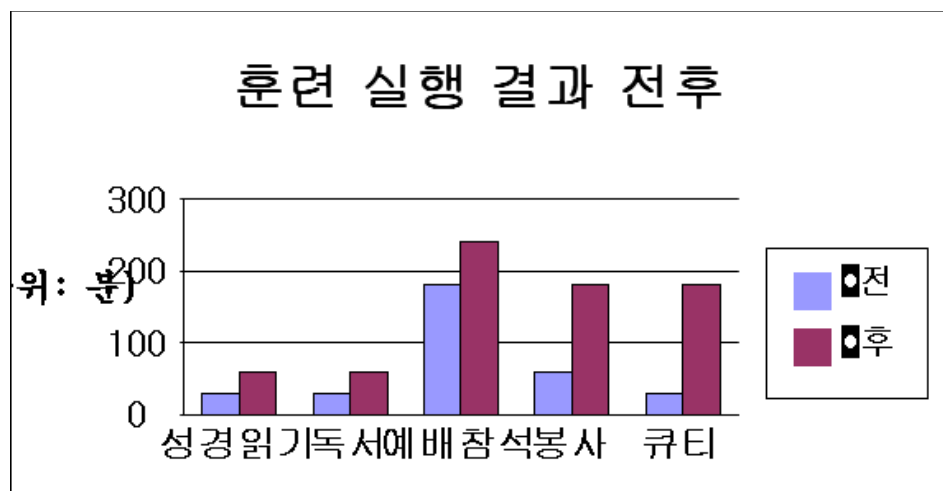
성경 : 하루

독서 : 하루

예배참석 : 1주

봉사활동 : 1주

큐티 : 1주

표4 훈련실행결과 전후

Ⅵ. 목회자의 유능성 개발(Personal Evaluation)

1. 섬김 / 역할 분야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제자들과 이름 없이 섬겼던 여성과 남성 섬김이들 처럼 섬김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님은 성령의 부르심에 마음을 열고 응답하는 모든 이들을 지도자와 책임자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확인하게 된다.[129] 목사와 장로는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목사와 장로는 교인들의 수가 많고 적고, 또는 농촌이든 도시든 교인들을 신앙적 삶을 책임 맡은 상위 권위를 가진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한다.
흔히 목회자들은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면 인간의 모든 미세한 부분들까지도 다 알고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상식을 뛰어넘는 다양한 현대의 삶 속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들을 돌보기 위해 목회자들은 전문적 지식을 갖추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섬김의 기술들을 잘 습득하고 먼저 본을 보이는 목회를 해야 할 것이다.

1)유능성 개발을 위한 독서계획

목회자가 먼저 체질을 계선하지 않으면 장로도, 그리고 평신도들도 변화되지 못한다. 그리기 위해서 신념과 정열, 그리고 비전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작은 예수를 만드는 일이요, 사람을 낳는 일이기 때문이다. 생명을 거는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

[129]박기순, *인간, 매체, 커뮤니테이션*(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0), 13.

이다. 이것이 바로 체질계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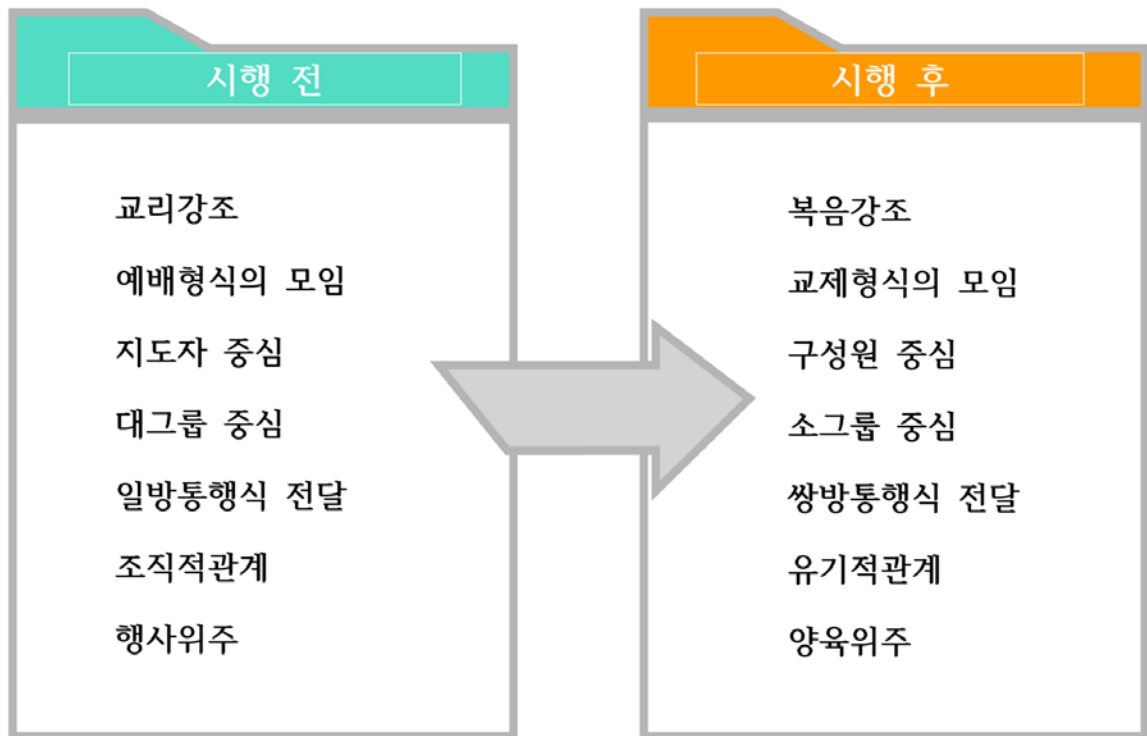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안일한 몸에 베인 목회 패턴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책을 읽고 우리의 목회 체질이 변해야 한다.

표5. 유능성 개발을 위한 독서계획

도서명	내용소개	일정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옥한흠)	한국교회 내에 평신도에 대한 새로운 지각을 일으킨 책이다. 목회자는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달려가던 발걸음을 잠깐 머추고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무엇인지 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그 대답이 관연 올바른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2012년 3월 1일 ~ 3월14일	느낀점 A4,2장 발표장소 교육관
섬김(빌 하이츠)	섬김 편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나 우선'의 세상 가운데서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일깨운다. 또한 이 섬김이란 모든 일에 해당하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발견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임을 차근차근 마음에 새겨 준다.	4월1일 ~ 4월10일	느낀점 A4,2장 발표장소 교육관
섬김과 순종으로 세워가는 행복한 교회(김병태)	오직 '섬김'과 '순종'을 실천할 때에만 공동체적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으며, 동시에 모든 교인과 목회자가 행복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덕스러운 말로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행복의 교회로 쇄신하기 위해 필요한 아홉 가지의 지침을 다양한 일화 속에 녹여내어 실천적 자세를 함양하도록 이끌어준다.	5월1일 ~ 5월14일	느낀점 A4,2장 발표장소 교육관
섬김과 전도로 부흥하는 구역(아가페 출판사)	세상을 변화시키는 52주 구역공과『섬김과 전도로 부흥하는 구역』. 이 책은 초교파 구역공과로서 연구실에서가 아니고, 일선 목회자가 목회현장 과제인 '성도들의 영적 부흥'을 위해 시도되어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6월1 ~ 6월14	느낀점 A4,2장 발표장소 교육관

2)시행결과

특별히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책을 통하여 그동안 목회자가 가지고 있었던 목회 철학이나, 비전이 그리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새롭게 아니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생각하고 뜻하는 방향이 목회자와 일치된 모습을 보게 된다. 아래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가 그리고 목회자, 성도들의 체질이 바뀌게 된 것이다.

표6. 시행 전후 변화표

목사와 장로의 체질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바뀌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된다. 자신도 모르게 놀라운 변화를 겪는 간증을 하게 되었다.

2. 인간관계(1:1 커뮤니케이션)

목사는 사도행전 6장의 말씀처럼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 하

는"[130] 사람이다. 그러나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있어 설교와 기도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일이다. 아무리 좋은 설교라 해도, 성도들과의 관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말씀이 전달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목사는 이 일을 위해 시간을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행함이 있는 섬김의 모습이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1)유능성개발을 위한 독서계획

표7. 인간관계를 위한 독서계획

도서명	내용소개	일정	
존 맥스웰의 관계의 기술 (생명의 말씀사)	진정한 리더는 사람들에게서 최선의 것을 뽑아낸다! 리더는 사람들과 일해야 하는데, 이는 결코 쉽지 않다. 대인 관계는 리더를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 그래서 리더에게 대인관계가 중요한 것이며, 리더는 사람들에게 가장 최선의 자원을 뽑아낼 수 있어야 한다.	6월1일 ~ 6월14일	느낀점 A4,2장
			발표장소 교육관
나와 너 (마틴 부버)	오늘날 사람들은 '깨어진 세계'에서 '찢기고 또 자기도 찢으면서, 해체되고 또 자기도 그 해체 작업에 한몫 거들면서 분열되고 또 자기도 분열을 추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7월1일 ~ 7월14일	느낀점 A4,2장
			발표장소 교육관
대화의 기술 (풀렛데일)	'그 때 그렇게 말했어야 하는건데...', '왜 항상 그는 나에게 험담을 늘어놓는 것일까?' 이 책은 이런 생각을 하는 독자를 위해 10단계의 변화 프로그램으로 제시한다. 저자는 단순히 방어적이거나 또는 너무 공격적이지 않은, 단호하면서도 정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대화의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8월1일 ~ 8월14일	느낀점 A4,2장
			발표장소 교육관

[130]개역개정 사도행전6:4.

2)시행결과

목사와 장로의 관계계선을 통하여 그 동안 서로 소토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완전히 소통이 되었다. 부정에서 긍정으로,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바뀌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된다. 자신도 모르게 놀라운 변화를 겪는 간증을 하게 되었다.

3. 리더십(Leadership)

목회자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리더십이다. 온유한 스타일이든, 주도적인 스타일이든 목회자의 리더십은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무엇을 선택하든 어떤 모습을 선택하든 성도들을 이끄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는 스스로 온유한 스타일이라 생각한다. 성도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부드러움, 성도들의 삶을 감싸줄 수 있는 온유함의 리더십이 섬김을 중요시 여기는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 말하고 싶다. 이것을 위해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훈련을 반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싸고, 끌어안을 수 있는 리더십이 섬김을 통해 발휘 되어져야 한다. 이해의 넓이와 섬김의 폭이 넓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 사전에 갖추어야 할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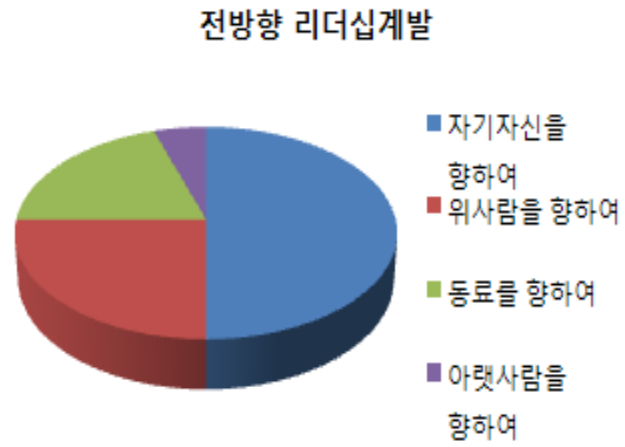
1)유능성개발을 위한 독서계획

표8. 리더십을 위한 독서계획

도서명	내용소개	일정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리더십 팔로어십 (바버라 켈러먼)	21세기의 리더십과 팔로어십!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리더십 팔로어십 『리더십의 종말』. 이 책은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스쿨 교수이자 리더십 전문가인 바버라 켈러먼이 리더십에 관한 진부한 가정을 파하고 리더십의 모순과 부조리를 고발한 것이다. 우선 지난 40년간의 리더십 산업을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10월1 ~ 10월14	느낀점 A4,2장
			발표장소 교육관
존 맥스웰 리더십 불변의 법칙 (존 맥스웰)	존 맥스웰이 전하는 리더십의 결정판으로, 그의 평생에 걸친 리더십 노하우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리더십에 대한 핵심 지침만을 간결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주장과 원칙에서 끝나지 않고 현실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천 매뉴얼까지 덧붙였다. 유명인들의 Behind Story나 인물들의 사례를 통해 리더십의 핵심 원리에서부터 인생의 바탕이 되는 가치, 리더십의 효율적인 실천 방법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11월1 ~ 11월14	느낀점 A4,2장
			발표장소 교육관
KBS스페셜 행복의 리더십 (이재혁)	2012 KBS스페셜 화제작 「행복의 리더십」 세계 13개국 지도자, 석학, 시민들을 취재한 리더십 세계일주!2012년 벽두에 2부작으로 선보인 KBS스페셜 「행복의 리더십」은 '행복'에 대한 입체적 정의, 그리고 국가·지역·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리더가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한 리더를 뽑아야 하는 당위를 말하고 있다.	12월1 ~ 12월14	느낀점 A4,2장
			발표장소 교육관

2)시행결과

목사와 장로가 교회를 리더 해 나가는 것들이 아래의 표와 같이 변화되었다.

표9. 전 방향 리더십계발

Ⅶ. 결론(Conclusion)

1.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55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이지만 새 가족의 정착율이 10%도 되지 못하는 도시변두리에 위치한 교회였다.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하고 연구하기 시작한 결과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장로들에게 문제가 있었고 또 한 담임 목회자에게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목사를 비롯하여 장로들이 교인들에게 대접을 받기를 너무나 좋아했다는 것을 발견하고 알파 훈련과 제자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한 결과 새 가족이 등록하게 되고 그 등록된 새 가족의 정착율이 85%까지 올라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특히 장로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특히 알파 훈련을 통하여서는 한 번도 다른 사람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지 않았던 장로들이 기존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차를 대접하는 모습은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이다. 이런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먼저 목사가 장로들을 섬기는 일에 앞장을 섰다. 뿐만 아니라 외부 강사들을 초빙하여 강연을 듣고 그 강연을 통하여 강사가 과제물을 내주어 그 과제물의 실행했을 때의 자신이 느낀 감정이 어떤가를 발표하게 한 것이 매우 인상 깊었다.

그리고 제자훈련을 통하여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성경적으로 잘 공부를 하게 되었다. 인간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을 더욱더 비중 있게 다루었다. 그 결과 그 동안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며, 섬기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반성하는 시간이었다. 특히 새족식을 통하여 장로

님은 목사님으로부터 자신의 발을 씻겨 눈물을 흘리고 성도들은 장로님으로터 자신들의 발을 씻김을 받아 눈물을 흘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기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사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알파 훈련과 제자훈련이 교회에서 접목되고 실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성장하리라 믿는다.

Ⅸ. 참고문헌(Bibliography)

1. 동양서적

곽선희. *교회의 권세(상.하).* 서울: 계몽출판사, 1995.

김석영. *주님을 본 받는 길.* 서울: 영문, 1994.

김선구. *공동체주의와 교육.* 서울: 학지사, 1999.

김수중 외. *공동체란 무엇인가.* 서울: 이학사, 2002.

김영규. *기독교교육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4.

김장환. *큐티365.* 서울: 나침반출판사, 2010.

김종준. *평등공동체 목회전략.* 서울: 쿰란출판사, 2000.

노영상. *미래교회와 미래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1.

노재관. *신약배경.*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명성훈. *창조적 리더십.* 서울: 서울말씀사, 1997.

문석호. *21세기 한국교회와 공동체 운동.* 서울: 줄과 추, 1998.

박기순. *인간 매체 커뮤니케이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0.

박원영. *새가족 탄생교실.* 서울: 한국강해설교출판부, 2003.

박홍래. *셀그룹 셀교회.* 서울: 서로사랑, 2003.

손두환. *기독교회사.* 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1996.

손병호. *장로교회사의 역사.* 서울: 그리인, 1993.

신성종. *신약역사.*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88.

안병무. *사회학적 성서해석.*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오윤표. *심방의 원리와 실제.* 서울: 그리심 도서출판, 1994.

옥한음.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두란노서원, 1990.

유상섭. *분석사도행전ⅠⅡ.*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5.

이성구. *장로정치 제도의 구약적 조명.* 서울: 복음과 상황, 2002.

이성희. *교회 행정학.* 서울: 한국장로교, 1994.

이시형. *대인공포증.* 서울: 일조각, 1993.

이연길. *말씀목회 패러다임.* 서울: 쿰란출판사, 2002.

이장호. *상담심리학 입문 제2판.* 서울: 박영사, 1982.

이재창 외 5인. *인간 이해를 위한 심리학.* 서울: 문음사, 2004.

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종로서적, 1987.

한철하. *21세기 인류의 살길.* 서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출판, 2003.

2. 번역서적

1994.

2003.

Backster Richard. *참목사상.* 박형용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875.

Bonhoeffer Dietrich. *신도의 공동생활.* 문익환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7.

Chapman Gary. *5가지 사랑의 언어.* 장동숙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7.

Clift Wallace B. *융의 심리학과 기독교.* 이기춘.김성민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Cllinebell Howard J. *목회와 지역사회.* 오성춘 역. 서울: 대한 기독교출판사, 1984.

Cloud Henry. *변화와 치유.* 양은순.오부운 역. 서울: Home, 2001.

Coleman Lyman. *기초공동체 건설.* 성염 역. 서울: 성바오로출판사, 1971.

Collins Gary R. *크리스챤 카운슬링.* 피현희 이혜련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80.

Crabb Lawrence J. *인간이해와 상담.* 윤종석 역. 서울: 두란노, 1993.

Dearing Norma. *힐링 터치*. 박홍래 역. 서울: 서로사랑, 2003.

Flynn Mike & Gregg Doug. *내적치유와 영적성숙*. 오정현 역. 서울: IVP, 1995.

Fromm Erich. 소유냐 존재냐. 차경아 역. 서울: 까치글방, 1996.

Galloway Dale. *뉴호프 커뮤니티 교회 이야기*. 전의우 역. 서울: 요단 출판사, 1999.

Giddens Anthony. *현대사회학*. 김미숙 외 6인 역. 서울: 을유문화사, 1993.

Horne Herman H. *예수님의 교육방법론*.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0.

Ilion Jones. *복음적 예배의 이해*. 정장복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8.

Marshall Paul. *정의로운 정치*. 진웅희 역. 서울: IVP, 1997.

Mcvey Steve.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신호균 역.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2000.

Niebuhr Richard H. *그리스도와 문화*. 김재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Nouwen Henri. *상처입은 치유자*. 최원준 역. 서울: 두란노, 1999.

Seamands David A. *상한감정의 치유*. 송헌복 역. 서울: 두란노, 1986.

Tournier Paul. *고독*. 윤경남 역. 서울: IVP, 1999.

Tournier Paul.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 한정건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2.

Tozer Wilson A. 이용복 역. *세상과 충돌하라*. 서울: 규장, 2005.

Wagner Peter. *교회성장원리*.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0.

Wallace Eric. *가정과 교회가 하나되는 꿈*. 김영실 역. 서울: 미션 월드 라이브러리,

3. 원서자료

Boer Harry R. *A Short History of the Early Church*. Grand Rapids: Wm. B. Erdmans Publishing

Bugnini Annibale. *The Reform of the Liturgy 1948-1975*.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1990.

Company, 1976.

Penelope Brown & Levinson Stephen.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4. 논문자료

김석환. *지역사회를 위한 디아코니아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역할.* 서울: 장신대 신대원 석사학위 논문, 1984.

김은중.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모델 및 대안 제시.* 부산: 고신대 신대원 석사학위 논문. 1993.

김현수.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연구.* 서울: 장신대 신대원 석사학위 논문, 1999.

김현진. *공동체 운동의 교회사적 조명.* 서울: 총신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4.

류인우. *한국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에 대한 연구.* 서울: 장신대 신대원 석사 학위 논문, 1996.

박종삼. *한국인의 사회행동에서 나타나는 체면-기분-눈치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이해의 가능성.* 숭전대 학생 지도연구, 1985.

이성혁.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교회사적 방법론에 관한 고찰.* 서울: 총신대 신대원 석사학위 논문, 1996.

이현희. *공동체적 교회에 대한 신학적 고찰.* 서울: 장신대 신대원 석사학위 논문, 1994.

장상. *사도 바울의 교회 이해.* 서울: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1986.

전성욱. *공동체로서의 교회갱신 방안 연구.* 서울: 한신대 신대원 석사학위 논문, 1996.

전흥만. *교회갱신을 위한 소그룹 성서연구.* 광주: 호남신학대학교 목회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5. 참고사이트

네이버뉴스, http://news.naver.com.

삼일교회, http://www.samil.org.

인포코리안, http://www.infokorean.com.

크리스천뉴스위크, http://www.kcnn.co.kr.

한국생명학연구원, http://www.oikozoe.or.kr.

Ⅷ. Appendices

1. 사역자 지침서

하나님 앞에서(기록요령)	
출석: 출석(○), 지각(/) (결석사유기재)	기 도: 30분 이상(○), 30분 이하(△)
성경통독: 전체(○) 절반(△) 전혀(×)	큐 티: 횟수로 표시
암송, 예습, 독서, 생활봉사 ○ △ × 로	예 배: 주일, 찬양, 수요, 새벽○, × 로

주	이름	출석	기도	성경통독	성경암송	전화연락	큐티	예습	독서물	생활	봉사	예배 드리는 삶				비교
												주일	찬양	수요	새벽	
1	김영화	○	○	○	○	○	○	○	△	△	○	○	○	○	○	
2	문인순	○	△	○	○		○	○	○	△	△	○	○	○	×	
3	문복희	○	○	○	○	○	○	○	△	○	△	○	○	×	×	
4	장성옥	○	○	○	△		○	○	○	○	○	○	○	○	×	
5	최순자	○	○	○	○		○	○	○	△	△	×	×	×	○	
6	최선숙	○	○	○	○	○	○	○	○	○	△	○	○	×	×	
7	권봉근	○	△	○	○		○	○	○	△	△	○	○	○	×	
8	김안일	○	○	○	△		○	○	○	△	△	○	○	×	×	
9	김보현	○	△	○	○		○	○	○	○	○	○	○	×	×	
10	이미향	○	○	○	○		○	○	○	○	△	○	○	○	×	
11	노현자	○	△	○	○	○	○	○	○	○	△	○	○	×	○	
12	강성기	○	△	○	○		○	○	○	△	△	○	○	×	×	
13	김정애	○	○	○	○		○	○	○	○	○	○	○	×	×	
14	염옥자	○	○	○	△	○	○	○	○	△	△	○	○	○	×	
15	윤미희	○	○	○	○	○	○	○	○	○	△	○	○	○	×	
16	이정남	○	○	○	△		○	○	○	○	○	○	○	○	×	
17	선동오	○	△	○	△	○	○	○	○	○	△	○	○	×	○	
18	염공숙	○	○	○	△		○	○	○	○	○	○	○	○	○	
19																
20																
성실은 우리의 영을 살찌우는 최고의 길입니다.																

3. 영적 은사확인진단서

제 1 단계 - 영적 은사 확인 진단서1-1				
아래 하상들은 나에게 일어나거나, 내가 경험한 사실들입니다.	3 항상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1 별로 그렇지 않다	0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
①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심과 회의가 생기는 일이란 없다		○		
②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안정과 성장에 책임을 지고 그 맡은 일을 좋아한다.			○	
③성경의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자세히 설명해 준다.			○	
④성경의 진리를 내 생활에 적용하고 효과적으로 잘 실천한다.			○	
⑤혼자서도 성경의 진리를 잘 터득한다.			○	
⑥어렵고, 실망하고, 곤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말로 잘 위로해 준다.			○	
⑦진리와 비 진리를 잘 분별한다.			○	
⑧주님의 사업에 참여하고, 일하기 위해서 돈 관리를 잘 한다.			○	
⑨주의 종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잘 도와준다.			○	
⑩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불구된 자들과 일하기를 좋아한다.			○	
⑪나와 다른 타 문화권에 잘 적응한다.		○		
⑫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준다.			○	
⑬필요한 사람들에게 음식이나 쉴 곳을 잘 제공한다.			○	
⑭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것을 굳게 믿는다.		○		

제 1 단계 / 영적은사확인 진단서 1-2				
아래 하상들은 나에게 일어나거나, 내가 경험한 사실들입니다.	3	2	1	0
	항상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
⑮말씀에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이룰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시킬 수 있다.			○	
⑯중요한 일을 언제, 누구에게 맡길까, 그리고 할 수 있는 사람과 때를 잘 구분하여 알 수 있다.			○	
⑰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환경이 변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
⑱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친다.				○
⑲방언을 한다.				○
⑳방언을 통변한다.				○
㉑다른 사람과 있을 때 (다른 그리스도인과) 권위 의식을 느낀다.				○
㉒독신이며 독신생활을 즐긴다.				○
㉓다른 사람보다 기도의 필요성을 더 잘 느낀다.		○		
㉔육체의 고난은 내게 문제가 안 된다.			○	
㉕교회에서 특별한 일하기를 좋아한다.			○	
㉖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보여 주신다.				○
㉗한 모임에서 오래 있으면서 그 모임의 성·패 여부에 관련된 일하기를 좋아한다.				○
㉘신약성경을 아주 잘 설명해 준다.				○
㉙어려운 문제의 해결을 직감적으로 잘 해낸다.			○	

제 1 단계 / 영적은사확인 진단서1-3				
아래 하상들은 나에게 일어나거나, 내가 경험한 사실들입니다.	3	2	1	0
	항상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
㉚주님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헌금한다.			○	
㉛더욱 효과적으로 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잘 파악한다.			○	
㉜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특별한 동정을 느낀다.			○	
㉝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외국어를 빨리 배운다.				○
㉞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의 생활을 변화시켰는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기꺼이 전도한다.				○
㉟가족들과 함께 손님들에게 기꺼이 머물 곳을 제공한다.			○	
㊱특별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신다는 특별한 확신을 준다.			○	
㊲내가 가야되는 길을 잘 알고 있고 다른 사람(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따른다.			○	
㊳더욱 효과적인 전도 사업을 위해서 생각이나 사람이나 물질이나 시간을 잘 계획하고 사용한다.			○	
㊴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낸다.				○
㊵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신이 나간 사람들을 고친다.				○

아래에 있는 은사의 정의는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정의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이거나 최종의 성령의 은사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HOUTS 수정질문서에 나타난 은사의 성격에 따라 그의 해당되는 성경말씀을 적은 것입니다.

A. 예언의 은사(Prophecy)

예언의 은사는 특별한 성도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사로서, 말로서 하나님과 성도간에 직접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고전 12 : 10, 28/ 엡 4 : 11/ 행 15 : 32/ 32 : 9~11/ 누가 7 : 26).

B. 목자(Pastor)

목자의 은사는 교회의 특정한 사람에게 주는 은사로서, 믿는 자들의 영적인 안정과 건강을 위해서 장기간의 개인적인 책임감을 갖는 사람에게 주는 은사입니다.

(엡 4 : 11/ 디모데전서 3 : 1~7/ 요한복음 10 : 1~18/ 베드로전서 5 : 1`~3)

C. 가르치는 은사, 교사의 은사(Teaching)

가르치는 은사는 교회의 특정한 사람에게 주는 은사로서, 교회의 더욱 효과적인 전도사업과 목회를 위해서 필요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서로 잘 교제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말합니다.

(고전 12 : 8/ 사도행전 18 : 24~28/ 20 : 20~21/ 로마서 12 : 7/ 엡 4 : 1)

D. 지혜의 은사(Wisdom)

지혜의 은사는 교회의 특정한 사람에게 주는 은사로서, 성령의 원하시는 것들을 알고, 특별한 방법으로 지혜의 통찰력을 갖게 되며, 그 지혜를 교회에 덕이 되고 교회의 필요성에 따라 잘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말합니다.

(고전 12 : 8/ 2 : 1~13/ 행 6 : 3,10/ 베드후서 3:15/ 야고보서 1 : 5~6).

E. 지식의 은사(Knowledge)

지식의 은사는 교회의 특정한 사람에게 주는 은사로서, 교회의 안정과 성장에 필요한 지식, 생각들을 알아내고 그것들을 모아서, 정확하게 분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 : 8/ 2 : 14/ 사도행전 5 : 1~11/ 골로세서 2 : 2~3).

F. 권위하는 은사 (Exhortation)

권위의 은사는 교회의 특정한 사람에게 주는 은사로서,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해 주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도움을 받고 안위를 받은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특별한 능력을 말합니다.

(로마서 12 : 8/ 디모데전서 4 :13/ 히브리서 10 : 25/ 사도행전 14 :22)

G. 영분별의 은사(Discerning of Spirits)

영분별의 은사는 교회의 특정한 사람에게 주는 은사로서,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인간적인 것ㅇ니지를 분별해 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 : 10/ 사도행전 16 : 16~18/ 요한일서 4 : 1~6)

H. 구제하는 은사(Giving)

구제하는 은사는 교회의 특정한 사람에게 주는 은사로서, 자신의 물질이나 자원을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기뻐하며 기꺼이 드리는 특별한 능력을 말합니다.

(로마서 12 : 8/ 고린도후서 8 : 1~7/ 9 : 2,6~8)

I. 도와주는 은사(Helps)

도와주는 은사는 교회의 특정한 사람에게 주는 은사로서, 전도사업에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투자해서, 다른 사람과 자신이 받은 성령의 은사를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더 많은 은사를 받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 : 28/ 로마서 16 : 1~2/ 사도행전 9 : 36).

J. 자비 (긍휼)의 은사(Mercy)

자비의 은사는 교회의 특정한 사람에게 주는 은사로서, 성도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문제,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깊은 동정과 연민을 느끼고 그들의 동정과 연민을 그리스도의 사랑에 입각해서 행동으로 기쁘게 나타내는 특별한 능력을 말합니다.

(로마서 12 : 8/ 사도행전 16 : 33~34/ 누가복음 10 : 33~35/ 마가 9 : 14).

K. 선교의 은사(Missionary)

선교의 은사는 교회의 특정한 사람에게 주는 은사로서, 특별히 자기의 문화권이 아닌 타문화권 (외국)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 : 19~23/ 행 22 : 21/ 13 : 2,3/ 8 : 4/ 로마서 10 : 15).

L. 전도자의 은사(Evangelist)

전도자의 은사는 교회의 특정한 사람에게 주는 은사로서,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교회의 책임있는 한 회원이 되게 하는 특별한 능력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4 : 11/ 행 8 : 5~6/ 8 : 26~40/ 21 : 8/ 14 : 21/ 딤후 4 : 5)

M. 손님 대접하는 은사(Hospitality)

손님 대접하는 은사는 교회의 특정한 회원에게 주는 은사로서, 특별히 집을 제공하고 음식과 쉴 곳을 제공하며 따뜻하게 대접하는 특별한 능력을 말합니다.

(로마서 12 : 9~13/ 16 : 23/ 히브리서 13 : 1~2/ 사도행전 16 : 15)

N. 믿음의 은사(Faith)

믿음의 은사는 교회의 특정한 회원에게 주는 은사로서, 하나님의 뜻과 거의 장래에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특별한 확신을 가지는 능력을 말합니다.

(고전 12 : 9/ 행 27 : 21~25/ 11 : 22~24/ 롬 4 : 18~21/ 히브리서 11장).

O. 지도자의 은사(지도력 / Leadership)

지도력의 은사는 교회의 특정한 회원에게 주는 은사로서, 장래 일어날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목표를 세우고 다른 사람과 이 목표에 대해서 잘 토론하고, 대화하고 이 목표를 자의적으로 조화있게 잘 달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말합니다.

(로마서 12 : 8/ 행 15 : 7~11/ 7 : 10/ 딤전 5 : 17/ 히브리서13 : 17).

P. 다스리는 은사(Administration)

이 은사는 교회의 특정한 회원에게 주는 은사로서, 교회의 특정 기관에서 세운 장기,

단기의 목표를 잘 이해하고 잘 분석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효과적으로 하고 잘 구상하는 특별한 능력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 : 28/ 사도행전 27 : 11/ 6 : 1~7)

Q. 기적의 은사(Miracles)

기적을 행하는 은사는 교회의 특별한 회원에게 주는 은사로서, 자연의 법칙이나 질서를 초월해서 능력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특별한 능력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 : 10, 28/ 사도행전 19 : 11~20/ 9 : 36~42).

R. 신유의 은사(병 고치는 은사/Healing)

신유의 은사는 교회의 특정한 회원에게 주는 은사로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건강을 회복하게 함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 : 9, 28/ 사도행전 3 : 1~10/ 5 : 12~16/ 9 : 32~35).

S. 방언의 은사(Tongues)

방언의 은사는 교회의 특정한 회원에게 주는 은사로서, ①배우지 않은 생소한 언어로 하나님께 이야기 하는 것이며, ②절대로 배우지 않은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대화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 : 10,28/ 14 : 13~19/ 행 2 : 1~13/ 19 : 1~7/ 10 : 44)

T. 통변의 은사(Interpretation)

통변의 은사는 교회의 특정한 회원에게 주는 은사로서, 방언으로 이야기한 사람의 말을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게 하는 특별한 은사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사 12 : 10,30/ 14 : 13,26~28).

U. 사도직분의 은사(Apostle)

사도 직분의 은사는 교회의 특정한 회원에게 주는 은사로서, 교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영적인 문제에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교회일반인에게 지도력을 발휘하며 교회와 성도로부터 그 능력을 인정하고 감사해 하는 특별한 능력을 말합니다.

(고전 12 : 28/ 엡 4 : 11/ 3 : 1~9/ 고후 12 : 12)

V. 독신생활의 은사(Celibacy)

독신생활의 은사는 교회의 특정한 회원에게 주는 은사로서, 독신으로 머물러있으면서 그 생활을 즐기고 결혼하지 않아도 성적인 면에 유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말합니다.

(고전 7 : 7~8/ 마태 19 : 10~12)

W. 간구 • 기도의 은사(Intercession/중보의 기도)

간구 • 기도의 은사는 교회의 특정한 회원에게 주는 은사로서, 정기적으로 오랫동안 기도하며 보통 그리스도인보다도 특별히 그 기도에 응답을 많이 받고 특별한 응답을 항상 은사를 말합니다.

(야고보서 5 : 14~16/ 디모데전서 2 : 1~2/ 골로새서 1 : 9~12).

X. 순교의 은사(Martyrdom)

순교의 은사는 교회의 특정한 회원에게 주는 은사로서, 믿음으로 인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고 그로 인하여 고난을 받지만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태도로 기뻐하며 승리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말합니다.

(고전 13 : 3/ 행 7 : 54~60/ 12 : 1~5/ 8 : 1~4).

Y. 섬기는 은사(Service)

섬기는 은사는 교회의 특정한 회원에게 주는 은사로서, 하나님의 일에 관계하며 필요한 일을 찾아내어 봉사하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며 물질적으로나 자신을 바쳐서 항상 봉사하는 특별한 능력을 말합니다.

(롬 12 : 7/ 행 6 : 1~7/ 딤후 1 : 16~18).

4. 은사발견 분포도

은사발견분포도
사역은사 23%
섬김은사 17%
믿음은사 15%
구제은사 15%
지혜은사 10%
기타 20%
23%
17%
15%
15%
10%
20%